

차 례

여는 시 1 / 풀에게 - 서정홍 시인	1
여는 시 2 / 우리는 - 이영석	2
회장글 / 역사의 진정한 의미 - 이영석	3
편집부장글 / 회지를 마치며 - 박은혜	5
지도선생님 글 / 우리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 최보경	6
우리고장 산청 바로 알기 / 우리고장 산청의 역사와 문화 -편집부	8
역사논단 1 / 4.3의 진실을 밝힌다 - 신지현	27
역사논단 2 / 미완의 혁명 4.19 - 박지훈	31
역사논단 3 / 광주민중항쟁은 역사이다! - 정재원	34
역사와 논쟁 1 /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 편집부	38
역사와 논쟁 2 / 왜 미군은 학살했는가	41
역사와 논쟁 3 / 38선도 6·25 한국전쟁도 미군의 작품이었다?	43
역사와 논쟁 4 /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은 가능한가?	45
답사자료 1 / 구형왕릉과 덕양전 - 편집부	53
답사자료 2 / 거창군 신원면 양민학살 사건일지	55
답사자료 3 / 5·18 광주민중항쟁 일지	57
답사자료 4 / 소쇄원의 멋과 정취	73
답사자료 5 / 탁본	77
답사자료 6 / 국립진주박물관	80
답사자료 7 / '99 대구 풍물굿 한마당	85
답사자료 8 / 영·호남 청소년 영상교류 프로그램	87
문화역사 탐방 1 / 산청에 이런 왕릉이!!! - 이한빈	88
문화역사 탐방 2 / 바위틈의 혈흔 - 황성하	90
문화역사 탐방 3 / 덕천서원보다 먹는 게 더 좋아!! - 이원균	92
문화역사 탐방 4 / 그날의 함성과 결연한 의지를 - 정재원	94
문화역사 탐방 5 / 애국애족의 정신을 - 이지선	96
문화역사 탐방 6 / 지역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 정재원	98
문화역사 탐방 7 / 우리 것이 제일이어 - 심은아	100
문화역사 탐방 8 / 내가 발걸을 하다니 - 박지훈	102
문화역사 탐방 9 / 탁본은 정성입니다 - 박지훈	105
문화역사 탐방 10 /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을 만나다 - 이지선	106

문화역사 탐방 11 / 애인과 함께 소쇄원을 - 신지현	109
간디인과 함께 1 / 사월의 함성 - 편집부	111
/ 감사합니다 - 안준영	113
/ 민주주의를 그리며 - 김정은, 강윤나	114
간디인과 함께 2 / 역사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다 - 심은아	116
자유기고 1 / 패션사전 아님 컴퓨터 게임 사전- 김소정	117
자유기고 2 / 우리말에 진정성을 담자!! - 윤영소	122
자유기고 3 / 식혜는 우리 식생활 문화가 거둔... 손진근	124
정기총회 상반기 / 내가 역사사랑에 존재하는 이유 - 이지선	126
정기총회 하반기 / 대단한 동아리야 정말 - 안준영	127
신입회원 자기소개서 / 내가 역사사랑에 들어온 이유 - 지종현	129
/ 안녕하세요 - 박성준	129
/ 나는 역사사랑이 좋아요 - 강석희	130
/ 역사사랑 짱이야!- 임수근	130
좋은 역사책 골라보기 / 랄랄라, 나 지금 책 읽으러 간다 - 편집부	132
앙케이트 - 편집부	141
감사편지 / 후원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이영석	142
역사사랑인의 하나됨을 위해 / 노래방은 캡이다 - 지종현	143
역사사랑 회원과 생일 /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어요 - 편집부	144
역사사랑 회칙 - 편집부	145



망월동 묘역에서 자기의 생각을 적은 돌맹이를 들고서...

여는 시 1

플에게

서정홍 시인 (고1 서영교 아버지님)

아무도 너에게
가문날 물을 주거나 거름 주지 않아도
비바람 부는 날 막대기 하나 세워 주자 않아도
눈 내리는 날 벗짚조차 덮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너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지 않아도
말 한 마디 건네지 않아도

너는 봄이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면 잎이 자랐다.
가을이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줄 알았다.
추운 겨울 내내, 스스로 네 몸을 썩혀서
또 다른 봄이 오면 싹을 틔울 줄 알았다.

아무도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너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사랑이, 그 큰사랑이
험한 세상을 버티는 힘이 되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여는 시 2

우리는...

이영석(역사사랑 회장, 고2)

우리는

민족의 참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기쁜 일, 슬픈 일, 자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진실된 역사를 알고픈 우리

이제 우리는

노력하려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처럼

참 역사를 이야기 할 때

환하게 미소지으며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장글

역사의 진정한 의미

이영석(역사사랑 회장, 고2)

올해 초였다. 개학을 하고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는 신입교사 몇 분이 계셨다. 그 중 한 분이 “최보경” 선생님이었다. 젊은, 그래서 친구 같은... 내가 느낀 그분의 첫인상이다. 선생님은 어딘지 모르게 끌리는 부분이 있었고 젊은 이유에서인지 학생들을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많았다. 난 그러한 선생님이 참 좋았고 선생님의 밤에 자주 놀러가게 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점차, 난 그 분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분의 생각과 의식, 또 실천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관한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분이였다. 나는 그러한 점을 무척 흥미롭게 느꼈다. 이제껏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분이였다.

어느 날 이었다. 선생님 방에 놀러 갔던 나는 선생님께 “역사 동아리” 창설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 난 그때 그 자리에서 가입을 희망함은 물론, 회장자리까지 넘보았었다. 평소에 역사 교과목 성적이 좋거나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졌던 역사가 없는 나였는데.... 단순히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 민족의 한을 자세히 알고 또다시 한 맺힌 암울한 역사의 재현을 막는다!!”

역사 교과목은 싫어했지만 내 정신세계에는 항상 위와 같은 문장이 박혀 있었다. 역사 동아리에 가입하면 위 문장과 같은 나의 꿈을 미약하게나마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달리는 청춘, 실천하는 청년의 삶 - 역사사랑’ 이 탄생하였다. 우리가 처음 모임을 가졌던 곳은 도서실 맞은 편의 돌 벤치였다. 당시, 껌병이를 포함한 11명이 모였고, 가입 동기 및 활동계획을 간단히 발표했으며 즉석에서 내가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지금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 우리의 첫 활동은 ‘구형왕릉’ 답사였다. 처음에는 답사를 간다는 설레임에 그 곳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놀러 가는 기분으로 다녀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 변화해갔다. 반드시 사전 조사하고 논의하면서 말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거창, 산청 양민학살터, 광주 망월동 묘역, 진주성과 의암, 진주박물관, 구미 발굴현장답사, 탁본실습 등등을 다녀오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현재 나와 우리 사회의 관계 및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하기 힘든 비디

오도 보았다. 사실 알고 보니 모두 다 TV에서 방영된 것들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화재..... 그리고 어떠한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우리 민중의 모습과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을 비디오클립을 통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반기 정기총회’였다. 정기총회와 단합대회를 동시에 둔철 캠퍼스에서 가졌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회원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회의 진행을 맡았던 회장인 나에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소 토요일 모임 때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는데... 정기총회 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기총회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변화한 모습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우리 모두 열심히 뛰어왔다. 회칙을 만들고 집행부도 선출했으며 어느 정도의 예산도 모여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회지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한 때 30명을 육박했던 회원도 현재 최강멤버 1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숨겨진 역사를 알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나아가 밝은 미래의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질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사랑 회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역사사랑’ 활동을 해오며 느낀 수 있었던 가장 큰 깨달음을 말하고자 한다.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끊임없는 상호간의 대화이다. 지나간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 우리가 할 일을 찾아 행하고 나아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사랑**


편집부 글

회지를 마치며...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부장을 맡고있는 은혜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게되어 약간의 부담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회지가 완성된다니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네요. 1년 간 많은 역사사랑 동아리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정리하고, 한 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또한 역사적인 많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지는 특별히 첫 번째 회지였기 때문에 의미도 컸고, 그만큼 힘든 점도 많았거든요.

각 회원마다 맡은 글이나 준비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시간에 맞추어 내지 않으신 분들 땀시 약간 지연되고 수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제가 타자수가 그리 빠르지 않은 관계로 제 주위의 타자 빠른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특히 우리 편집부의 미애와 지선이, 영석 오빠, 지훈이 그리고 역사동아리는 아니지만 폼사리로 아주 조금 도와준 승빈이...) 모두 너무 고마워...^^; 제가 가장 기억에 남게 고생(?)한 것은 토요일 8시간동안 회지 정리한 것, 글구 산청의 문화재 정리할 때 그 내용이 넘 많아서 뇌세포의 비명소리가 들린 것, 또한 정리한 자료가 다 날라 갔을 때예요.(자료가 날라 갔을 때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다 추억이고 그리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고 회지 만드는 것도 제가 너무 하고 싶던 일하기에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또한 몰랐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역사에 대한 제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드디어 회지가 나온다니 정말 기대되고 뿌듯해요. 처음이라 미흡한 점들도 많을 것이지만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사랑 회원들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경쌤 일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지 만드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역사사랑 동아리 내년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지도교사 글

우리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최보경(역사사랑 지도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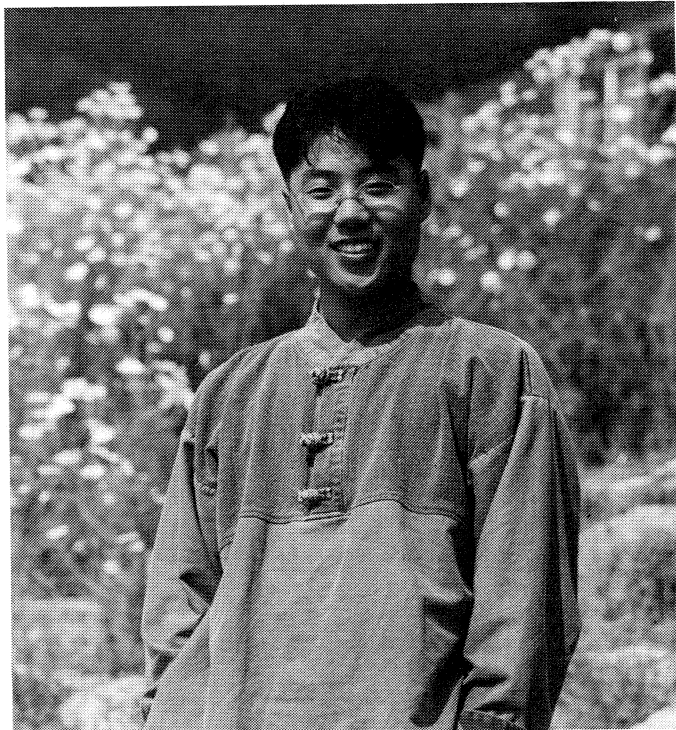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선생님이 다닌 학교는 이른바 ‘스파르타’ 식 학교였어요. 머리카락 길이는 1학년은 1cm, 2학년은 2cm, 3학년은 3cm를 기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조금만 떠들면 기압을 받거나 꾸중을 들어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하지?’ ‘우리는 로봇이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좀 더 자유롭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다닐 때 간디학교 같은 대안학교도 없었고 선생님이 다닌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거야’, ‘그리고 난 역사선생님이 되어서 교실에서만 일방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이곳 저곳 다니면서 직접 만져 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수업을 해야지’ 라고 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린 간디학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역사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동아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름하여 역사사랑!! 동아리는 선생님의 지도는 받지만 전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공간이잖아요. 어찌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생각엔 역사를 공부하려면 먼저 자기 역사를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이후에 나아가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동아리 역사사랑을 통해 우리 고장 산청의 문화와 역사를 답사하고, 잘 못 알고 있거나 숨겨진 역사를 되찾아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벌써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났어요. 어때요? 1년 동안 동아리 활동해보니까 말이에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버린 것 같아 아쉬워요. 여러 친구들과 산청에서부터

멀리 광주, 대구, 구미까지 다니면서 답사하고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특히 원균이 말처럼 선생님도 점심 먹을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아픈 기억도 있었어요. 함께 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선생님이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비록 그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괜찮아요. 그럴수록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은 간디학교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건 아마도 친구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그런가 봐요. 고민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니까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고 아픈 일이 일어나더라도 역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당당히 일어나도록 해요. 지난 역사사랑 1년의 조그만 성과인 회지 '역사사랑' 창간호를 우리 서로 기쁘게 축하하도록 해요. 역사사랑 친구 여러분! 1년간 수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변치 말아요. 



보경쌤의 미소는 정말... 그런데 아직 애인이 없대네요~

우리 고장 산청 바로 알기

우리 고장 산청의 역사와 문화

역사사랑 편집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산청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고향이 산청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최보경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역사사랑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게되는 간디인 모두 산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자 주

고대 신석기 말부터 정착. [단성면 강누리 선돌, 고인돌 유적]

청동기시대 유적.

[산청읍 읍산리, 내리, 삼장면 덕교리에서 마제석기, 토기 출토]

신라 5~6 세기경 가야계열 부족국가 성립.

[생초면 어서리, 신안면 중촌리 고분군]

757 경덕왕 16년 산음현. 단읍현 궐성군으로 개칭.

[산음.단읍은 궐성군의 영현이 됨.]

763 경덕왕22년 단속사. 삼장사등 건립.

불교의 큰 중심지로 성장.

고려 959 궐성군은 강성현으로 개칭 강등후 다시 강성군으로 개칭.

단읍현을 단계현으로 개칭.

1363 공민왕 12년,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면화씨를 가져옴.

1390 공양왕 2년, 산음현,강성현에 감무 임명.

단계현이 강성현 영현으로 복귀.

조선 1399 정종 1년, 강성현에서 영선의 명진현을 병합.

진성면으로 개칭.

1413 태종 13년, 현재 산청읍 자리로 산음현을 옮기고 현감 임명.

1432 세종 14년, 명진현으로 복귀.

[단계현과 강성현을 단성으로 통합시킨 뒤 현감 임명]

1555 명종 10년. 남명 조식이 산천재 세움.

1592 선조 25년 임진왜란 반발.

[조종도, 이로등이 의병 규합하여 진주성 저투를 원호]

1906 삼장, 시천, 금만, 백곡, 사월, 파지등 6개면이 산청군으로 통합.

1914 단성군이 산청군으로 통합됨.

1919 3.1독립운동 때 광종석, 김황 등이 유림을 규합하여 만주평화를 위해 한국독립청원서 제출.

대한민국

1948~1952 여수·순천 민중봉기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사건으로 민족적인 큰 상처를 입음.

1967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1979 산청면이 산청읍으로 승격.

1989 하동군 옥종면 중태리를 시천면에 편입.

위치

산청군은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의 합천군과 의령군, 서쪽은 함양군, 하동군, 남쪽은 진주시, 북쪽은 거창군과 접해 있으며, 그 규모는 동서로 38.5km, 남북간의 40.6km에 달한다. 동경128° 08', 북위 35° 34' 에 위치하며, 면적은 794.7m², 인구 45,421명(97년 통계자료)이다. 1읍 10면 119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청은 산청읍 옥산리 465-3번지에 소재한다.

자연환경

지세는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의 한줄기가 군의 서부를 남북으로 달려가 하동군과 함양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동북부에는 황매산(1,108m)과 소룡산(779m), 전암간(696m)의 합천군과 거창군의 경계를 짓는다.

남부에는 주산(831m), 우방산(570m)이 하동군과의 분수령을 이루고 중앙부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응석봉, 둔철산과 이밖에 백마산, 왕산 등이 우뚝 솟아있다. 하천은 함양으로부터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경호강이 지나고 있으며, 양천과 황매산에서 발원하는 단계천이 동부지역을 흘러가고, 지리산에서 발원한 덕천강이 서부를 각각 남류하면서 남강과 만난다. 이들 하천유역인 단성면, 시천면, 생비량면, 차황면, 산청읍 등지는 지세가 비교적 평탄하고 관개가 용이하며 토양이 비옥하여 농경에 적합하나 넓은 평야는 적은 편이다.

산청의 동부지역은 건상계 낙동통 지층이며 편마암과 화강암이 분포한

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연평균 12.5℃, 1월 평균기온 -0.3℃, 8월 평균기온 25.4℃ 내외로 고원산악지대에서는 기온변화가 심하다. 연 강수량은 960.9mm로 나타나 있다.

인구

1997년 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하면 산청군의 전체인구는 45,421명으로 인구밀도는 57.2명이다. 이 중 남자는 49.0% 22,266명, 여자는 51.0%인 23,155명이다. 세대수는 15,109세대로 세대 당 평균인구는 3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1960년대의 12만 이상의 인구가 경제개발 정책과 창원, 마산, 진주, 등의 인근 도시로 이동된 탓으로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교통

우리군의 총면적은 약 79%가 임야이고 경지면적은 10,690ha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0.71ha에 불과하다. 이 중 논은 73.8%인 7,887ha이고, 밭은 26.2%인 2,803ha인 전형적인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요 생산물은 쌀이며 이밖에 보리, 콩, 조 등의 잡곡류와 채소류의 생산이 많다. 특용작물인 잎담배와 누에치기, 인삼 재배 등이 성행하기도 했으나 근년에는 수확고가 감소되는 추세이며 과실류인 사과와 배, 감 등이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형적 조건에 의해 축산업이 활발하여 약 17,000두의 한우와 젖소, 비육우,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산물 생산으로는 단성 광산과 대명 광산에서 고령토가 출토되며 이를 재료로 요업이 발달되었는데, 특히 생초토기는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우리군의 특산물이기도 하다.

임야에서는 밤, 죽재, 송이버섯, 약용 산나물도 많이 생산된다.

특히 우리군과 마산의 무학주조가 합작하여 공동개발한 무학산청샘물 [화이트]는 맑고 깨끗한 샘물로 그 이름이 높다.

도로교통망은 거창~산청~진주~사천간의 3번국도가 남북으로 관통하며, 의령~단성선이 단성면에서 생비량을 지나고, 단성~지리산을 잇는 도로가 단성면에서 중산리까지 이어지고, 단성~하동선은 하동군 옥종까지 사통팔달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대원사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대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이며, 양산 석남사, 예산의 견성암과 함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비구니 침선도량이다. 대원사로 들어가는 길은 완만

한 계곡과 금강송이라 불리는 아름답디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선계에 이르기 위한 길목에 착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대원사 입구에는 최근에 세운 '방장산 대원사' 라고 쓰여진 일주문이 단청의 화려함과 크기의 웅장함으로 방문객을 반긴다.

대웅전 왼편의 원통보전은 팔작 지붕의 형태이지만, 크기에 변화를 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원통보전을 끼고 뒤로 돌아가면 다시 아담한 계단이 있는데, 계단 중간에 장독대들이 3열 횡대로 정연히 서 있다. 이 장독대는 우리 나라 사찰의 전형성을 띄고 있어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탐스러운 장독대로 인해 대원사의 된장이나 장맛을 한 번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대원사에서 공양이라도 하게 되면 금상천화이다. 장독대 위쪽으로는 산왕각이 있다.

대웅전 오른쪽의 참배객 출입금지로 되어 있는 나무문을 지나 계단으로 오르면 전국의 비구니들이 한 번쯤 거쳐가야 하는 선방인 사리전이 있고, 그 앞에 근년에 보물 제1112호로 지정된 대원사 다층석탑이 있다. 대원사는 548년에 연기 조사가 청건하여 평원사라 하였다. 그 뒤 1천년 동안 폐사되었던 것을 1685년에 운권선사가 건립, 대원암이라 개칭하고 선불간경도량을 개설하여 영남 제일의 강당이 되었다. 1890년에 혜훈선사의 암자가 무너져 크게 중건하였다. 서쪽에서는 조사영당을 보수, 동쪽에는 방장실과 강당을 건립하여 대원사라 개칭하고 큰스님을 초청하여 불교를 공부하니 전국의 수행 승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고 한다.

1914년 1월 12일 밤에 다시 불로 절이 모두 타버린 것을 여러 스님들이 다시 중창하여 1917년 전, 누, 당, 각, 요사채 등 12동 184칸의 건물을 지었다. 여순 군인봉기 사건과 한국전쟁 등으로 폐허가 되어 방치하다가 1955년 9월에 비구니 범일화상이 주지로 임명돼 1986년까지 대웅전, 사리전, 천광전, 원통보전, 산왕각, 봉사루, 범종각, 명부전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절 부근에는 옛적 선비들이 수확했다는 거연정, 군자정이 있다. 맑은 분위기와 비구니들이 용맹정진하고 있다는 숙연성 때문에 몇 번을 찾아도 좋은 절이다.

대원사 다층석탑.

신라 선덕여왕 때 15년에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웠다는 이 탑은 철분을 많이 함유한 타인지 붉은 빛을 띠어 강렬한 인상을 풍기나 조각은 소박하다.

현재의 모습은 오랜 풍화로 탑신이 기울고 마멸된 것을 1989년 7월에 해체 복원한 것이고, 1992년 1월 15일 보물 제 1112호로 지정되었다.

탑의 형태는 2중기단 위에 옥석이 8개 놓여있고, 상층기단 탑신에는 8부 중산을 돌을 새김질해 네 모서리에 공양상이 머리로 탑을 이고 있게 조각되어있다. 공양상의 조각은 단순화시킨 형태미가 매우 현대적이다. 하단의 사면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였고, 체감의 비례가 날 듯이 경쾌해 완벽에 가깝다. 옥개석은 둔중하며, 제 9층의 네 모퉁이에는 작은 종인 풍탁을 달았으며 옥개석의 곡선은 평탄하고 상륜부는 교란되어 복침과 찰주가 남아있고, 전체 높이는 6.6m이다.

조선시대에 이 탑을 개축할 때 72과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큰 것은 녹두알만 하고, 작은 것은 기장알 정도였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불교통사에 전하기를 '지리산에 세 탑이 있는데 대원사탑이 동탑, 법계탑이 중앙탑, 화엄사 삼층석탑이 서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이하게도 연 2회씩 세 탑에서 나온 상서로운 빛이 허공에서 만나 오색 무지개 빛을 휘황찬란하게 발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 세 탑의 사리가 모두 부처 한 몸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되어있다.

울곡사

신등면 울현리 지리산 동쪽 자락에 있는 절이다. 651년 원효가 창건하였고, 930년에 감악조사가 중창하였다. 고려시대의 연혁에 관한 기록은 전혀 알 수 없으나 대웅전 기단 앞에 당시 유물로 생각되는 석조팔각불대좌가 남아 있어 고려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그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조선 성종 때 간행된(동국여지승람) 단성현에 '울곡사는 척지산에 있다' 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도 울곡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곡사의 배치는 산지가람의 전형적인 사동중정형식을 자연지세에 따라 변형한 특이한 형식을 보여준다. 천왕문 등 당우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는 대웅전, 칠성각, 관심당, 요사채만 남았다.

현재의 대웅전은 조선 중기에 지어진 건물이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골 깊은 산 속에 자리잡은 건물답게 상승감을 강조하여 잘 다듬은 돌로 3층의 기단을 만들었으며, 처마 끝 활주가 시원한 눈맛을 더해 준다. 대웅전은 단층 팔각지붕은 다포계 건물로, 정면 3칸·측면 2칸의, 정면과 측면 길이의 비가 황금비를 이루는 그리 크지 않은 1칸 문짝이 4짝인 사분합문을, 좌우에는 문짝이 3짝인 삼분합문을 달아 손길이 많이 갔음을 알 수 있다.

기둥위에는 평방을 엮고 사면을 돌아가면서 처마 밑에는 내외삼출목의 공포를 받쳤으나, 첨차에는 쇠서가 달리지 않았다. 대들보의 앞 뒤 기둥의 공포를 통보가 걸렸고 그로부터 좌우 측면의 중앙기둥에 걸쳐서는 층량을

배치하였는데, 대들보 위에 걸친 층량의 뒤끝은 용두형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대웅전에는 대목의 숨씨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온다. 법당을 중건할 때 어떤 목수가 찾아와 절 짓는 일을 맡겠다고 자청하였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로지 목침만 만들고 있었다. 이를 답답하게 여긴 스님이 목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목침 하나를 몰래 숨겼다. 목침을 다 만든 목수가 세어 보니 하나가 모자랐다. 안색이 변한 목수는 “내 정성이 부족하니 귀중한 법당을 지을 수 없다.”하며 연장을 챙겨 절을 떠나려고 했다. 이에 스님이 몰래 숨긴 목침을 내놓으며 사죄를 하니 목수가 마음을 돌리고, 목침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 올린 기술이 신기에 가까웠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복침설’ 이라고도 한다.

대웅전의 오른쪽으로 향하여 3개의 암봉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데 그 가운데 암봉이 새신바위이다. 원효대사가 이 바위에 올라 지금의 절터를 설이 전해 온다.

대웅전에 단청을 할 때 단청하는 이가 7일 동안 절대로 안을 들여다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가 안으로 들어간 뒤 아무런 기척이 없으므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스님이 마지막 7일째 되는날 결국 참지 못하고 안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대웅전 안에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붓을 물고 다니면서 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낀 새가 단청을 완성하지 못하고 날아가 바위가 되었다. 뒤에 이 바위를 새신바위라고 한다.

울곡사는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채 지리산의 지맥인 척지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웅전이 1963년 보물 제 374호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하다.

단 속 사 지

지리산 자락이 길게 누워 멈춘 옥녀봉 아래 포근히 안기는 단성면 운리 333번지. 그 옛날 절을 찾는 신도들이 단속사의 초입인 광제암문에서 미투리를 갈아 신고 절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어느덧 이야기를 전해올 정도로 그 규모가 장대했음을 알 수 있다.

단속사에는 두 개의 탑비가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법랑에 이어 선종을 익힌 신행선사의 비이고, 하나는 대각국사 탄연의 비라고 전해진다.

일연의 [삼국유사] ‘신증괘관’ 항에는 단속사 창건설화가 2편 실려 있다. 첫 번째 설화는 ‘763년 신증이 두 벗과 서로 약속을 하고 벼슬을 버리고 남약으로 들어갔다. 왕이 두 번을 불러도 나아가지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는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창건하여 기거하면서 평생을 구학에서

마치며 왕의 복을 빌 것을 원하였더니 왕이 허락했다. 임금의 진상을 모셨는데 금당 뒷벽에 있는 그것이 그것이다. 이로 미루어 단속사는 세속적인 곳에서 벗어나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깨우친다는 의미보다는 신충이 임금의 초상화를 금당에 모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왕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었다는 의미가 더 짙다. 두 번째 설화는 '경덕왕 때에 직장 이순이 일찍이 소원을 빌었더니 나이 오십이 되면 출가하여 절을 세우리라 했다. 748년에 그의 나이 오십이 되자 조연소사를 고쳐 큰 절로 만들고 이름을 단속사라 하였다.' 이 설화로 단속사 이정에 작은 절이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크게 중창하여 단속사로 명칭을 바꾼 듯하다.

단속사의 초입은 깎아 세운 듯한 '광제암문' 이라고 새겨진 우람한 바위로부터 시작된다. 용두마을 뒤쪽에 있는 이 석벽은 단속사로 새겨진 해서체의 커다란 글씨는 최치원이 썼다고도 하나, 995년에 이 절의 스님이 쓰고 새긴 것이라 한다.

현재의 절터에는 당간지주와 삼층석탑이 원위치에 있으며, 주변에는 금당지를 비롯하여 강당지 등의 초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라시대의 가람배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당지에는 민가가 있어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속사 삼층석탑을 지나 마을로 들어가면 마음 입구에 고려말 강희백이 단속사에서 공부하면서 심었다는 수령 6백년 이상 된 매화나무가 있다. 뒤에 그가 정당문학 벼슬을 하게 되자 '정당매'로 부르게 되었으며 정당매를 기념하는 비각도 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후손들이 가꾸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으며 경상남도 나무로 지정되었다.

법 계 사

지리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절이다. 554(신라 진흥왕)년 연기조사가 전국을 두루 다녀 본 후에 천하의 승지가 이곳이라고 하여 천왕봉에서 약4km떨어진 이곳에 창건하였다.

절의 위치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약 4km정도 내려온, 중산리에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쉽터로 각광 받고 있다. 법당 왼쪽 바위에 세워진 석탑의 기단에서 굽어보는 눈 맛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다.

법계사는 1380(고려 우왕6)년 이성계에 패배한 왜군에 의해 불탔고, 1405(태종5)년 정심선사가 중창했으나, 1908년 일본군에 의해 다소 소실되어 방치되었다가 1981년 겨우 절다운 형태를 갖추었다. 이 절은 일본과 미묘한 관계가 있는 절로 예로부터 '법계사가 일어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

이 일어나면 법계사가 망한다.’ 고 하여 여러 차례 왜적이 침범하였다.

보물 제473호로 지정되어 있는 법계사 삼층석탑은 높이가 2.5m이며, 조형미의 투박함 등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 초기의 탑으로 추정된다. 탑의 구조는 기단부로 이영된 자연암석에 상면 중앙에 탑신을 받치기 위하여 2단위 받침을 마련하였고, 그 위에 다 별석으로 3층 석탑신을 얹었다. 각 옥신에는 우주를 모각한 이외에 다른 장식이 없다. 옥개석은 하면에 3단의 받침을 모각하고 상면에는 옥신을 받치기 위한 받침이 1단 모각되었으며 1층의 탑 몸체는 매우 높고 2층과 3층은 급하게 줄어들어 낙수면 경사가 심하며, 옥개는 둔중한 편으로 받침은 각층3단이고 추녀는 전각에 이르러 약간 휘어졌다. 상륜부에 뒤에 만든 듯한 포탄형 석재가 얹혀 있을 뿐 모두 없어져 버렸다. 옥개석의 전각은 약간 반전이 되어있으며 전체적으로 중후한 감을 주고 있다.

내 원 사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장단골과 내원골이 합류하는 위치에 절묘하게 자리한 그윽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곳이다.

신라 태종 무열왕 때 무염국사가 창건하여 덕산사라 하였으니 그 뒤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어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1959년 원경스님에 의해 다시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 절 이름도 내원사로 고쳤다.

석남암수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내원사 비로전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은 766년 만들어진 불상으로 내원리 석남암사지에 있다가 내원사로 옮겨온 통일신라의 석불좌상이다. 보물 제1021호로 지정되어있다.

머리의 육계는 높고 큼직한 편이나 약간 파손되었으며, 머리칼은 소발(素髮)로 머리 윤곽은 둥글고 완만한 편이다. 얼굴은 둥글고 부피감이 풍만하여 8세기 신라불상의 원만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단아한 눈, 다정한 코, 작고 예쁜 입, 팽창된 뺨의 부피감이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얼굴의 원만상은 8세기 불상 가운데에도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기에 이 불상이 당대의 뛰어난 평장의 손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체는 긴장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가슴, 허리의 굴곡, 어깨나 팔의 부피감에서 사실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오른손은 약간 들어 가슴 부근에 대어 주먹을 쥐었고, 왼손은 무릎과 거의 수평이 되도록 내려 주먹을 쥐었는데 둘째 손가락만 곧게 세워 오른 주먹 속으로 넣고 있다. 왼손 둘째 손가락이 비현실적으로 길고 두 손이 밑으로 내려진 점 등은 9세기 중엽의 대다수

비로자나불의 지권인(智拳印)수인표현과는 달리 사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권인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데서 오는 초기 단계의 어색함이 아닐까 한다.

문익점 면화시배지

단성면 사월리 106의 1번지. 이곳은 우리 나라에 처음 면화씨가 뿌려져 싹트고 열매맺은 곳이다. 면화 재배의 유래를 간직해 오면서 지금도 '배양마을' 또는 '면화시배지'라 불린다.

문익점이 1363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붓뚜껑 속에 넣어온 면화씨 10알 중반은 그가 직접 심고, 나머지는 장인 정천익이 심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발아하지 못하고 1알만이 이곳에서 싹을 틔워 온 나라로 퍼졌다고 한다.

고려말까지만 해도 면화가 없었던 우리 나라에 면화의 전래는 우리 나라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왔다. 정천익이 고안한 실 뽑는 기구를 문익점의 손자 문래가 만들었다 하여 '문래-물래'가 되었으며, 손자 문영이 처음 베를 짜다 해서 '문영베-무명베'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풀이도 전해져 내려온다.

배양마을에서 지리산으로 향하는 오른쪽 길가에 면화시배지가 있다. 깨끗한 건물을 새로 단장해 문익점 선생을 기리고 있다. 1959년 사적 제108호로 지정되었다.

매표소를 지나 솟을대문으로 들어서면 1965년 건립된 '삼우당문선생면화시배지' 라고 쓰여진 사적비가 있는데 이곳이 처음으로 면화 번식에 성공한 옛터이다. 사적비의 오른쪽에는 문익점 선생의 유물과 베와 관련된 기구, 베 짜는 과정과 무명으로 만든 옷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있다.

전시관에는 면화씨, 면화의 파종, 면화의 생장, 면화의 수확 등 밭에서의 생애, 면화씨를 빼는 기계인 씨아, 고치말기, 솜타기, 고치나 솜에서 실을 빼는 물래, 베를 짜는 베틀, 자연염료, 바느질 도구, 세탁을 위한 잣물 만드는 시무 빛 그 요령 등을 순서대로 전시, 재현하고 있다. 또 무명으로 만든 여러 가지 옷도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을 나가면 문익점 선생의 생가를 복원한 듯한 사랑채 건물이 한동 있고, 그 옆에는 1백여 평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면화가 재배되고 있다.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 거의 사라진 면화를 실제로 볼 수 있어 문익점 선생이 재배하던 당시의 그 감회에 젖어볼 수 있다. 면화 밭 앞에는 어머니 묘소를 지킨 문익점 선생의 효심을 기려 나라에서 내려진 '효자리' 라 새겨진 비가 보존되어 있는 효자각이 있다. 선생의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이 돌아가신 뒤에 시묘살이를 할 당시 왜적이 침입, 분탕질이 심해 모두

피난을 가는데도 오직 선생은 홀로 여막을 지키며 평상시와 같은 곡을 하고 있었다니 흉악한 왜적도 감탄하여 나무를 다듬어 ‘효자를 해치지 마라’고 써서 세움으로써 근처가 모두 평안하였다고 한다. 그 뒤 1383(우왕 9)년에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면서 이 마을을 효자리라 하였다고 한다.

도 천 서 원

신안면 신안리에 있다. 1401(태종 1)년 지방 유림의 공의로 문익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554(연종 9)년 ‘도천’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했으며 1612(광해군 4)년 증건하였다. 1787(정조 11)년에 복원하고, 그 뒤 권도를 추가배향하여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68(고종 5)년 훼철되었다가 광복 후 유림에 의하여 복원되었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우, 3칸의 내삼문, 4칸의 강당, 각 5칸의 좌우서재, 기타 창고와 고사 등이 있다. 사우의 중앙에는 문익점의 위패가, 오른쪽에는 권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은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들의 회합 및 학문의 토론장소로 사용되며, 고사는 고자들이 거처하면서 향례 때 제수를 마련해 두는 곳이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과 9월 초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은 4변 4두다. 재산은 전답 4,500평, 임야는 10정보 등이 있다.

신안사재는 문익점 선생 향사 때 제관들이 숙소로 쓰던 건물로 명종 때 창건되었으며, 현존하는 건물은 1804(순조 4)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 서원의 바로 옆산에 문익점 선생의 묘가 있다.

남 명 조 식 유 적 지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가는 산청군 원지에서 이삼십 분 더 달리면 덕산즉 시천면 원리에 이르는데 덕천강이 내려다보이는 이 곳에 처가 남명 조식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유림들이 세운 덕천서원이 있다.

남명선생이 덕산에 들어오면서 그 입구를 입덕이라 하였는데, 뒤에 선생의 뜻을 기려 제자인 이제신이 ‘덕으로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으로 바위에 새겨 덕산 입구에 세운 ‘입덕문’을 세웠다. 서원의 역사는 400년이 넘었고 덕천사원은 남명이 타계한 지 4년만인 1576년에 건립되어 1609(광해군 1)년 ‘덕천사원’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선생의 제자인 수우당 최영경을 배향하여 향사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1868(고종 5)년 훼철되었다가 1920년대에 유림들에 의해 복원되었다.

매년 음력 3월,9월의 처음으로 돌아오는 정일에 향사를 드리고, 양력 8월 18일에 선생의 탄신을 추모하는 남명제가 개최된다.

현재 이 서원은 선생의 다른 사적지와 함께 국가 문화재 사적 제305호로 지정되어 있다.

덕천사원 대문과 마주한 덕천강변에는 세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정자는 선생의 제자인 최영경 등이 중심이 되어 덕천서원과 함께 지어졌던 것으로 제자 하항이 [주역]에 나오는 '성인의 마음을 씻는다'라는 말을 취하여 그 이름을 붙였다. 현재의 정자는 그 후 여러 번 개축하여 본 모습을 잃은 것으로 보이나 정자에 앉아 덕천강을 바라보며 혼탁한 마음을 씻고 군자로서의 마음을 다지던 옛 정취와 덕천강의 시원한 바람은 그대로인 듯하다. 하수일이 정자를 지은 내력을 자세히 밝힌 세심정기가 정자에 실려 있다. 천장의 기하학적 구조가 재미있다. 세심정 옆에는 옥천이라는 남명선생의 시를 돌에 새겨 놓아 많은 이로 하여금 세상에 찌든 마음을 씻게 해준다. 덕천사원에서 덕천강을 따라 진주방면으로 5분 정도 가면 남명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산천재가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한 시천면 사리덕천강에 있다. 이 건물은 1561(명종 16)년에 지었으나 조일전쟁 때 소실되어 200년 이상 복구하지 못하다가 1817(순조 17)년에 중건되었다. 산천재의 기둥에는 선생이 이곳에 처음 들어와 살 적의 심경을 읊은 '덕산복거' 라는 시가 주련으로 붙어 있다.

덕산에 살 곳을 잡으며

봄 산 어디엔들 꽃다운 풀 없으리요

다만 천왕봉이 상제와 가까움을 사랑해서라네

빈손으로 왔으니 무얼 먹고, 살거나

은하가 십리이니 먹고도 남으리

산천재의 뒷마루에 앉아 위를 보면 천장의 정면에는 해서체로 '산천재'라 쓰여진 간판이 있고 그 옆 세면에는 어느 서원에서든 볼 수 없는 벽화가 토벽에 그려져 있다. 400년 이상 된 그림이라 지금은 대체적인 윤곽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다. 첫 번째 벽화는 바둑 두는 그림으로 청아한 은자(隱者)의 모습을 표현했고, 다음은 차 끓이는 그림과 발가는 그림으로 선비들의 맑은 정신과 선생의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실천 위주의 학문관을 각각 표현해 처사로서의 은일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 외에도 합천 삼가에 뇌룡정, 김해에 산동 친필 2점과 선생이 평소에 마음을 수양하기 위하여 '내명자경 외단자의' 즉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고,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라는 명문을 새겨 차고 다닌 칼, 직접

만들어서 자신이 기거하던 방안에 모셔 놓고 아침마다 친히 가르침을 받는 듯이 참배했던 공자, 주렴계, 정명도, 주자 등 네 성현을 그려 놓은 네 폭으로 된 나지막한 병풍, 『남명집』과 목판이 전해 온다. 『남명집』은 1604(선조 37)년 제자 정인홍 등에 의해 초간본이 간행되었으나 책판이 불타, 1606년 다시 간행되었다. 그 후 정인홍과 관계된 문자를 삭제하거나 문집체제를 정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13차에 걸쳐 수정·간행되었다. 1825년 간행된 남명집은 선생의 시문과 학기유편 및 사우연원록 등이 모두 들어 있어 여러 간본 중 가장 완정된 것이다.

남명 조식 선생

조선 중기 대유학자 남명 조식은 실천성리학의 대가이었다. 선생의 자는 건중, 본관은 창녕이고 호는 남명이다. 1501(연산군 7)년 함천 삼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함천에서 보내다가 7세 때 아버지 언형이 문과에 급제하자 부친의 임지로 따라다니면서 정치의 득실과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눈여겨보게 되었다.

선생은 경의를 중시했는데 마음이 밝은 것을 경이라 하고, 외적으로 과단성이 있는 것을 의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바로 경으로써 마음을 끈게 하고, 의로써 생활해 나간다는 의리철학 또는 생활철학을 표방한 것이다. 그는 특히 실천공행을 강조했는데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소학, 논어, 대학같은 실천적인 경전을 먼저 가르쳐야 하고, 교수방법도 자해자득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는 광재우 등 선생의 문하생들이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비의 몸으로 의병활동에 참여, 투철한 선비정신을 보여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학풍과 선비정신은 조선말까지 이 지역에 면면히 이어져 남명 선생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퇴계와 더불어 영남유학의 쌍벽을 이루었던 그였지만 일체의 벼슬을 바다하고 지리산 자락에 은둔했던 한 시대의 거대한 봉우리가 우리 나라 정신사에서 지리산의 무게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다.

남사마을

단성면 남사리 국도 변을 지나가면 기와집 여러 채가 밀집되어 있는 정겨운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이 남사마을이다. 배산임수 즉 웅성봉을 병풍 삼고, 마을을 휘돌아 흘러가는 사수천을 끼고 있는 이곳은 오랜 옛날부터 양반 마을로, 남사마을로 시집가거나 남사마을에서 시집을 오면 큰 영광이라 여길 정도로 인근에서는 그 명성이 자자했다.

여느 전통마을과 같이 특징적인 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밖에서 얼핏 스쳐가며 보아도 예사롭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골목과 그 골목 사이의 돌담들은 정겨운 추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하다. 남사마을의 돌담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돌과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황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견고하고 예쁘다. 다만 돌담의 높이가 폐쇄적으로 보일 만큼 높아 그 미감은 덜하지만 이 지역 사대부계층의 특징적인 면모를 볼 수 있어 이채롭다. 고가들 중 일부는 기능성을 중시하는 현대적인 양식을 좇아 변화를 시도한 가옥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성철스님 생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스님은 고된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 또한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의 자세 때문에 불교계는 물론 속계에서도 귀감이 되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성철스님은 1944년 문경 대승사에서 등을 바닥에 대지 않은 채 면벽수도하는 장좌불와 수행을 8년간 했으며, 1955년부터는 대구 팔공산 파계사 성진암 토굴 속에서 10년간 은거하는 초인적 수행을 하기도 했다. 당시 자신의 거처 주위에 철조망을 둘러 사람의 접근을 막고, 심지어 안부가 궁금해 찾아오는 스님들에게조차 기와를 던지며 못 들어오게 한 것은 불가에서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승려는 수행만이 중생을 위한 길이라며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암자에 칩거 정진수도에 전념하던 성철스님이 1981년 조계종 종정 직책을 수락하면서 사대부중에게 보낸 법어이다. 이 법어는 참된 자아를 잃고 암흑의 세계에서 방황하던 일반대중에게 던진 청향법음이었다.

생가 터는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과 동시에 대규모 불교 성지로 자리잡게 되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기념사업회인 금강재단과 백련불교문화재단에서 많은 추모사업을 하고 있다.

지리산 성모상

지리산 중산리 버스정류소에서 두류동 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 사잇길로 꺾어 5백m가량 가면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조그마한 절 천왕사가 있다. 이곳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주신으로 1천년 동안 천왕봉 꼭대기에 모셔져 천왕봉에 오르던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 왔던 성모상이 있다.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 시달려 온 역정을 유감없이 보여 주는 이 석상은

소박하고 독자적인 조각 솜씨가 오랜 세월 민중의 염원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두 자 높이의 이 석상은 가슴께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데 40대의 신라 여인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성모상은 왜구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수난을 당했다. 최근에도 수난을 당하여 진주와 황매산 근처에 부러져 흩어진 것을 청왕사 주지스님의 현몽으로 이곳에 모셨다고 한다. 지금도 천왕사에서 봄·가을 두 차례 성모상을 위한 제를 올리고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밤에 기도회를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도전리 마애불상군

생비량면 도전리에 있는 마애불상군은 바위 위에 29구의 불상으로 새겨져 있다. 이들 불상 군은 절벽 위 큰 바위에 4단으로 줄을 지어 새겨져 있는데 1단에는 14구, 2단 9구, 3단 3구, 4단에는 3구를 배치했으며 불상 1구의 크기는 약 30cm미만이다.

대개 연화좌대 위에 결가부좌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발의 머리칼에 큼직한 육계가 솟아 있고, 얼굴은 둥글고 단아하지만 이목구비는 마멸이 심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몸은 사각형이면서도 단정하며 통견의 범의를 밀집되게 나타내어 신라 말, 고려 초 특히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이 강하게 보인다. 탄력과 세련미는 줄었으나 단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뛰어난 조각가에 의한 미려한 불상 군이라기보다는 민중 불교의 기복적인 성격이 짙게 풍겨져 나온다 이들 불상 옆에 새겨진 00선생이라는 명문과 함께 생각하면 더욱 흥미롭다.

우계서원

우계서원은 조선 중기 학자로 이름을 떨친 이경주 선생을 기려 그 후손들이 세운 서원이다. 선생은 호를 효렴이라고도 했는데 1562년에 효렴정사를 우사마을에 세웠는데 그 후 후손들에 의해 1862년에 우계서원과 우계강당을 부속 건물로 하여 양심 재를 건립하였다.

현재 우계당은 정면 6칸 방 2칸 대청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건물의 양식적 특징으로 연가를 들 수 있고 기단 면이 다른 건축물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이 있다. 문화재 자료 244이다.

백마산성

신안면 하정리 백마산 벼랑위에 의연하게 자리잡은 유서 깊은 성곽인 백마산성은 임진왜란 때 광재우 장군이 지혜로 왜적을 물리친 역사의 현장이다. 250m높이의 동서남 3면은 암벽으로 둘러 싸여있다. 이 산정에는 일년

내내 마르지 않는 큰 못이 남아 있다.

정취암 탕화

조선시대 불화의 한 형식인 탕화를 간직하고 있는 정취암은 척지고개 산록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산세와 어우러져 찾는 이의 발길이 잦은 편이다.

이 불화는 조선시대 불화 중 그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할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적 기법이 뚜렷해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 자료 243호 이다.

지곡사지

산청군 내리에 있는 지곡사지는 신라시대 법흥왕 대의 거대한 사찰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확인된 3개의 건물 터를 중심으로 거북2개와 우물 그리고 담장의 흔적을 간직한 유적지이다. 기념물 제194호 이다.

지석묘군

산청에는 경호강과 양천강 줄기를 따라 선돌과 지석묘군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일찍부터 강을 따라 평지에 고대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현재의 산청이 아주 오랜 연원을 지닌 곳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성면 입석리 선돌은 현재까지도 개인의 기복을 비는 장소로 여겨져 온다. 원래는 3기였으나 홍수로 1기가 유실되어 2기만 남아 있다. 이외에도 신등면 평지리에는 1기의 선돌이 남아있다. 단성면과 생비량면 등지에는 지석묘가 산재해 있다. 잔성면 강누리 일대에는 10여 기, 생비량면 송계리에 3기의 지석묘가 남아있다.

고분군

통일신라 이전 가야문화권이었던 산청에는 고분이 많다. 산청 생초 고분군은 어서리 포평마을 뒷산에 있는 100여기의 봉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대는 직경이 약 9미터, 높이 3미터에 이른다. 현재는 밭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주나 서울 인근의 왕릉의 위엄 있는 고분을 상상하다가 이 시대 고분군의 진면목을 찾을 수 없다. 이름 없는 역사의 주인공을 만나는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단성면 사월리고분, 장위리 고분, 중촌리고분 등이 남아 있다. 이중 중촌리고분군은 산성마을 주변에 수십기가 있는데 이는 가야 및 통일 신라 이전 무덤으로 전해진다.

단성 석조여래좌상

진주시 망경남동 금선암에 가면 1957년 단성면 사원리 절터에서 옮겨간 통일신라 후기의 작품인 약사여래좌좌상이 있다. 높이 1.33미터이며 보물 제 37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상의 형태는 조각수법이 거친 듯하나 대담강직한 역강성이 산청사람의 기개를 담고 있는 산청인의 표본 같은 부처상이다.

단성현호적장적

조선 후기 단성면 즉 산청군에서 호적식년을 당하여 조사된 호구를 리별로 정리·정서하여 묶은 책이다. 3년마다 돌아오는 식년 즉 간지에 자. 묘. 오. 유. 가 들어가는 해가 되면 가구나 호적을 조사했는데 현재 32식년의 13책은 단성향교에 소장되어 있지만 1825~1888년의 대장25책은 일제 때 침탈되어 일본 가쿠슈인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안타깝다.

신행선사비

신라 해공왕대의 선승 신행은 중년에 중이 되어 범랑에게서 선법을 구한 뒤 당나라의 지공 밑에서 관정수기를 받고 귀국하여 단속사에서 중국 북종선을 선양한 고승이다. 비는 813 (헌덕왕 5)년에 단속사 서쪽에 세워졌는데 비가 부서져 박살이 났으나 다행히 비의 탁본이 전해오며 유희애의 『해동금석원』에 비의 전문이 실려있어 지금의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고 비편이 수습되어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단속사 대감국사비

1172년(명종2)년에 세워진 단속사에 있었던 대가국사 탄연의 탑비로 현재는 없어졌으나 그 비편만 수습되어 숙명여대 박물관에 남아있다.

단성군 읍지

1899년 편찬된 단성면의 읍지이다. 조선 조 때 편찬된 마지막 읍지로 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1책 구성이다. 표지에 '경상남도 단성군 읍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내용구성은 군의 연혁·명칭·관직·성씨·풍속·자연환경·위치·호구·전답·창고·학교·봉수·명승지·루와 정자·사찰·토산물·진공품·인물·과거·시장·시·비·등이 수록되어 있다.

원래 2부를 제작해 1부는 군에, 다른 1부는 중앙정부에 비치했으나 군의 것은 분실되었고, 중앙정부의 것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석남암수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사리호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석남암사지에 있다가 현재 내원사로 옮겨놓은 통일신라의 비로자나 석불상의 중대석 중앙의 구멍에 사리장치가 있는데 이

것은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이 사리호 표면에는 15행 136자의 명문이 새겨있어 이 불상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이 명문으로 비로자나불상이 766(신라 혜공왕2)년에 조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의 조성과 조각사 편년 및 사상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 비로자나 불상은 곁형태는 돌부처로 내원사에 남겨져 있다.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경벽궁 한 쪽에 높이 4.8미터의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을 갖춘 장식성이 뛰어난 삼층석탑이 무성한 나무들을 배경으로 하여 단출하게 서 있다.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이라 불리는 이 탑은 국보 제 105호로 화강석 석탑이다.

이 탑의 구조는 2층 기단 위에 3층 석탑을 세우고 그 정상에 상륜부를 형성한 신라시대의 일반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나 기단의 하대석은 옮겨 올 때 시멘트로 보강하여 원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륜부는 전부 없어져 허전해 보인다.

산청의 특산물

산청 메뚜기쌀

산청군 차황면의 가을 메뚜기와와의 전쟁으로 시작한다. 과다한 농약 살포로 메뚜기를 볼 수 없게 된 것이 이미 오래 전 일이나 이곳에서는 누렇게 익은 벼 사이에 메뚜기가 많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10월이 되면 메뚜기 잡기 대회가 열려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떠올려 주기도 한다.

산청 꽃감

꽃감의 고장, 산청군 시천면 덕산마을에 가을이 오면 마을이 온통 붉어진다. 동네 감나무 예도, 꽃감 건조막에도, 동네 사람들의 손에도 감이 주렁주렁 하다. 9월에 접어들면서 깎기 시작한 꽃감은 본격적인 감 수확철인 11월이 되면 절정을 이룬다.

덕산 꽃감은 조선조에는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그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의 꽃감보다 당도도 월등하며 색깔이 곱고, 깨끗하며, 오래도록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장점을 지닌다.

산청 흑돼지

산청 흑돼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래종으로 지리산 맑은 공기와 심심산골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로 사육되므로 다른 지역과는 비교되지 않는 육질을 자랑한다. 특히 고기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사료에 지리산 산록의 황토를 섞어 먹이는 것이 고유의 육질을 만드는 비결이다.

재래종 흑돼지가 본래 가지는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고기 맛과 이러한 천연 자연환경으로 인해 산청 흑돼지는 특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산청 흑염소

지리산에서 각종 약초와 맑은 물을 먹고 자란 산청 토종 흑염소는 지리산 자락에서 자연 방목되어 다른 지역의 흑염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전국에서 약용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산청 복조리

지리산 자락의 내원 마을에는 겨울철이 되면 복을 기원하는 조리를 만드는 손길로 번잡하다. 조리는 쌀을 이는 기구인데 그 해의 행복을 쌀알과 같이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믿음에서 설날 아침이나 선달 그믐날 밤에 사서 벽에 걸어두었다가 사용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대밭이 많아 예로부터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하여 복조리를 생산해왔다. 내원골에서 만드는 복조리는 모양새가 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지리산 산청샘물 화이트

‘깨끗한 환경, 맑은 공기, 울창한 숲’을 가진 지리산 심산계곡, 산청군 삼장면 찬새미골의 지하320m화성암반 속에서 뽑아 올린 천연 광천수가 화이트이다.

화이트는 약알카리성으로 인체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무공해 샘물이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이온, 황산이온, 중탄산이온, 질산성질소 등의 무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도 36~42mg/l, 수소이온농도(pH)8.0±0.2이다. 지리산의 정기를 그대로 가득 담은 화이트는 지리산의 기를 그대로 마실 수 있다.

산청 고령토, 산청 도기

산청은 고령토 산지다. 산청의 고령토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황토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질이 아주 좋다. 이 황토에는 원적외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산청에서 생산되는 도기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의 맛이 아주 좋아진다. 또한 산청도기는 황토질에서 뽑은 천연유약을 사용하여 자연색 그대로의 질박한 멋을 내며, 숨쉬는 자기로 만들어진다.

느타리버섯 · 표고버섯

산청의 특산물 중 하나인 느타리버섯은 삶으면 부드러워져 입안 촉감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에는 인공재배를 통해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데 방자구이, 부침개, 전골감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표고버섯도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식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비타민B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독감이나 풍을 다스리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산청 꿀사과

지리산 산록면의 고산지에서 재배한 꿀사과는 당도가 아주 높아 인기가 많다. 산청 꿀사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밤에는 열고 낮에는 녹아 꿀이라는 액이 사과 가운데 생겨 당도가 높아지고 지리산 계곡의 맑은 공기와 물로 자라기에 더욱 신선하다.

산청 배

퇴비를 많이 사용하여 새로운 특산물로 개발된 산청 배는 날로 소비자의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토종꿀

산청은 지리산을 끼고 있어 거의 전 지역에서 농가부업으로 벌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옛부터 벌을 많이 키워왔다. 지리산 벌꿀은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지리산의 수많은 자연약초의 밀원에서 채취된다. 또한 고산지대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며, 순도도 아주 높다.

누에가루

공해가 없는 지리산자락에서 자란 뽕잎을 먹은 누에로 만들어 약효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그밖에 등굴레차와 머루주 등이 산청의 특산물로 꼽히고 있다.

역사사랑

역사논단 1

이 역사 논단에서는 4·3과 5·18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와 피해정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것이 무엇일까? 등에 대
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회원들이 열심히 정리하였거든요. 신중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4.3의 진실을 밝힌다!!!

신지현(고1)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과제

8월 15일 일본 정부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우리의 앞날에 또 다른 걸림돌이 나타났다. 감격스런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 진 절대절명의 과제는 바로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이었다. 그러나 마치 구세주인 마냥 등장한 '미국!', '이제부터는 우리 미국이 당신네 들을 도와주겠다.' 라는 명목으로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미국은 우리 의 주체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그들만의 단독 정치에 들어갔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분단과 고통은 무시한 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단독선 거를 강요했다. 이승만과 친일파들은 그들의 권력을 위해 민족을 둘로 갈 라놓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강행하려 하였다. 미국은 그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였다. 김구를 비롯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의 반대와 각계 각층의 민 중의 반대시위가 뜨겁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 현대사의 시발이 된 「4.3항 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주 4.3의 전개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광덕정 광장에서 3.1절 2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가 있었다. 기념행사가 끝나고 광덕정 광장을 향해 가두시위가 시작되 었다. 1만명 가량이 참여한 대규모 행렬로 광덕정의 제주 감찰철 앞에는 응원경찰과 미군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시위 행렬이 거의 다 지나간 후쯤 그 자리에서 발포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된 사람들은 시위를 구경하던 사 람들이었다. 6명의 민간인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고 8명이 부상당했

다. 3.1발포사건이 알려지고 육지부 응원경찰대에 의해 발포되었다는 점과 희생자들이 시위대가 아닌 일반 관중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민들을 격앙시켜 4.3의 도화선이 되었다. 5.10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1948년 4월 3일 좌익무장대가 ‘탄압이면 항쟁이다.’며 단독 정부 수립과 단독선거 반대를 기치로 새벽 1시를 전무하여 한라산의 봉우리마다 봉화가 타오르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새벽 도내 24개 지서 가운데 11개 지서가 공격을 받았고 경찰과 우익단체 간부의 집이 습격 당했다. 이렇게 4.3항쟁이 시작되자 미군은 대규모 진압을 서둘렀다. 서울에서 CIC장교가 내려와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찾았다. 다음은 유고 <4.3의 진실>에서 김익렬이 밝힌 바이다. “제주도 폭동이 빠른 시일 내에 진압되지 않으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한국 독립에도 유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초토화 작전” 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김익렬은 좌익무장대 사령관 김달삼과 4월 28일 평화협상을 갖고 전투 중 저지와 무장대 해산들에 합의했다. 그러나 5월 1일 정체 불명의 괴한 30여명이 제주읍 오라리를 습격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른 오라리 사건으로 인해 평화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유인즉슨, 오라리 방화사건은 9연대 조사결과 우익청년단원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연대장이 미군정에 보고했으나 “경찰보고와 다르고 폭도들이 한 것이다.”이라고 일축되었기 때문이다. 5월 10일 선거가 치러지고 끝나자마자 미군정의 빨갱이 사냥이 본격화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


미군 G-2보고서에 의하면 9연대가 중간산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게릴라 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연한 가정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계획을 채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무장대와 내통한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나아가 무장대라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 없이 대규모 집단 학살 한 것은 전쟁 범죄 행위였다. 1948년 11월 13일 새벽 2시경 제주도 중간 마을인 조천면 교래리를 포위한 토벌대는 집집마다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불기운에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집밖으로 뛰쳐나오자 군인들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이 뿜어져 나왔다. 100여가구가 오순도순 살아가던 설촌 700년의 유서 깊은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른바 초토화 작전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간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다. 토벌작전이 있을 때 13명의 목을 잘라서 시내를 두루 다님 구경시키기도 하였고 처음엔 ‘말 태우기’와 뺨때리기가 유명했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집결시킨 가운데

데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하고 며느리를 그 위에 태워 빙빙 돌게 했다. 또 할아버지와 손자를 마주 세워놓고 서로 뺨을 때리도록 했다. 머뭇거리거나 살살 때리면 곧 무자비한 구타가 가해졌다. 심지어는 총살에 앞서 총살자 가족들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 부모 형제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했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초등학교 마당에 집결시켜 놓고 모두다 옷을 벗긴 채 매질을 하고 남 여 한 명씩을 지목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하도록 강요했다. 머뭇거리면 또 다시 매질이 같이 어린 노약자 부녀자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에 의해 증창 총칼에 찢려 죽고, 총, 몽둥이에 맞아 죽고 불에 타죽고 땅에 파묻혀 죽고 바위에 떨어져 주곡 나무에 매달려 죽고 바다에 던져져 죽고 굶어 죽고 얼어죽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해서 죽은 이가 그때 제주도 인구 28만 중에 3만 여명으로 추산됨 그것도 80퍼센트 이상이 공산주의의 ‘공’자도 모르는 그야 말로 뭇 모르고 억울하게 죽어간 제주도민들이었다. 학살극은 토벌 작전을 끝낸 경찰이 54년 9월 한라산 금족지역을 개방함으로써 끝났다.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서 토벌군들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불가항력의 주민들을 학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는지 의문이 그치지 않는다.

4.3의 진실 규명은 우리의 몫이다!

아직도 한쪽에선 ‘폭동’으로, 다른 한쪽에선 ‘민중항쟁’ 또는 ‘무장봉기’로 이름을 드날리는 4.3항쟁! 이제 4.3항쟁도 응달의 역사 속에서 양달로 나와야 한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어도 당시 억울하게 학살된 양민과 그 가족 자손들까지 4.3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이다. 역대정권은 4.3을 ‘공산폭동’ 이라고 규정해 논의 자체를 봉쇄해왔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레드 콤플렉스’ 에 시달렸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4.3을 잘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 한국 현대사와는 무관한 제주도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쯤으로 외면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50년간 외롭게 몸부림 쳐 왔다. 도민들은 또한 끈질긴 생명력과 민주의식의 고양으로 4.3피해의식을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 76세의 한 할머니는 남편과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을 증언하던 중 자신은 TV연속극을 보지 않노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난 어릴 적부터 약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학살을 명령한 이승만에게 있지요. 그런데 억울한 한은 풀어야 할 게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비행

기사고가 나면 뼈라도 건지고 하다 못해 그곳 흙이라도 담아 오던데 나는 남편이 묻힌 장소를 정확히 모르니 그 조차 못해봤습니다. 난 텔레비전 연속극은 재미가 없어서 안보지만 뉴스는 꼭 봅니다. 정치가 잘되 죽기 전에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역사의 진실 캐기는 그때의 잘못을 토대로 앞으로 그런 불행한 과거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이다.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듯이 우리의 후세는 오늘의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제대로 알아야 그로부터 배워 같은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진실 규명하기 위한 오늘의 노력은 미래를 위한 헌신이기도 하다. 단독 정부 수립과 단독선거 반대를 부르짖다 떠난 이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귀담아야 하겠다. 

역사논단 2

미완의 혁명 4.19


박지훈(역사사랑 답사부장, 고1)

1948년 8월15 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정치적 시련을 겪는다. 바로 그것은 국회가 친일 민족 반역자와 부일 협력자 처단이라는 과제를 이루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친일파는 그 즉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하는 의원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고 구속한 사건을 국회프락치 사건이라 한다. 결국 이승만은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해산시켰고 이승만 덕분에 목숨을 건진 친일파는 이승만 정권의 더욱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48명만이 뽑혔다. 이는 곧 이승만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비상계엄령을 내려 다시 반격에 나선다. 그리하여 헌병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147명을 연행하였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들이 속속 등장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고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하였고 그 뒤 대통령 선거에서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승만은 폭력과 탄압을 해서라도 자기가 영구집권을 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54년 5월 돈과 관건과 폭력이 뒤섞인 국회의 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국회의원 2/3선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승만에게도 또 한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대통령은 제2회까지만 중임 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이었으나 이해 9월 이중임 조항을 철폐하자는 개헌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하여 표결결과 재적203명 중 찬성이 135가 나와 개헌안 통과선인 136표가 나와 한 표가 모자랐다. 그래서 부결이 선포되었으나 이승만과 자유당은 203의 2/3은 135.33인데 0.33은 사사오입하여 버려야한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며 국회 통과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민들은 이런 비민주적인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무기력한 야당에도 절망을 느꼈다. 그러

나 이런 이 때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이 결성되고 이제까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평화 통일과 '못 살겠으니 가라보자'라는 정치구호를 외쳤다. 정치에 염증과 절망을 느끼던 국민들은 이러한 조봉암에게 매력을 느끼며 지지가 높아졌다. 그래서 인기가 이승만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아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평화통일안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로 조봉암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켜버렸다. 그리고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장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야당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자유당의원 만으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이승만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과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는 미국의 경제 원조가 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과 군정기에 모두 31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원자 물자를 팔수 없고 미국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했다. 미국이 원조한 원조는 한번 쓰면 그만인 식료, 의료, 농업용품을 들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제의 자립이나 산업 부흥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이승만이 자신과 가깝거나 친한 기업가나 상인에게 특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잉여생산물이 국내 경제에 들어오면서 쌀값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밀가루 설탕 면직물이 잉여생산물로 배당되자 값싼 잉여생산물을 독점 배당하여 독점한 기업이 있었는데 조선제분과 제일제당이 그것이었다. 그럼으로써 미국에 대한 원료 의존률이 면화는 99.9%, 밀과 설탕은 100%나 되어 국내 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50년대 말 미국은 무상원료를 유상원료로 바꾸었다. 그리고 원료 액수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원조에 목을 매달던 우리 경제는 불황에 휩쓸렸다.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의 수가 400만 명이 넘었으니 그것은 총 노동 인구의 38%가 거리로 내몰렸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깊어갔다. 그러나 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이용단체와 자유당 후보 득표율 85%이상 확보든 부정선거 지침으로 3.15선거로 임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의 의사는 묵살되고 3.15부정선거는 타오르던 정치적, 경제적 분노에 불을 붙였다. 1960년 3월 15일 투표날 부정선거에 격분한 마산의 시민과 학생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합의시위를 하였다. 이 시위를 계기로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는 합성과 시위가 높아졌다. 이승만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는 이미 그 해 2월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번지고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 수 천명이 거리에 뛰어나와 항의를 하였다. 이러한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가던 4월 11일 나라안의 모든 눈은 마산으로 모였다. 그것은 바로 마산 시위에서 시위하던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이 맞은 뒤 바다에 버려진 김주열의 처참한 시체가 발견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또다시 반공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항의하던 것이 정권 타도 투쟁으로 바뀌어 4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4월 18일 4000여 고려대 학생의 시위에 이어 이튿날에는 대학생 시민 중고등 학생 등 수십만 시위가 광화문과 중심 가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는 독재의 심장부인 경무대로 갔다. 다급해진 이승만은 비상계엄령과 함께 무장경찰을 동원 무차별 발포해 그 날에만 183명의 학생과 시민이 죽고 62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시위는 더욱 거세게 일어났고 4월 25일 300여명의 대학교수가 가두 시위를 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재빨리 태도를 바꾸었다. 바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태도였다. 처음엔 미국은 이승만을 지지했으나 민심이 떠나버린 것을 확인하자 자신들에게 저항의 불뚱이 튀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마지막 보루인 미국이 등을 돌리자 이승만은 결국 4월 26일에 하야 성명을 발표해서 이승만 정권의 12년 독재의 막이 내렸다.

민족사의 주인이면서도 분단된 뒤 억압과 굴종 속에서 고난의 찬 삶을 겪었던 민중이 이끈 민족민주운동이었으며 약하게만 보였던 우리민중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역사논단 3

광주민중항쟁은 역사이다!

정재원(고1)

1. 배경

1979년 박정희가 죽은 뒤, 시민들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유신체제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총학생회와 교수 협의회가 부활되었고 전국의 대학생들은 유신 잔당 타도,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노동자들 역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조 결성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이처럼 민주화 요구는 거세었지만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정호용 등의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군부체제의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와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적 인사와 재야 민주 정치인을 불시에 체포하고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2.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80년 5월 18일 광주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 졌지만 학교로 갔다. 그러나 정문에는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엄령 해제”,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쳤다. 그러자 공수부대원들은 학생들 사이로 달려들어 곤봉으로 학생들을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도청 앞으로 모여 시위를 하였다.

최초의 시위는 이렇듯 늘상있던 시위의 규모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력으로 마구 진압하는 공수부대원들에게 맞서기가 힘들자 학생들은 흩어져서 학생들을 모으기로 하였다. 오후에 공수부대원들의 위치가 정해지고 나서 이들은 “화려한 휴가”라는 명령으로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진압을 피해 신문사로 뛰어든 청년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무관한 신문기자까지 구타해서 끌고 갔다. 공수부대원들의 트럭 위에서는 끌고 온 사람들을 또 구타하고, 여성들은 공수부대원들이 희롱하였다. 5월 18일 하루 동안 450여명이 연행되었는데 그중 수십, 수백 명이 중상을 입었고 12명은 중태였다. 신군부는 이렇게 광주에 공포감을 조성하면 겁을 먹

고 달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 밖으로 시위는 점점 늘어나기만 하였다.

19일에는 금남로에 3000~4000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를 하였다. 공수부대원들은 날아오는 돌멩이, 화염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 속으로 뛰어들어 맹수들처럼 무차별하게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들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런 공수부대원들의 행위는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다. 다음날 오후, 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더 이상 맨손이 아니었다. 각목, 쇠파이프, 돌, 연탄집게, 화염병등 무기가 될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고 나왔다. 저녁이 되자 수많은 차량이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돌진해 왔다. 광주항쟁의 유명한 차량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차량행렬이 도착하자 시위대는 함성을 지르고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했다. 갑작스런 사태에 놀란 공수부대원들은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고 차량의 운전자들을 마구 공격하였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삼시간에 금남로에는 20만이 넘는 군중이 몰리었다. 밤 10시경 광주항쟁에 대해 왜곡된 보도만 하던 MBC가 시민들의 손에 의해 불에 탔다. 자정이 가까워져서 시위대의 앞쪽에서 M16의 자동 소총의 총소리라 드리고 선두에 섰던 청년들이 쓰러졌다. 드디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군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산 총으로 시민들에게 발포를 한 것이다. 시민들은 날이 밝자 도청으로 몰려갔다. 시민들은 탈취한 장갑차와 수십 대의 차량을 몰로 돌진했다. 장갑차의 출현에 공수 부의 저지선이 무너졌다. 그때 공수부대원들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근처의 빌딩 옥상에서도 저격수가 배치되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다.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청년들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경계가 약화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다. 드디어 무장 시위대가 탄생하였다. 신군부는 광주시민의 무장에 대해 놀랐고 계획을 바꾸어 일단 후퇴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힘을 모아 항쟁을 분쇄시키기로 하였다. 이윽고 공수부대는 장갑차를 앞세우고 퇴로를 확보해서 퇴각하였다. 시민 군들이 비로소 도청을 탈환하였다. 해방된 광주의 첫날은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였다. YMCA 부근 벽에 사상자 명단과 함께 시체와 부상자들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었다. 도청 앞 맞은편 상무관에는 많은 시체가 질서정연하게 무명 천에 덮여 진열되어 있었다. 관이 없는 시체도 수십 구나 되었다. 오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쫓겨나기 전에 시민쫓겨나기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시민쫓겨나기 대회는 23일부터 '민중수호 범시민 쫓겨나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26일까지 수십 수만의 시

민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수와 라디오를 통해서 광주를 치안부재의 무법상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광주는 사재기를 방지하고 병원에는 피가 모자란다고 하자 너나없이 헌혈을 하였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충기를 소유한 상황이었지만 가게가 털린 적도 없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민 군에게 밥을 해다 날랐고 도청에서는 시민의 성금이 모였다. 22일 도청에서 '5·18수습 대책 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또 '학생 수습 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이들은 7개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군 측과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민 군에게 무기를 반납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래서 약 50%의 충기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습위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시민군도 무기반납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수습위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결국 25일 끝까지 광주를 사수할 것을 결의하는 항쟁 지도부가 탄생하였다. 이들은 '80만 광주시민의 결의'라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에도 시 외곽 대치지점에서는 많은 학생과 시민이 희생되어 갔고 시 전역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시신들이 발견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27일 0시 도청의 시외통화가 두절되었다. 시민 군들은 계엄군들이 올 것을 예감하였다. 새벽 3시 30분 총소리가 광주에 울려 퍼졌다. 계엄군들은 수류탄을 투척하고 헬기로 사격하며 기관총을 마구 쏘아되었다. 이때 투입된 계엄군은 무려 2만 여명이었다. 아침이 되자 150구의 시신들을 뒤로한 채 마지막 시민 군들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였다.

3. 광주민중항쟁의 의의

광주민중항쟁은 첫째, 미국과 군부독재의 정체를 명확히 알려 내었다. 광주민중항쟁은 미국과 군부독재는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수호자, 경제 성장의 주역 등 그 동안 미국과 군부독재의 얼굴에 씌워 있던 온갖 가면들을 한순간에 날려 버렸다. 광주민주화항쟁은 우리 민중 속에 세찬 반미 반독재 투쟁의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둘째, 군부독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결사항전의 정신을 불러 일으켰다. 20년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우리 민중은 군부독재의 폭력아래 무릎 꿇어야만 했다. 광주항쟁을 치르면서 총칼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또한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셋째, 민중의 자치 능력을 입증했다. 해방 광주, 그것은 기존의 낡은 질서가 무너진 속에서 민중 자신들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새로운 정부를 보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만이

존재한다는 정치가들의 주장을 여지없이 없애버렸다. 해방 광주에서는 억압의 질서가 붕괴되고, 해방의 질서가 대신했다. 광주항쟁은 허위와 기만에 가린 역사를 과감히 걷어내고 민중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어 새로운 투쟁의 각오를 불러일으켰다. 광주항쟁이 비록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운 민주화 의지를 심어주었고 군부정부의 정당성을 잃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살아 갈 이 땅에 민족의 자주와 민주, 통일이 울려 퍼지길 바란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역사를 산다. 과거의 역사는 단지 과거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것이고, 미래의 것이다. 역사사랑

역사와 논쟁 1-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글은 우리에게 정신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중군위안부에 대해 논
한 글입니다, 우리역사중에는 밝혀지지 않거나 바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인 중군위안부는 피해자들조차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
들이 많아서 더욱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일명 정신대라고도 불리었던 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가 그 군인
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한 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적은 수의 위
안소를 설치해 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1937년 남경대
학살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 설치했다. 수많은
중국인을 학살하고 남경을 점령한 일본군들이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특히
점령지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강간했다. 이러한 일본군들의 만행에 중국인
들의 심한 반발을 사 반일 감정이 격해지자 일본군이 점령지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런 연유로 일본군은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 성적
위안시설을 하루속히 정비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중국, 남양군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어느 곳에서도나 일본
군 주둔지에는 반드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위안소는 군대가 직접 설립해
서 경영하거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2백만 명이 넘는 일본 군인들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많은 ‘위
안부’ 들은 어디서 구할 심산이었을까. 일본에서는 ‘천황의 신민이 될 아들
을 낳아 바칠 신성한 의무’를 가진 일반 여성들은 동원하지 않고,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공창의 여성들만을 동원했다. 물론 이들 여성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
의자들은 위안소를 세울 때부터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역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 중에서 일본
인 매춘부는 소수에 불과하고 일부는 중국인, 필리핀인, 네덜란드인, 등 일

본인 주둔지의 현지인이며 그 나머지는 80~90%는 강제 동원된 약 20만 명의 조선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위안소에서 여성들을 검진했던 군의관이나 이들 여성에게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던 많은 군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이다. 군의관 앓소 테츠오는 “위안부의 대부분은 조선여자인데 이들은 일본인 위안부와는 달리 성병에 걸린 적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우리는 1930년대 말부터 노골화되었던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기억한다. 창씨개명으로 조선인의 성을 없애고, 신사참배로 조선인의 정신을 빼앗으려 했다. 또한 조선민족을 말살하고자 기도했다. 일제의 만행이 이러한 실정에 이르렀으므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며 살아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위안부, 즉 일본군의 성 노예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동원한 것은 예정된 귀결이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에 끝난 뒤 관계 자료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민간 업자들이 여자들을 사온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여자들을 동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여성들을 단지 민간업자의 힘만으로 동원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오랜 식민지 생활로 혈벗을 대로 혈벗은 농촌을 다니면서 배불리 먹게 해 주겠다.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등의 미끼를 내세워 어린 소녀들을 어렵지 않게 꼬여낸 것이다, 또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소로 보냈던 것이다. 철면피하게도 교사까지도 동원하여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이 때부터 딸을 가진 집에서는 위안부로 딸이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시집을 보내는 풍토가 만연하였다. 그러나 이미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군대나 공장에 징집돼 갔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병자들에게 나이 어린 소녀들이 아무렇게나 결혼을 해야하는 일도 많았다. 이렇게 하여 끌려간 소녀들의 나이는 15세에서 19세 까지가 가장 많았으나 11세의 어린아이도 있었고 20세가 넘는 아기엄마도 간혹 있었다. 여성의 정조를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던 당시의 풍조에서 많은 여성들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안소의 규정에는 군 계급에 따른 위안소 사용 요금이 정해져 있었으며, 일본군인들은 위안부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관리자들은 전쟁이 끝나면 한꺼번에 계산하여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하여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굴속에 몰아넣고 수류탄으로 폭파시키는 등의 일을 했다, 이들은 거의 몇 년을 좁은 방에서 위안부생활을 해야했는데 그나마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험난했다. 힘들어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는 여성도 있었다. 또한 고국으

로 가는 배를 타고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가 두려워 바다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역시 고국으로 돌아온 위안부여성들은 몸을 버렸다는 자각지심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등진 채 살아야 했다. 결혼을 한 여성들도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 당하는 경우가 흔했고 지금도 위안부 출신의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한으로 가슴에 맺힌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여자의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려니 경제적 곤란도 심각했다. 정상인들보다 건강도 안 좋아 대부분 부인병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오랫동안 성병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밖에도 피해의식, 인간기피증, 남자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으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많았다.

이러한 위안부출신의 할머니들을 위해 생긴 '나눔의 집'이란 곳이 있다. 갈 곳이 없는 위안부 출신할머니들이 모여 사시는데 1992년10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할머니 9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고 계신다. 이들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만행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계신데 일본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의 교과서에서조차도 이 내용은 몇 줄로 표기되어 있거나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조차도 종군 위안부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려지고 바로잡혀야 할 역사가 숨겨지고 왜곡되는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사사랑

역사와 논쟁 2-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예전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미국이라면 모두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랐던 미군들에게 우리는 학살당한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들어 밝혀지고 있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 여러 책자를 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노근리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자 주

왜 미군은 학살했는가?

사건이 일어난 지 49년만에 겨우 세상에 알려지고 노근리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온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수십 년에 걸친 눈물겨운 호소에도 끄떡하지 않던 미국과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신사 AP가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조사단을 만드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AP통신에서는 1950년 7월 충북 영동의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들이 한국의 양민들을 학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의 증언만을 전달하며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인민군들이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남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근리 사건은 전투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 상관없는 시간에 벌어졌다고 한다. 미국이라면 그저 좋다고 따라나섰던 우리의 양민들은 믿었던 미군에게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한 것이다.

도대체 미군은 왜 양민들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학살하였을까? 그 이유가 피난민들이 미군의 작전에 방해가 되어 없애려는 생각이었거나 복수였던 작전상의 편리함을 추구한 까닭이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공식적 사죄와 죽은 사람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 정부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노근리와 수많은 또 다른 노근리들은 결코 먼 옛날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들의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현재의 과제이다. 노근리와 또 다른 노근리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튼튼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근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이며 이를 해결할 사람은 직접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이다. 우리모두 이러한 역사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노근리와 또 다른 노근리들의 피해자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역사사랑

역사와 논쟁3-남침유도설

여기에는 지난 6월 잡지에 실린 하리마오 박씨의 인터뷰 내용과 책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이미 러시아 비밀외교문서공개로 한국전쟁에 대해 알고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글로 과연 어떤 것이 진실 일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자 주

38선도 6.25 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

99년 월간 ‘말’ 6월호에 놀랄만한 사건이 실렸다.


하리마오 박이 쓴 『38선도 6.25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라는 책의 내용과 인터뷰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 책의 저자 하리마오 박(현재 LA 거주)은 CIA 창설 때부터 33년간 줄곧 극동지부에서 근무했다는 인사가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근거 역시 충격적이다. 6.25 한국전쟁 발발 5개월 전에 그 자신이 ‘6월 25일 새벽 4시 남침’이라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CIA 본부와 워싱턴 당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하리마오 박은 ‘미국을 너무 몰랐기에 첩보기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라고 했다.

CIA에서 히로마오 박의 위치와 역할은 자신의 신분을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비노출 요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첩보교육을 시켜 북한, 북경, 만주, 연해주, 모스크바, 등 적성국에 밀파한 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극동지부장 킹스베리 장군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지부장과의 충돌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제주도로 도피했다가 52년 킹스베리 후임으로 온 한스 테프트 장군의 부름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킹스베리는 히로마오 박에게 극동지역 정치·군사 정보를 맡기고 그의 과학·문화·공업·산업 정보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역할 분담을 제의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일하게 되었다. 미군에서 유색인종은 대령 이상 못 올라가는데 첩보 분야 특히 비노출 부문에서는 그 같은 한계가 없었기에 히로마오 박을 대외 섭외상 필요하다며 그를 육군소장으로 부

입시켰다.

“6월 25일 오전4시 남침”이라는 정보를 어떻게 이처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48년 12월 19일 소·중·북 수뇌들이 모스크바에서 비밀회담을 가졌을 때 CIA는 모스크바 핵심 실세의 측근에 침투해 있는 고정 첩보요원으로부터 정확한 회담 내용을 입수했다. 그때 3국은 북한의 부력남침을 위한 군비증강 계획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를 문서화하는데 필요한 제반 협정 초안을 2차 회동 때까지 준비해 올 것을 합의했다. 49년 3월 4일 2차 회담 때 3국은 상호방위조약, 군사원조협정 및 문화·경제 협정 등을 체결했다. 50년 1월 8일 김일성은 마침내 남침 일시를 6월 25일 새벽 4시로 결정했다. 3일 후인 1월 11일, 북한정권 깊숙이 침투해 있는 우리측 고정첩자요원이 이를 입수해 타전해 왔고, 그 정보는 지체없이 워싱턴에 보고됐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목적은 실지회복이 아니라 분단이였다. 냉전적 대립과 긴장고조, 지속적인 전쟁위기가 있는 곳에 미국의 국익이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한반도 위기를 틈타 툭툭히 장삿속을 채워 오지 않았다.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추에 씻지 못할 대죄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제까지 미국에 뒷덜미를 꼭 잡혀 숨도 못 쉬고 살 것인가.”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94년 러시아 비밀 외교문서 공개로 ‘남침설’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하리마오 박의 증언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역사와 논쟁4-산청 거창 양민학살 사건

노근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산청,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미국의 학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같은 핏줄이 몇 명인지도 알수없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이 내용은 최보경 선생님께서 주신 '낙동강에서 지리산까지' 라는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가능한가?

은 마을이 불타버리고 마을사람들이 논바닥에 서로 영긴 채 쓰러져 있었다.

이봉갑(당시 21세, 점촌,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신기마을)씨는 당시 21세였다. 산너머 신기마을에 살다가 군인들이 벌떼같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방곡을 거쳐 점촌으로 피난 내려 오던 길이었다. 친구 정사무와 함께 내려왔다. 방곡에서 내려오다가 점촌마을이 가까이 보이자 둘이서 상의를 했다. 그들은 점촌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미 가현·방곡에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 점촌마을에 들어가면 자신들도 같은 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둘이서 “산으로 가자.” “마을로 가자. 배도 고프지 않으나.” 승강이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방곡에서 군인들이 벌떼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이씨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사무야 산으로 튀자. 방곡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못들었냐.”며 정사무를 잡아끌었다. 그러나 친구 정사무는 지금 군인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치면 의심받는다. 이대로 마을로 태연히 걸어 가자며 버텼다. 이씨는 하는 수없이 혼자서 산으로 갔다.

10분쯤 지났을까? 이씨가 산 중턱에서 한숨을 돌리고 말초(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저 멀리 사무가 점촌으로 걸어 들어가고 뒤따라 군인들이 줄지어 내려갔다. “괜찮겠구나.”하고 담배를 한 모금 길게 빨았을 때였다. “따당”하는 총소리와 함께 태연히 가던 정사무가 논두렁에 쓰러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씨는 혼비백산 산으로 줄행랑을 쳤다.

그 뒤 이씨는 하루가 지난 후 산에서 내려와 점촌마을로 갔다. “끔찍했

다. 온 마을이 불타버리고 마을사람들이 논바닥에 서로 엉킨 채 쓰러져 있었다.” 결국 이씨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집 부엌에 콩나물 시루가 있는 것을 발견. 생콩을 씹으면서 7일을 견디었다.

“빨리 내려 오라.”는 무전연락에 초조한 듯 기관총을 마구 난사해 결과적으로 사망자보다 부상자를 더 많이 발생시켰다.

서정선씨(당시 10세. 산청군 금서면 점촌리)는 당시 점촌 아랫마을 상촌에서 아버지 서명석씨와 어머니. 6살과 3살 난 동생들과 살고 있었다. 이들 가족이야기는 뒤에 서주마을 사건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서씨 가족은 상촌에서 서주까지 국군에게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모두 생존. 모두 고향 상촌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 온 그들은 바로 윗마을 점촌이 쑥대밭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점촌은 상촌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 였다. 이곳에 서정성씨의 사촌형 서동한씨가 살았다. 서씨 부자는 점촌으로 갔다. 온 마을이 피바다였다. 마을주민들은 모두 논바닥에 뒤엉킨 채 숨져 있고 집들은 하나같이 불타버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적적인 생존자 여갑순씨와 김정숙씨를 만났다.

김정숙씨는 군인들이 점촌에 들이닥쳐 집들을 불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논바닥으로 끌어내자 안간힘을 쓰며 끝까지 버틴 것이 살아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질질 끌려가며 “이놈들아, 내 아들을 국군에 입대시킨 죄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고함을 쳐냈다. 군인들이 처음에는 못들은 척 하다가 그녀가 계속 고함을 치자 “정말이냐.”고 확인을 하고 풀어 주었다는 것이다.

김정숙씨와 여갑순씨에 따르면 점촌마을에 도착한 군인들은 몹시도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고 한다. 기관단총을 논바닥에 장치하고 어디엔가 무전기로 연락을 하더니 “빨리 내려가야겠다.”는 말을 수 차례 반복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기관총을 난사했다.

점촌마을에서 학살은 가현과 방곡의 그것보다는 몹시 급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본대의 “빨리 내려 오라.”는 무전연락에 초조한 듯 기관총을 마구 난사해 결과적으로 사망자보다 부상자를 더 많이 발생시켰다. 그리곤 아랫마을 상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쯤이었다.

무분별한 기관총 난사에 부상을 당한 양민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서 엄청스런 고통을 신음으로 토해냈다.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없어진 사

람, 점촌마을을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 소리가 학살대의 뒷목덜미를 다시 끌었다. 상촌으로 내려가던 군인들 수십 명이 다시 올라와 “이것들이 더럽게 시끄럽게 구네.”하며 다시 총알을 퍼부었다.

조용해졌다.

점촌마을의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누이들 모두가 조용해졌다. 지리산의 바람도 비정스런 총소리에 놀라 잠잠해졌다. 시냇물도 소리를 죽였다. 이렇게 해서 점촌에서 42명이 죽었다.

산청사건이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다라면 소문이 인근 함양, 거창까지 퍼져 양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가현, 방곡, 점촌에서 3백 여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난 9연대 3대대 병력은 마음이 급했다. 1951년 2월 8일 하루 동안에 산청지역의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이지만 이틀 뒤 역시 3대대 병력에 의해 저질러진 거창 학살극도 산청 학살극이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청사건이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다라면 소문이 인근 함양 거창에까지 퍼져 양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점촌에서 학살극이 끝난 시간은 대략 12시에서 13시 사이.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3대대 병력은 점촌에서부터 시간에 쫓기고 있었던 것 같다. 점촌마을의 학살극을 벌이기 전에 실재없이 무전기였다 “빨리 내려가겠다.”는 소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촌을 떠나 상촌마을로 갔다.

막 강 끝에 다다랐을 때였다. 「팡! 따당, 드르륵!」

양순영씨(당시 16세, 산청군 금서면 상촌마을)는 군인들이 들이닥치기 몇 시간 전에 「당시 함양 특공대(요즘의 전투경찰)」들이 우리 집에 물을 먹으러 와서 “지리산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면서 이 곳으로 오고 있으니 빨리 피하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양순영씨는 당시 부모님과 4형제가 자혜리 상촌마을에 살았고 아버지 나이는 45세였다. 가족들은 갑작스런 그들의 말에 놀랐다고 한다. “설날에 무슨 피난이나”, “특공대들이 오죽했으면 우리들을 피난 가라고 했을까.”라고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평소 안면이 있는 특공대가 소리쳤다. “빨리 3일 먹을 양식만 가지고 국계쪽으로 가시오. 그래야 살수 있을 것이요”라고 재촉했다.

그때서야 양씨의 가족들은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다. 쌀가마는 아버지가 짊어지고, 이불 보따리 양씨가 메고 갔다. 국계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어

1px

←

→

씨로 22.5

가로 14.5cm

□
- 47 -
□

머니가 쉬어가자고 해서 고갯마루에서 쉬고 있는데, 함양 서주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주머니 어디에서 옵니까?”라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서주 강가에서 오는데 군인들이 무슨 연설회를 한다고 사람들을 새까맣게 모아놓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서주에 가야겠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안전하지 않겠냐.”고 했다. 양씨 가족들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서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살기를 느껴야 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울가 모래밭에 앉아 있었고, 군인들이 한사람씩 무슨 조사를 했다. 이윽고 군인들이 양씨 가족 앞으로 왔다. 양씨 아버지 앞으로 와서 “네 큰아들 어디 있어. 빨치산에 보냈지?”라며 총부리를 푹 찼다.

놀란 아버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닙니다.”하고 대답했으나 군인들의 “이리 나와.”라는 소리에 한쪽으로 끌려갔다. 나이 젊은 청년들과 장년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한쪽으로 끌어냈다.

군인들이 양순영씨에게도 물었다. “너 몇 살이야?” 순간 양씨는 자신 또래보다 작은 키를 의식하고 피를 냈다. “열 한 살입니다.” 실제 16세였던 불길한 예감으로 어머니 치마폭을 힘껏 당겼다. 어머니도 양씨를 도와 “열 한 살 맞습니다.”

이렇게 양씨는 아버지와 다른 줄을 서게 되었다.

잠시 후 군인들은 거의 여자와 어린이, 늙은이들만 남은 이쪽으로 와서 “모두들 강을 건너 국계쪽으로 가라.”고 고함쳤다.

아버지와 그리고 함께 남은 사람들을 불안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며 양씨 가족들은 강을 건너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심정으로 강을 건넜다.

막 강 끝에 다다랐을 때였다.

『꽝! 따당. 드르륵!』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고 밤나무 옆 구덩이 쪽으로 끌려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덩이 안으로 피퍽 쓰러졌다.

양순영씨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천지를 찢는 듯한 어머니의 외마디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보!』

아버지가 양씨의 눈앞에서 죽어간 것이었다.

여태까지 학살에 대한 참회였을까? 아니면 멧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던 자신들의 행동이 만나질쫘 지나자 공포로 다가와서였을까?

1951년 2월 8일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에서 죽은 사람이 모두 2백 17명.

엄천교를 사이에 두고 함양군과 산청군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 학살 현장이다. 이곳에서 희생된 양민들 대부분이 산청사람이다.

점촌에서 42명의 양민을 학살한 3대대 병력이 양민들을 나름대로 심사한 곳은 서주뿐이었다.

가현에서 90명, 방곡에서 1백 80명, 점촌에서 42명의 양민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논바닥에 끌려나와 개죽음을 당했다. 참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서주까지 끌려왔던 양민들 중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여태까지 학살에 대한 참회였을까? 아니면 멧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던 자신들의 행동이 만나질쫘 지나자 공포로 다가와서였을까?

서주에서의 학살극은 양민들 중 청·장년의 남자와 젊은 여자들만 골라서 저질렀다.

조금후 “팡!”하는 수류탄 소리와 함께 시체더미가 하늘로 치솟았다.

강정희씨(당시 12세,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는 당시 화계리에 살았다. 5남 2녀의 7남매 중 차남이었다. 강씨도 서주사건의 생존자 중 한사람이다.

점심을 먹고 한참 후였다. 마을이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군인들이 와서 연설회를 하니 참석하라고 했다.

강씨가 가족들과 함께 엄천교 밑 삼각지에 내려가니 5백~6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강변의 삼각지에는 인근 자혜, 주상, 화산의 주민들이 모두 다 모였다. 어린애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모였는데 줄을 세워 차례로 앉게 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네 아들 어디 갔어?” “너 빨갱이지?” 하며 총구로 푹푹 찔렀다.

이때 군인들과 함께 있던 유림지서장 송호상씨(사망)가 군인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죄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작정 끌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였다.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중위계급장의 젊은 군인이 송지서장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건방진 놈, 죽고싶어? 조용히 해.”

송호상씨가 뺨을 맞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 졌다. 그러나 그 뺨 한대는 수많은 양민들의 목숨을 구했다.

여태까지 무작위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내던 군인들은 송지서장의 항의에 “군인·경찰가족은 손들고 나오시오.”하고 소리쳤다. 스물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나갔다. 이들은 송지서장의 뺨 한 대에 목숨을 구한 셈이다.

군인들은 먼저 끌어낸 젊은 사람 중 20~30명을 따로 끌어내 강옆 밤나무밭으로 가서 총구를 겨누며 구덩이를 파게 했다.

당시 생존자의 한사람인 김병렬씨(산청군 금서면 자혜리)는 “군인들 중에 인정많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어떤 군인은 젊은 여자나 나이 어린 청년들 앞 와서 “오줌누고 싶다고 해라”고 귀엣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주민들은 “소변 마렵다.”고 일어나면 옆에 다가와서 “멀리 도망가라.”고 일러줘 살아난 사람도 몇 있었다고 한다.

이러는 동안에 시간은 점점 흘러가 하오 6시가 되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완성되자 대장인 듯한 군인이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 쥐라고 지시했다.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뽑아낸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했다.

주민들은 혼비백산 강을 바빠 도망을 쳤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군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왔다.

이제 시간이 된 것이다.

“모두들 저쪽 밤나무밭 구덩이 있는 곳으로 가라”

길게 타원형으로 판 구덩이 앞에 2백 20 여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라 빨리. 빨리”

군인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발길질이 날아왔고 개머리판이 사람들을 밀쳤다.

사람들이 구덩이에 쓰러져 들어감과 동시에 “드르륵”하고 기관총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조금 후 “팡!”하는 수류탄 소리와 함께 시체더미가 하늘로 치솟았다.

이윽고 십여 분의 살상을 끝낸 군인들은 시체더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2백 17명이 숨져갔다.

2~3일 후 동네 개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다. 저마다 시체 한두구씩 물고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했다.

그러나 역시 군인은 군인이었고, 권력은 권력이었다.

산청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명예회복」이다. 당시 희생자는 「통비분자」.지리산 공비들과 내통, 이들에게 협력하고, 국군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통비분자는 산청에서 5백 19명, 거창에서 7백 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끔찍한 이름이다.

대한민국 국군사나 경찰사에서 본다면 이들은 공비와 내통했으므로 총살당했고, 이들 양민들을 많이 학살한 부대는 그만큼 전과를 많이 올린 부대로 기록되고 있을 것이다.

실제 서주에서 학살당한 2백 17명의 불탄 양민들 시체를 사살된 공비사진으로 둔갑하여 상부에 올렸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이다.

“통비분자”

이 간단하고 간결한 죄목을 벗기 위해 산청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몇 안되는 생존자들이 알음알음으로 모여 1954년에 「동심계」라는 친목회를 조직했다. 같은 마음이라는 뜻에서.....

처음에는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모두 못 볼 꼴을 같이 본 희생자들이니까. 한번 모여나 보자는 뜻이었다. 매년 곡우날 이들은 끔찍한 학살의 현장 방곡에 모였다.

이곳에서 우선 없어진 부모친지의 뼈라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수소문한 결과 학살사건 이후 방곡에 이주한 송모 노인이 방곡마을 앞 논에서 자그만치 80kg들이 쌀 6가마 분량의 희생자들의 뼈를 추스렀다고 한다. 유족들이 송노인을 찾았지만 후손도 없는 외톨이 노인이라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유족들은 방곡 앞뒷산의 계곡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한이다.

동심계의 전상근씨(산청군 금서면 방곡리)는 “뼈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구천에 떠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동심계 회원들은 방곡에 모여면서 한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명예회복」

유족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이동생들이 억울하게 숨진 것도 한스러운데 통비분자라는 딱지가 계속 이들을 따라 붙었다.

그러던 중 4.19가 터졌다.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와 자유라는 낱말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때 산청군 출신 도의원 민치재씨가 산청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문제를 도의회에 정식 발의했다. 산청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역시 군인은 군인이었고, 권력은 권력이었다.

1년 후, 5·16이 터지면서 민치재씨가 혁명군부에 의해 투옥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옥의 이유는 「산청 사건 거론」이었다.

거창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 산청유족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도의원이 감옥에 갇히는데 무지렁이같은 자신들이 나서도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결국 끔찍한 산청 학살 사건은 산청사람들에 의해 입을 닫고 말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다.


그러면 저 끔찍한 산청 학살 사건의 주역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산청사건 이틀 후인 1951년 2월 10일.

제 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은 또다시 거창에서 학살극을 연출하여 7백 19명을 죽였다. 두달 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1951년 4월 7일 진상조사단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상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국군들이 공비로 위장, 김종순, 신중목, 김의준 등 조사단 일행에게 총격을 가해 이들을 도망치게 했다.

결국 위장 공비사건은 발각되어 내무·법무·국방등 3부 장관이 사임됐다 또한 직접 총격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무기징역 등 중형을 언도 받았으나 얼마가지 않아 1~2년만에 모두 풀려났다.

학살부대인 11사단장 최덕신 준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하여 소장으로 예편한 후 미국으로 이민 갔다. 3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9사단 고급 부관, 수도사단 군수참모, 27사단 부연대장을 거친 후 5.16 쿠데타 이후 강릉·원주 시장 등을 지내고 보사부 서기관까지 역임했다.

동심계 진상근씨는 말한다. “학살 가해자들이 잘 지내고, 못 지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다.”

이 자료는 1990년 6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신경남일보』에 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답사자료 1 - 구형왕릉과 덕양전

역사사랑에서는 답사를 가기 전에 가는 곳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스스로 조사를 하고 가게되면 궁금한 것도 생기고 관심
 도 높아져 더욱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집부
 에서는 그 동안 정리한 자료중 구형왕릉, 거창양민학살사건, 광주민주화형
 쟁, 소재원 에 관한 답사자료를 신게되었습니다. 답사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구형왕릉

가야 제 10대 임금 구형 왕의 능이라고 전하는 돌무덤이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번지에 있다. 이 무덤은 화계리 남쪽에 우뚝 솟아있는 왕산 기슭에 가락국의 신비를 담고 자리하고 있다. 가락국 오백 년 최후의 왕이 잠들어 있는 우리 고대사의 중요한 현장이다. 1971년 사적 제 214호로 지정되었다.

구형왕릉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한국식 피라미드이다. 경사진 산비탈을 그대로 이용하여 삼태기모양의 너른 묘역과 거대한 돌무더기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인 봉토무덤과는 다른 형태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사면에 크고 작은 돌들을 7단으로 쌓아올려 층과 단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부는 타원형이다.

이 무덤이 구형왕릉이란 사실은 1798년 산청의 유생 민경원이 아래편 골짜기에 있는 왕산사의 나무 케쪽에 보관되어 온 탄영의 『왕산사기』와 구형왕과 왕비의 영정과 옷, 녹슨 칼과 활 등의 유품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아직까지 구형왕릉이라는 확실한 학계의 정설은 없지만 김해 김씨 문중에는 확신을 가지고 돌무덤 앞에 '가락국양왕릉'이라 새긴 비석과 더불어 장명등, 혼유석, 무인석, 돌집승 등의 석물을 배치했다.

1971년 지표조사를 했던 최몽룡 교수는 『한국유적총람』에서 김해의 수로왕릉과 같은 초기형태라고 했다. 그러나 학계일부에서는 그 형태로 보아 탐일 가능성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일 수도 있다는 이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구형왕은 구해또는 신라에 나라를 넘겨준 왕이라 하여 양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가락국 겸지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라 각간 출충

의 딸인 숙이고 김유신의 증조부이다. 이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는 구형왕이 신라군에게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곳에서 “나라를 구하지 못한 몸이 어찌 흙 속에 묻히겠느냐, 차라리 내 무덤은 돌로 덮어달라.”고 하여 남은 군졸들이 그 시신을 매장하고 잡석을 하나씩 포개어 엮었던 이야기가 있으나 그저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왕산의 초입에는 1793년 후손들이 사적보호를 위해 지었다는 덕양전이 있고 왕릉은 2km더 올라가야 한다.

구형왕릉의 주변에는 왕이 올랐다는 왕등재와 국골, 두지터, 얼음터란 지명과 토성 등이 있어 가야시대 마지막 왕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덕양전

금서면 화계리에 있는 덕양전은 가락국 제 10대왕 양왕 (구형왕)과 왕비 양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향례와 삭망향례를 드리는 곳이다. 구형왕은 532년 나라를 신라에 넘겨주고 이곳 왕산 수정궁으로 옮긴 후 5년만에 돌아가셨다. 그 후 향화를 올렸으나 전화로 중단되다가 17908년 능을 짓고 다시 향례를 올렸다. 1898년 승선전이 사액됨과 동시에 덕양전으로 개칭하여 1930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왕산의 북쪽 들머리에 홍살문과 함께 덕양전이 있다. 덕양전은 지난날의 왕산사와 역대가락국 왕의 별궁인 태왕궁을 옮겨 놓은 셈이다. 직사각형의 돌담을 두르고 있고 영정각, 안향각, 연신문, 추---모재, 정숙당, 동재, 서재, 해산루 등이 아기자기하게 자리하고 있다. 문화재 자료 제 50호이다.

역사사랑

답사자료 2 - 거창양민학살현장

거창군 신원면 양민학살 사건일지

1950.6.25 한국전쟁 발발

1950.9.5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고립된 인민군 및 지역 빨치산 등을 중심으로 지리산 일대에 “야산대 조직 활동

1950.12.5 산청군 오부면에 있던 야산대 500여명 거창군 신원면 경찰지서 습격, 경찰관 10명 사상. 경찰병력 거창읍으로 철수하고 신원은공비 세력권 안에 들어감.

1951.2.8 공비 토벌 전담 국군 11사단 (사단장 최덕신)9연대 (연대장 오익경) 3대대 (대대장 한동석)가 신원에 진주. 경찰병력을 과정리에 주둔시키고 산청방면으로 이동.

1951.2.9 공비들의 과정리 습격 사건으로 3대대가 신원에 다시 진주. 이날 밤 전투가 발생하여 양편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 발생.

1951.2.10 3대대장 한동석이 공비 협력자 색출을 명목으로 부락민 전원을 신원국교에 집결시킴. 군의 일부가 와룡리 주민 100여명을 탄랑골에서 집단 사살하고, 또 덕산리 청연부락에서 70여명을 학살함.

1951.2.11 신원국교에 수용되었던 500여명 박산골로 끌려가 집단 학살됨 (대부분이 노약자. 부녀자들로 이중 359명이 14세 미만이었음)

1951.3.29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이 국회에서 학살사건 폭로.

1951.4.7 국회 진상조사단을 현지로 파견했으나 공비로 위장한 11사단 9연대 1대대 군인들의 습격으로 현지조사 포기.

1951.4.24 이승만 대통령 “공비 협력자 187명을 군법회의에 의거 처형했다”는 요지의 허위담화 발표.

1951.5.14 국회 학살책임자 처벌들을 요구하는 “거창사건 조사처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킴.

1951.12.16 고등군법회의 양민학살 및 국회 조사단 습격사건과 관련하여 9연대장 오익경 대령에 무기징역,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 징역 10년, 학살을 현장에서 지휘한 이종대 소위 무죄, 그리고 국회조사단 습격을 사주한 김종원에 징역 3년을 선고(그러나 이들은 이듬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 얼마 안 있다가 모두 군 및 경찰에 복권, 복직됨)

1954.3.3(음력) 3년째 방치되던 박산골 현장의 유골들을 주민들이 과정리 합동묘소에 안치시킴.

1960.3 신원면 합동묘비 건립 추진 위원회 구성.

1960.4.26 4.19혁명으로 독재자 이승만 하와이 도주.

1962.5.11 합동묘소 묘비 작업 중 사건 당시 주민성분조사에 동조한 당시 면장이었던 박영보를 돌로 쳐죽임.

1960.5.23 면장이 타살되고 유족들의 노한 함성이 확산되자 4대 국회 박상길 의원 제안으로 “양민학살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거창, 함양, 산청, 충무 등지에서 활동.

1960.11.18 학살 양민 합동 묘비 건립 제막식(남자, 여자, 소아만을 구분하여 517구의 유골 안치)

1961.5.18 5.16군사정부에서 유족회 간부 6명을 반국가 단체 조직혐의로, 12명을 박영보 면장 타살사건 피의자로 구속.

1961.6.15 경상남도 도지사 최갑중의 명의로 묘지 개장 명령을 내려, 합동묘소의 봉분이 파헤쳐지고 비석은 비문이 훼손된 채 땅속에 파묻힘.

1962.7.14 유족회 간부들은 무죄, 면장 타살 혐의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남.


1965. 유족들 봉분, 비석의 원상 복구를 각계에 호소.

1967. 봉분만 복구되고 비석은 파묻힌 채 계속 방치됨.

1988.1.17 거창군 신원 유족회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사건의 진상 조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1988.2.15 유족 200여명이 신원면 면사무소 앞에서 “희생자 위령 쉼터 대회”를 갖고 합동 묘소가 있는 박산골까지 가두 행진을 벌임(27년만에 땅에 묻혔던 위령비를 다시 파냄)

1995.12.18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됨.

1995.12.19 거창 양민 학살 희생자 유족회에서 법안 통과 고유제를 합동 묘소에서 지냄. 

답사자료 3 - 광주 망월동 묘역

5. 18 광주민중항쟁일지

80년 5월 16일

15:00 도청 앞 분수대에서 제3차 '민족민주화대성회' 개최, 4만명 집결.

16:05 제1,2시국 선언 낭독.

제1시국 선언=5월14일 이내 비상계엄 해제, 휴교령 거부등(5월 8일 발표)

제2시국 선언=유신 잔당 주권 찬탈 음모 분쇄, 반민주·반민족 세력과의 성전 선포.

17:00 시간 행진(1,2진으로 나누어)

18:30 햇불성회, 햇불 1천여 개 참화, 대학 교수 4백명 참여.

21:30 도청 앞 광장에서 5·16 쿠데타 화형식.

22:40 학생들 도청 앞 쓰레기 수거.

밤 : 평화적 햇불 행진 위해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안병화 전남경국장 비밀 회담.

80년 5월 17일

09:00 각군 지위관 회의(4시간).

17:40 중앙청에서 비상국무회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22:00 공수 7여단 33·35대대 광주 향해 출발.

22:00 김대중씨 연행. 김종필·이후락씨 부정 추재 혐의. 문동환·김동길씨 등 사회혼란 및 배후 조종혐의로 연행.

23:40 비상계엄 선포 지역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

80년 5월 18일

00:05 광주 지역 민주 인사 등 연행.

01:00 광주 일원 공수부대 투입.

02:00 계엄군,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 점령 학생 112명 체포.

08:00 전남대 등 대학교 휴교령(9월 10일까지), 광주·송정·목포 등 학교 휴교령.

08:30 전남대생들 등교 시작.

10:00 전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 50~60명과 공수부대원 대치.

10:20 전남대생 5백 명 공수부대와 투석전 충돌, 전남대생 계엄 철폐를 외치며 도청으로 진출.

10:30 전남대 후문 시민 연행.

- 10:50 광주역 앞 전남대생 2백명 집결.
11:00 시위대 금남로 3가 카톨릭센터 앞 연좌 시위.
11:15 시위대 카톨릭센터 앞 대치 후 파출소에 투석.
11:30 시위대 카톨릭 센터 앞 대치, 연좌농성.
11:49 한일은행 앞 시위대 6백여명 카톨릭 센터로 진출.
11:50 한일은행 앞 시위대와 합류 카톨릭센터 '비상계엄 해제하라' 플래카드 들고 시위. 경찰 최루탄 발사 해산.
12:40 시위대 광주우체국·중앙초등학교 앞서 농성.
13:20 학생회관 앞 페퍼포그 차 1대 불지름.
14:30 동국대 주둔 공수11여단 광주로 출발.
14:42 도청 앞·금남로 일대 1천 5백여명. 충장로 일대 1천 6백여명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진압 실패. 7공수 35연대대. 31사단 96연대로부터 도청 앞 진압 명령 수령.
15:00 공수부대(7공수) 시내 투입, 진압 작전 실시. 수창초등학교 앞 공수부대 차량 20여대 집결.
-가톨릭센터 : 33대대.
-충장로 : 33대대.
-시위 군중 체포(337명)
-공중에서 헬기 3대 선회.
15:30 충장로·광주공원 일대 3백~6명 단위 시위대 운집.
16:00 파출소 파괴 등 적극 공세로 시위 양간 전환.
17:00 경찰 20~30명 시위대에 포로로 붙잡힘.
18:00 계림동 일대의 치열한 육박전.
20:15 1백여명 시위대 한일은행 부근에 별다른 충돌 없었음.
20:20 노동청 앞 등 시가지 2천여명 산발적 시위.
21:00 통금 실시. 전국에서 소요 주동자 554명 검거(광주 연행자 477명).
- 80년 5월 19일**
- 00:05~05:20 11특전여단 광주 도착. 진압군 재편성.
08:00 계엄사, 민주 인사 및 학생 549명 검거(전국총계). 아침상황, 금남로 교통 완전 차단.
09:00 금남로에 군중들 운집 시작.
09:50 33연대 시위 진압 투입.
10:00 헬기, 수천명의 시위 군중에게 해산 종용.
10:00 대동고생 교내 시위.

- 10:00 전교사에서 윤홍정 계엄분소장 주재로 기관장대책회의 개최.
- 10:00 중앙여고생 1천 4백명 교내 집결. 경찰 교문 봉쇄.
- 10:20 금남로, 경찰 및 공수부대 진압에 화염병으로 시위.
- 10:40 충장로·광주은행 앞·도청 앞·광남로 사거리 등 다발적 시위 발생. 시위 광주 시내 전역으로 확산. 계엄령, 장갑차 4대, 군용트럭 30여 대로 시위대 포위.
- 10:52 군용트럭 시위대 연행.
- 11:00 시위 진압 탱크 동원 공수부대 잔혹한 구타, 연행, 총검사용, 체포된 시위대를 발가벗겨 무릎을 꿇게 한 뒤 머리를 땅에 처박게 하고 군화로 전신 구타. 광주시내 초등학교 수업 중단 조취, 중·고등학교 귀가 조치.
- 11:20 도경 작전과장 데모대 놓아주었다고 동구청 입구서 계엄군 하사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 곳곳 부상자 속출.
- 12:00 수업 받던 학원생 연행.
- 12:20 광주일고생 2천명 운동장 집결.
- 13:00~15:00 카톨릭센터 앞 시위.
- 11:30~13:00 시위대 107명 연행.
- 14:00 연행자 조선대·전남대 운동장으로 이동.
- 14:50 일반 시민들의 합류로 시위대 급증.
- 15:15 카톨릭센터 내 CBS 건물 파괴.
- 15:30 결력해진 시위대 관광호텔 방향으로 진행, 광주 MBC 건물에 들어가 승용차 5대 방화.
- 15:55 35대대 도청에서 금남로 쪽으로 시위 진압.
- 16:00 고등학생들까지 투쟁 대열 합류.
- 16:05 전남 도교육청, 광주 시내 고교 20일 하루동안 가정학습 결정.
- 16:50 최초의 발포: 광주고와 계림파출소 사이 동원빌딩 앞에서 고장난 장갑차 1대, 시위대 150여명이 접근하자 장갑차에서 발포, 4명 중상. 일부는 계엄군이 신고 감.
- 17:30 광주일고 앞 시위대 40여명 연행.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앞 5백여 시위대 계엄군과 대치, 가톨릭센터 부근 시위대와 계엄군 대치, 금남로에서 시위 군중 1천 5백~2천명 재집결.
- 17:40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앞 시위대 완전 분산(비가 내리기 시작함).
- 18:00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차장에 시체 7~8구 목격됨. 광주공원 시위대 수 천명 '전두환 타도' 외침.
- 18:30 광주공원 대학생 8명을 팬티만 입혀 원산폭격 기함을 줌.

19:20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2천여명 시위대 해산.

19:30 전대 의대 앞 골목길서 최미자양(당시 19세) 계엄군 대검에 가슴을 찔림.

19:40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앞 시위대 1천명 경남 번호판 화물트럭 방화.

19:45 유동에 세워진 대형 아치에 불지름.

20:00 시위대 누문동 파출소 점거, 임동 파출소 방화, 전소.

21:00 통행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속.

22:00 역전 파출소 점거, 북구청사 유리파손, 양동파출소 파괴.

23:08 3특전여단 광주에 투입.

80년 5월 20일

01:00 제7여단 계엄군 서로 지역대를 편성.

04:00 시민 켈기문 살포됨..

07:20 서2동 전남주조장 비터에서 대검으로 난자, 살해된 월산2동 김행부씨(36)가 변사체로 발견됨.오전 대체로 소강(비오는 날씨).

09:30 계엄군이 증원 배치, 상가는 절반 가량 철시.

10:00 대법원 김재규 등 5명에 사형 확정.

10:00 광주 시내 주요 지점마다 집중 경계.

10:20 금남로 3가 30여명의 젊은 남녀가 팬티와 브레지어만 걸친 알몸으로 불잡혀 기합받는 것이 목격됨. 오전 외신 기자, 독일 NDR·ADR TV 유르겐 힌츠페터 광주 도착.

12:50 계엄군 출동 대기.

14:20 서방 삼거리 공수부대의 화염방사기에 사망·부상자 발생, 광주역 부근 택시기사 20여명 조직적 대응책 논의, 금남로 일대 제3공수 11대대 15만 군중에 포위당함.

14:45 계림동 파출소 앞 대치, 무등경기장 앞 영업용 택시 집결.

15:55 금남로 수천 군중 집결.

16:00 시외버스터미널 매표 중단.

16:18 카톨릭센터 앞 시위대 증가.

16:20 카톨릭센터·광주고·충장로·금남로 등지에 시위확산, 시위대가 도청을 향하는 6개 방면 모든 도로에 밀어닥침.

17:00 계엄군 최루탄을 쏘며 진압.

17:00 광주천변 계엄군과 투석대치.

17:10 충금 지하상가에서 계엄해제를 외치며 시위.

17:50 충장로 시위대 육탄으로 경찰과 충돌, "광주 시민을 적으로 취급하

는 군과 사생결단을 낼 테니 경찰은 비켜달라.” 협상 시도.

18:00 택시기사 2백 여명 무등경기장 집결.

18:20 택시기사 시위 참여. 택시 1백대가 3줄로 광주역 쪽으로 진출.

18:40 전남대 앞 5백미터 지점, 계엄군 1명 사망. 광주역 쪽에서 택시·화물트럭을 앞세운 시위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로 집결.

19:00 산수동 오고리에서 광주역으로 시위대 이동 계엄군과 공방전.

19:15 광주고속 앞 택시 50여대 집결.

19:20 금남로 차량 시위: 버스 6대 앞세우고 도청 향해 진격.

19:45 도청광장 공수부대 포위됨. 시위대 태극기를 흔들며 도청으로 진격.

20:00 시위대 MBC 방송국 점령. 체포된 시위대 도청으로 연행. 소방서 시위대 점령. 2~3대의 소방차 도청 앞 6백미터 지점까지 돌진. 계림동 시위군중 1만~3만 증가(도청 진격), 전남대 병원 앞 1만 증가(도청진격).

20:10 노동청 앞 시위대 MBC에 화염병 투척,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시위대에 화학탄 발사.

20:30 광주 CBS 방송 중단.

20:50 시위 군중 시청 점령.

21:00 도청 차고 불탐. 외곽 지역 주유소에서 화염병 제작, 노동청 앞 시위진압 경찰 4명 사망.

21:30 시위대에 의해 광주역 포위됨, 2천 여명 햇불 시위.

21:40 MBC 방송국 전소.

22:00 심야로 이어지는 투쟁 대열, 광주시내 모든 거리는 시위 군중 10만 명 이상 운집, 광주역에 투입된 31사단 병력 퇴각, 금남로 3공수 11대대 고립 상태, KBS 앞 3공수15·12대대 2만명 시위대와 대치, 전남대 입구 16대대 1백대 차량, 시위대와 대치, 광주시청 13대대 1만여명 시위대와 대치, 양동복개상가 20~30명의 계엄군 시위대에 포위 당함.

80년 5월 21일

00:10 계속 대규모 시위, 전옥주씨 조선대 앞서 스피커로 “전두환 물러가라” 외치며 시위 주도.

00:20 조선대 쪽서 계속 총소리.

00:35 노동청 쪽 2만여 군중 경찰 저지선에서 격돌.

00:45 광주세무서 방화.

01:00 31사단 화염방사기 소대 출동.

01:40 자가용 승용차 광주역 쪽으로 질주하며 공수대원과 충돌, 광주역

주변 콩 볶는 소리 계속.

02:10 3공수여단,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퇴각.

02:13 시외전화 불통으로 외부와의 연락두절, 광주지역 일반 전화선을 지시에 의거 단선 조치.

02:30 계엄군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용산역 출발.

04:00 광주역에서 계엄군 철수.

05:00 KBS 방송국 방화.

05:40 시위대, 2.5t 트럭에 시체를 운반.

05:50 광주역에서 출발한 시위대 1천여명 광주은행 본점 앞에서 시체 2구를 리어카에 싣고 연좌 농성.

아침: 계엄사령부 최초로 광주에서 유혈 충돌 공식 발표.

08:00 시위대 당국과 협상 시도.

08:45 20사단 병력 광주 진입 저지, 광주시 진입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봉쇄하기 위한 작전.

08:50 시위대 광주교도소 기습, 자진 철수.

08:58 20사단 사령부 송정리 도착.

09:00 시위대 아시아자동차 공장 진입, 대형버스 22대·장갑차 3대·군용 트럭 33대·민간트럭 20대를 몰고 나와 도청으로 진격, 버스는 외곽에서 도청으로 시민들 수송, 군인의 과잉 진압 사과 요구, 현정부 규탄, 뉴욕타임즈 특파원 심재훈, 르 몽드지 필립 풍스 광주 도착.

09:20 한국은행과 카톨릭센터 사이 5천여 이상 군중, 시체 2구 손수레에 싣고 마이크를 “계엄군은 시체 인도하라”고 주장.

09:49 시민군 장갑차를 이용해 도청 공격 시도.

09:50 시민 대표와 장형태 도지사의 협상.

10:00 각종 차량에 ‘전두환을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플래카드 붙이고 다님. 시위군중 점차 증가, 10만 이상 운집.

10:30 군헬기 4대가 도청·조선대·전남대에 이·착륙하며 도청 지하실에 모아놓은 시체와 진압 무기 주요기밀 서류 공수 시작. 계엄사령관 담화문 발표.

10:48 군헬기에서 “공수 병력 철수시키겠다” 방송. 도지사·시장도 설득 방송.

11:00 시위 군중 계속 집결.

11:00~12:00 동별로 시위대에게 음식 제공.

11:30 전남 지역 학생 총연맹 명의로 ‘오후 2시 도청 앞에서 도민궐기대

회를 갖자' 는 전단 배포. "전남대생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조선대생은 계림파출소, 서강실업과 간호대는 MBC 방송국, 고교생은 산수 오거리, 시민은 도청으로 집결하라."

11:50 카톨릭센터 앞 벽보 부착 '때려잡자 전두환, 물러가라 최태지, 사라져라 신현확, 비상계엄 해제하라, 칼부림이 웬말이나, 너와 나 형제 지방색 타격.'

12:00 2시까지 퇴각하랬던 계엄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분노한 시민들이 차량을 앞세우고 도청으로 진격. 공수부대 분수대까지 퇴각, 최초의 집단 발포, 시민들은 공포탄일줄 알았으나 도로의 시민들이 쓰러짐. 부상자를 구하려는 시민들에게까지 사격. 계엄군은 도청과 수협·전일빌딩 옥상에서 정확한 조준 사격을 함. 전남대 정문에서도 발포. "러닝 셔츠만 입고 한 손에 태극기를 든 청년이 탄 장갑차가 도청을 향해 질주해 갔다. 그때 도청 쪽에서 한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공수부대의 조준사격이었다"(증언) "고막을 찢는 듯한 총성과 함께 장갑차에 탔던 청년이 총탄에 맞고 그대로 넘어졌다. 당시 사상자가 얼마였는지는 취재가 불가능"(월간조선, 1985.7)

12:10 돌진하는 시위대의 장갑차에 계엄군 4~5명이 쓰러짐. 계엄군은 살상을 예고하듯 분수대 앞에 횡대로 도열.

12:30 분노한 시민, 각목을 든 채 도청을 향해 돌격,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 시위대 맨 앞의 503벤츠 고속버스가 군경의 저지선으로 돌격하자 계엄군 쪽에서 LMG기관총 난사, 차에 탄 시위대 20여명 살상 당함.

12:40 버스 4대 화순 중앙파출소에 방화, 주민 합세 후 무기 탈취.

12:43 도청 공격을 위해 트럭 2대가 돌격.

12:45 시민에게 본격 발포(전교사 작전일지 80-4호), 광주 북쪽 3개 지역 봉쇄.

12:55 도청 앞 YMCA에서 계엄군 발사, 시민 수십 명 살상, 분수대 앞 계엄군은 횡대로 앉아 금남로 쪽을 향해 거총 자세.

12:58 광성여객 버스 2대가 도청으로 진격, 공수부대 발포, 운전사 사망, 장갑차 1대가 도청으로 진격, 집중 사격을 받았으나 학동 쪽으로 빠져나감.

13:00 무장을 시작한 시위대

-해남읍에 시위 차량 도착, 약 3천여 명의 군중이 해남교육청 앞에 집결, 성토대회를 갖고 시가행진.

-시위대 카빈 3백정으로 무장, 전대 의대와 경찰 쪽으로 진출.

-도경 쪽에 포위된 군경이 발포시작, 옥상마다 군인이 올라가 발포.

-광남 하남파출소 카빈 9정 탈취.

- 함평 신광지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박스등 확보.
- 13:30 도청 주변에서 사망·부상자 속출.
- 13:40 군용헬기 1대 도청 광장에 착륙, 일반 계엄군 9명 태우고 이륙, 도청 광장 임시 헬기장이 돼 군용기와 경찰헬기가 수시로 이·착륙, 공수부대로 부상자와 중요 문서 이송.
- 13:50 전남도청에서 도지사가 시위 군중에게 요구 사항을 승낙할 테니 해산하라고 방송.
- 13:55 “3시까지 연행자를 석방한다.” 라고 군용헬기 선무 방송.
- 14:00 무기 탈취를 위한 시외 지역으로 남평지서·나주경찰서·무안 현경면지서·나주 금성동 파출소.
- 14:00 총상당한 환자 병원으로 후송.
- 14:20 비아·영광·나주·영산포·무안·영암·화순·장성등지 무기·화약고에서 카빈·M1 소총·수류탄·다이너마이트로 무장. 효덕동 파출소 무기 탈취, 전남대에 주둔한 공수부대를 공격하자 발포.
- 14: 53 무장 시민군과 계엄군의 무력 충돌, 남평지서에서 무기를 확보한 무장 시위대 광주은행 사거리 도착
- 15:00 시민군, 저공 비행 헬기에 사격.
- 계엄사의 연행자 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시민들 더욱 격분.
- 광주 시내 종합·개인병원 총상 환자들로 가득 참.
- 광주공원·지산동 법원·유동삼거리에서 무기 지급, 광주시청 2층에서 계엄군 발포.
- 15:16 화순에서 탈취한 무기, 학동에서 지급.
- 15:20 도청 앞 총격전, 시민 1천여명 무장.
- 16:00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교전.
- 16:30 광주지역 공수대원 철수 명령.
- 16:40 전남대 주둔 제3여단에 교도소 사수 명령, 도청 11여단, 35대대순으로 철수.
- 16:43 시민군, 전남대 부속병원 옥상에 기관총(LMG)2개 설치, 복격적인 총격전 대비.
- 16:45~50 전남방직·일신방직·연초제 조창 무기고 탈취.
- 17:00 시민군 총기 교육 후 지역방위대 편성, 광주공원 광장에서 특공대 편성. 헌혈하고 돌아가던 박금희양 총에 맞아 즉사, 도청에 남은 계엄군 화순 주남마을 쪽으로 철수.
- 17:18 화순광업소에서 다이너마이트 1대분 신고 와서 국민은행 앞 대기.

18:20 20사단 병력 외각 배치, 남금동 구시청 앞 발포.
18:25 3공수 교도소 도착.
18:30 35대대 철수 준비.
18:50~19:00 계엄군 외각 봉쇄, 광주-목포간 목산도로 차단 위해 송암동 투입, 송정리 확보, 톨게이트 봉쇄.
19:00 광주역에서 시청 쪽으로 군부대 트럭 질주(철수), 남평-효천간 계엄군 집단 발포.
19:50 광주역에서 총격전.
21:00~22:00 송암동 병력 배치, 광주-목포간 도로 시민군 경계 근무.
21:15 백운동 지역 자체 경비대 편성.
22:11 효천 지역 시민군과 계엄군 접전.
24:00 외신 기자, AP통신 테리 앤더슨, 『타임』 지 사진기자 로빈 모야 광주 도착.

80년 5월 22일

00:05 완도경찰서 파괴.
00:40~50 교도소 앞 충돌, 1명 사망.
02:00 목표 20여대의 차량이 공포탄 쏘며 가두 시위.
03:00 영광 1천여명 시위 해산.
04:55 계엄군 중원 병력 광주 도착(20사단 60연대).
05:00 남평에 매복중인 계엄군의 사격으로 사망1명, 부상3명.
06:04 강진경찰서 피습.
07:00 광천동 공단 입구에 지역방위대 배치.
07:30 전남대 교정에서 암매장된 고교생 발견, 아침뉴욕 타임스와 르 몽드지 1면 머릿기사, 최초로 세계에 알려짐.
08:10 도청 간부 수습 대책 논의.
08:20 외곽에 배치된 계엄군·시민 탑승 차량에 발포.
09:20 광주교도소 총격전.
09:30 계엄군 피란 행렬에 집중 사격.
10:00 문화동 고속도로에서 계엄군과 교전, 구용상 광주시장 호소문에 50만매 배포.
10:30 2군사령부 자위권 행사 지시, 목포 일부 파출소 피탈.
10:50 도청 앞 쫓기대회 준비하면서 총리 도착 기다림.
11:10 무안서 실탄 탈취한 시위대 광주로 이동

12:00 도청 앞 5만 시민궐기대회 개최, '5·18 수습대책위원회' 결성, 전남일보 현판에서 무기 회수.

12:12 함평경찰서 점거, 시위대 수천명 시위.

12:00~15:00 수습위원 계엄사 방문, 협상 결렬.

13:00 무등도서관 앞 1명 사망.

13:16 화순-광주간 도로에서 공수부대차량 1대 사격, 1명 사망, 7명 체포

14:00 목포역 광장 시민궐기대회.

14:30 광주시장이 비행기에서 호소 전단 살포, 박충훈 총리 호소문 발표.

15:00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개최, 매일 오후 3시와 9시 2차례 도청 앞 분수대에서 궐기대회 개최 결정.

15:18 관 위에 태극기를 덮은 시체 18구 도청 분수대에 안치, 추도식 거행.

16:00 부상자를 위한 모금 운동.

16:10 영암 미암지서 무기고 습격.

16:30 영암 지역 무기 회수 시작.

17:00 계엄사와 협상 결과 보고, 통합병원 통로에서 62연대 2대대와 시민군 교전:사망 3, 연행25, 부상 10명.

17:55 848명의 연행 시위대 석방.

18:00 학생수습위원회 구성, 도청 상황실에서 증명서 발급, 쌍촌아파트 교전.

18:30 공수부대 화순 너릿재 터널 트럭으로 봉쇄, 전대병원 시체 18구 도청 분수대 앞으로 옮겨 추도식, 관구입을 위한 모금 운동 전개.

19:00 계엄사령부, 광주 사태에 대해 발표문 발표.

19:10 사망자 56명, 도청 앞 광장에서 관을 놓고 추도식.

20:00 담양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차에 계엄군 발포, 대부분의 청년들 도청에 남아 치안 담당.

22:00 무기 회수를 둘러싼 시민군 내부 대립 심화.

80년 5월 23일

00:40 지원동 숙실마을(조대 뒷산)에서 계엄군과 총격전.

01:00 해남 우슬재에서 교전, 시위대 20명 이상 사망, 다수 부상.

02:00 충정작전 계획 건의.

04:00 ~30 해남 우슬재에서 군과 시민군 40명 총격전, 1명 사망, 2명 부상.

06:00 광주시 안정 회복, 남녀 고교생 7백명 시내 전역 청소, 장례반·총기 회수반·차량 통제반으로 구분, 도청 중심으로 대자보, '민주시민강령' 선포.

1. 시민은 시민군을 믿고 적극 협조합시다.
2. 시민군은 위장된 계엄군 및 불순분자를 주의합시다.
3. 질서 회복에 힘쓰시다.
4. 평소 생활로 복귀합시다.

06:10 해남 우슬재에서 총격.

07:00 시청 직원과 시민들 거리 청소에 나섬.

08:00 교도소 앞 총격.

09:00 노두서점에 모인 교수·학생 시민궐기대회 계획. 학생들 무기 회수. 구용상 광주시장 전직원 정상근무 지시.

09:35 도청에서 학생수습위원회 본부 설치.

10:00 수습대책위원회 조직 개편.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전대병원 26명, 기독교병원 17명, 적십자병원 21명, 조대병원 1명, 요한병원 2명, 기타 3명, 도청 내 44명등 114명.

10:05 전남대 캠퍼스 동산에서 교련복차림 남자 고교생 가매장돼 있는 것을 도청으로 운구.

10:30 남녀 고교생 시위.

11:00 부녀자, 시위대에 식사 공급.

11:50 민간인으로 위장한 공수대원 2명 체포, 간첩 용의자, 학생들에게 연행.

12:00 8백여 정 총기 회수, 차량 통제반 차량 단속.

13:00 계엄사 연행 학생 34명 석방.

14:00 주남마을 양민 학살, 18명 사망. 수습위원 10명, 무기 1백정 반납.

14:10 영암읍에서 시민군에게 실탄 지급.

14:20 학생들 시민 시체 50구 상무관서 분수대로 운구, 시민 2만명 운집

15:00 제1차 민주 수호 범시민궐기대회, 장례 준비 모금 운동 전개해 1백만원 대책위에 전달, 지원동 버스 종점에서 총격전, 계엄사 붉은 글씨의 '경고문'을 전역에 살포.

16:00 지원동 민가에 계엄군 난입, 피난가는 시민을 향해 난사, 학운동 자위대 무기 반납.

저녁: 투사회보 재6호 배포.

18:00 KBS 복구 방송 시작. 광주시청, 피해 상황 조사하고 동자위대 편성

을 지시. 서민 생계 지원 위해 가구당 5천원과 식량 공급키로 결정.

19:00 교도소 앞 교전.

19:40 계엄분소는 수습위원들에게 광주사태로 927명 연행해 882명 훈방하고 23일 34명을 석방해 현재 45명만 남아 있다고 발표.

21:00 목포역 시국성토대회, 5만여명 촛불시위.

80년 5월 24일

새벽: 외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무기 회수(조비오 신부 등 수습위원4명).

06:00 무진 2천 7백정 회수(50%).

08:00 광주 시내 생필품 품질. 무기 자진 반납 시한 12시까지 연장. 수습위 사망자 확인·미확인 합쳐 6백여명, 중경상자는 2천여명이라고 발표.

09:00 충청작전을 위한 계엄군 배치.

09:25 학동 대치 지역에서 총격전.

10:30 계엄군의 오인 사격, 31사단 96연대 3대대와 기갑학교 병력 사망5, 중경상 11, 경상 11명, 주남마을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양 헬기로 후송.

12:00 시체 3구 암매장한 계엄군 무선 교신 도청.

13:00 계엄사, 무기 반납 시한을 18시로 연장. 11공수 주남마을서 철수 개시.

13:10 공수부대 철수하면서 좌우난사, 원제마을 저수지서 떡감던 방광범군(당시10세) 숨지고 10분뒤 진제마을에서 총소리 피해 달아나다 벗겨진 고무신 주우려던 전제수 군(당시10세)이 총에 맞아 사망.

14:05 계엄군의 오인 사격, 효천역 전방 1km지점 11공수와 보병학교 병력 사망 9명 부상 33명 발생, 진월동 양민 학살 2명 사망.

14:10 북동에서 학생 가장한 불량배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강요한다는 제보 받고 시민군 출동.

15:00 수백의 공수대원 송정리 비행장에서 이동, 송정리에서도 헬기 기총소사, 제2차 민주 수호 범시민 쫓기대회, 전북서 환자용 산소 1백통 지원.

16:30 도청 앞 상무관에 미확인 시체 40여구 안치.

17:30 쫓기대회 준비를 위한 집행부 구성.

18:00 기동순찰대 활동.

18:49 계엄분소 예하 각 부대에 확인 사살과 이동시 표식을 달 것을 지시.

21:00 민간인으로 위장 계엄군 시내 투입.

22:50 최규하 대통령 담화.

80년 5월 25일

- 08:00 조작된 독침 사건 발생.
09:25 시위 차량으로 외곽 지역 주민, 도청으로 수송.
11:00 학생·청년수습위·민주 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11:05 초교과적인 모금 운동, 시체 120구로 늘어남.
12:35 목포, 비상구국기도회 열림.
13:00 국군통합병원으로부터 각 병원에 산소 공급(진월동 노대마을).
13:10 목포서 기독교인 1천명 시위 이어 목포역 광장서 구국기도회.
13:35 피란가던 청년 2명 산속에서 사망.
14:00 남동성당 수습위, 도청으로 합류.
14:20 화순 방면 1번 버스 중점 부근서 시체 2구 발견되었으나 계엄군이 인도 거부.
14:30 계엄사 탄약 검사반 도청 투입.
15:00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궐기대회 후 검정 리본 착용, 가두 시위.
17:20 광주 시내 각 교회 1천만원 모금 운동.
18:10 최규하 대통령(?)등 상무대 도착.
19:00 광주시 영세민에게 가구당 5천원씩 지급, 정부미 6천가마 방출.
20:00 계엄사, 광주 다시 악화됐다고 발표.
22:00 민주시민투쟁위원회 조직.
위원장 : 김종배
기획실장 : 김영철
내무담당 : 허규정
기획위원 : 이양현, 윤강욱
외무담당 : 정상용
홍보부장 : 박효선
대변인 : 윤상원
민원부장 : 정혜직
상황실장 : 박남선
조사부장 : 김준봉
보급부장 : 구성주
- 23:00 3개조의 취사부 편성.

80년 5월 26일

- 04:00~06:00 외곽 지역 주둔 계엄군 광주 진압.
05:00 시신수습대책위 17명이 “총알받이로 나가 계엄군을 막자” 고 결의,

- 진압 현장에서 탱크앞에 드러누워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
- 07:10 계엄분소 홍대령 광주 관내 외국인 거주 상황 파악토록 지시.
- 07:20 계엄군의 시내 진입을 알리는 방송.
- 09:00 수습위의 계엄분소 방문, 안병하 도경국장 직위 해제.
- 11:30~13:00 제4차 민주 수호 범시민궐기대회.
1. 국기에 대한 경례.
 2. 5·18 광주 사태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묵념.
 3. 5·18 경과 보고.
 4. 5·18 수습 결과 보고.
 5. 국군장병에게 드리는 글.
 6.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글.
 7. 민주시 낭송.
- 12:00 기동타격대 조직.
- 14:00 광주시장에게 9개조항 요구.
1. 1일 백미 1가마씩 제공하라.
 2. 부식 및 연료를 제공하라.
 3. 관 40개를 제공하라.
 4. 앰블런스 1대를 지원하라.
 5. 생필품 보급을 원활케 해달라.
 6. 치안 문제는 경찰이 책임지라.
 7.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라
 8. 사망자 장례는 도민장으로 하라
 9. 장례비를 지원하라.
- 15:00 제5차 민주 수호 범시민궐기대회 '우리는 왜 총을 들게 되었나' 낭독, 7공수 광주공원 소탕명령 받음.
- 16:00 광주 상황을 알리기 위해 탈출(김요셉).
- 19:00 외국인 207명 광주에서 철수.
- 20:00 목포 지역 1만명 햇불 시위.
- 20:10 기동타격대 시내 순찰.
- 21:00 전교사 문관 도청 잠입, 지하실 TNT뇌관 분리 제거 후 복귀. 특전대 하사관 시내 사복 경찰.
- 23:00 시민군 병력 배치. 계림초등 30명, 유동 삼거리 10명, 덕림산 20명, 전일빌딩 40명, 전대병원 옥상·서방시장 10명, 지원동 30명, 도청 2백~3백명.

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입로.

20사단 : 지원동-광주천-적십자병원-도청 남쪽.

20사단 : 지원동-학동-전대병원-도청 후문.

20사단 : 백운동-한일은행-도청 정문.

상무대 병력 : 화정동-양동-유동 삼거리-금남로-도청 정문.

31사단 : 계림초교-시청-도청 북쪽.

7공수 : 광주공원.

3공수 : 도청.

11공수 : 관광호텔과 전일빌딩.

00:00 시내전화 끊김, 특전사 특공대 행동 개시.

01:20 7공수 화정동 도착 후 지역대별 침투 개시.

01:30 3공수 특공대 조선대 뒷산 점거.

02:00 20사단 행동 개시, 계엄군의 진입을 알리는 가두 방송.

03:00 계림교 앞 교전.

03:20 계엄군 광주 전격 기습(외각 3개소에서 총격전), 11공수 특공조 전일 빌딩과 관광호텔로 접근.

04:00 31사단 무등경기장 중심으로 행동개시, 7공수 광주공원 도착, 11공수 관광호텔·전일빌딩 점거, 도청 앞 완전 포위, 금남로 중심 기사전.

04:10 3공수 도청 후문 월담, 도청 총격전.

04:30 20사단 계림초교 통과중 시민군 10여명으로부터 사격 받음.

04:30~06:30 도청 함락.

04:40 YMCA 격전,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근 접전, 헬기로 군방송 시작, 도청 인근 콩 볶는 소리 폭음.

05:00 계엄분소장 담화 발표. 광주 KBS, 행진곡과 함께 군의 진입을 알리는 방송 되풀이.

05:04 11공수 관광호텔·전일빌딩 점령·공설운동장·광주천변·백운동 장악.


05:06 7공수 광주공원 완전 점령, 광주시 주요 공공기관 점령.

05:15 11공수 도청 이동중 시민군 사격 받아 2명 부상.

05:22 도청 시민군 전원 연행.

05:23 광주시 점령 완료.

06:00 KBS를 통해 “폭도들은 진압됐다. 시민들은 위험하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방송(영어).

- 07:30~09:30 기갑학교 전차 14대 A.P.C 1대 무력 시위, 금남로-도청-학동-시민회관-광주구역-부대. 공무원 근무 개시. 시내전화 개통.
- 08:00 광주경찰서 노병기 경장 풍향동서 출근길에 총탄 맞고 사망.
- 08:30 3공수 포로 2백 명 전교사에 인계.
- 08:40 도청 안에 시체. 회의실 앞 분신소 시체 1구, 뒤뜰에 1구, 민원실 계단 앞 5구, 건물 사이 7구, 경비과 옆 1구 등 총 15구.
- 09:00 계엄군 가택 수색으로 청년들 연행.
- 09:10 도청 지하실에서 TNT 11상자, 도화선 2묶음, LMG 7· 카빈 5· M119, 최루탄 4백 개, 실탄 10상자 등 회수.
- 10:00 주영복 국방장관 광주 방문.
- 10:30 도청 지하실에 숨어 있던 고교생 등 7명 생포.
- 11:00 목포, 제5차 민주 헌정 수립을 위한 목포시민궐기대회. 시내 주요 건물 옥상 점거.
- 12:00 장형태 지사 의원 면직, 후임에 김종호 금호실업 대표.
- 18:00 계엄사 2차 발표.
- 22:50 목포 시민, 3천 5백여 명 횃불 시위. 28일 새벽 4시경 시위대 체포·연행으로 목포 시위 막 내림. 

답사자료 4 - 소쇄원

소쇄원의 멋과 정취

소쇄원은 중종 때 사람인 양산보(1503~1557)의 별서정원이다. 별서란 살림집에서 떨어져 산수가 좋은 곳에 마련된 주거공간을 말하며, 이곳에 정자와 더불어 조성되는 정원을 별서정원이라 한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임천속의 별장이라고 할 것이다.

양산보는 양사원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소쇄원이 있는 담양군 남면 지곡리는 창암촌이라고도 불렀는데, 창암은 양사원의 호였다. 고향에서 지내던 양산보는 15세 때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가서 조광조 밑에서 학문을 닦았다. 17세 되던 중종 14년(1591)때는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조광조가 신진 사류를 등용하고자 실시했던 현량과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받지는 못했다. 바로 그 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는 능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다. 스승을 따라 능주로 갔던 양산보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55세로 죽을 때까지 고향의 자연에 묻혀 처사로지냈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30대부터 짓기 시작하여 40대에 완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 면양정을 지었던 송순과 김인후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양산보는 소년 시절에 마을 뒤의 계곡에서 놀다가 물오리를 따라서 지금 소쇄원이 있는 곳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다. 그 때 언젠가는 이곳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소쇄' 라는 말은 본래 공덕장의 '복산이문'에 나온 말로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한다. 양산보는 그 뜻을 따서 정원의 이름을 붙이고 그 주인이라는 뜻에서 자기의 호를 소쇄옹이라 했다.

소쇄원은 멀리 남쪽으로 무등산을 바라보며 장원봉과 까치봉을 잇는 산줄기를 뒤에 업고 남쪽으로 슬슬 흘러내린 산비탈에 자리 잡았다. 이 정원을 이룰 당시 창암촌은 제주 양씨들의 씨족 마을이었으니 소쇄원은 후원적 성격을 띠었다. 뒤편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폭포와 작은 소를 만들며 정원 가운데를 가로지른 후 대숲으로 빠져나가 창계천으로 합류한다. 계곡물 양쪽 비탈에 축대를 쌓아 꽃계단을 만들고 정자들을 올렸으며 동쪽과 북쪽, 서쪽 일부에 직선 담을 두르고 남쪽은 띄워 놓았다. 들어서면서 바로 보이는, 짙으로 이은 정자가 대봉대이고 왼쪽으로 계곡 건너에 있는 것이 광풍각, 그 뒤로 서너 단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제원당이다.

그러나 자연 자체를 뜯어 삼키면서 꼭 필요한 곳에 인공을 가했던 조선

시대 정원에서는 이러한 인공적 축조물이 아니라 터전 전체가 종합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건축물들은 그 전체를 가장 잘 살리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전체 경관의 일부로 녹아 있다.

대붕대 아래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고 입구 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조금 더 큰 연못이 있다. 나무 속을 파낸 흙대와 도랑을 타고 온 계곡물은 먼저 작은 못을 채우고, 그 물이 넘치면 다시 도랑을 따라 큰 못으로 흘러들게 되어있다. 큰못에서도 넘쳐난 물은 돌로 만든 수구를 통해 계곡으로 물을 날리며 시원한 물소리를 보냈다.

대붕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동쪽 담에는 애양단이라고 새겨진 판이 박혀있다. 이 부근은 유난히 별이 바르다. 하서 김인후는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48가지를 노래한 『소쇄원 사십팔영』 가운데 ‘애양단의 겨울 낮’에서 한겨울에 계곡은 아직 얼었는데 이곳의 눈은 모두 녹았다고 노래했다. 양산보는 평소 도연명을 존경했다고 한다. 도연명이 했던 대로 그도 동쪽 담 아래에 국화를 심었을까? 역시 김인후의 『소쇄원 사십팔영』 가운데는 동쪽 울타리 아래 점점이 핀 황국이 늦가을의 풍상과 잘도 어울린다는 대목이 있다.

애양단을 지나면서 담은 7자로 꺾인다. 그 담에 또 오곡문이라 새긴 판이 박혀 있다. 그 옆에는 담 밑에 구멍이 뚫려서 그리로 물이 흘러들도록 되어 있다. 돌을 섞어 흙담을 쌓고 기와를 얹으며 죽 이어 오다가 이곳에 이르자 넓적한 바위를 걸쳐 다리를 놓은 후 그 위에 담을 올린 것이다. 오곡문이란 담 아래 터진 구멍으로 흘러든 물이 암반 위에서 다섯 굽이를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수구 옆에 일각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냥 트여 있다.

소쇄원에 들어온 사람은 이곳에서 외나무다리도 계류를 건너게 된다,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구부정한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로 물을 바라보기 딱 좋은 위치에 걸터앉을 만한 바위도 있다. 담 밑으로 들어온 물은 굽이를 이루고 폭포를 이루며 정원가운데로 흘러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나무 흙대에 이끌려 대붕대 아래 연못으로 간다.

다리를 건너면 두 단으로 된 꽃계단을 만난다. 이 같은 단은 보통 비탈의 침식을 막을 겸 쌓아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도록 꽃나무를 심어 꾸미는데, 소쇄원에서는 여기에 매화를 심고 매대라 불렀다. 매대 뒤의 담에는 ‘소쇄처사 양공지려’라는 송시열의 글씨의 글자판이 박혀 있다. 매대 앞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월당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옛적 선비들이 앉아 즐기던 너럭바위를 지나 광풍각이 있다.

제월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각지붕 건물로 왼쪽에 치우쳐서 한 칸 방이 있고, 나머지 두 칸은 마루로 트여 있으며, 마루 뒷벽에 활짝 열 수 있는 문이 달려 있다. 이 마루에 앉아 내다보면 시선이 광풍각 지붕 너머로 쭉 뻗다가 앞산에 가 닿는다. 『소쇄원도』에는 제월당 왼쪽 앞에 파초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그 자리쯤에 석류나무가 있다. 예전에 제월당 왼편 담 밖에 양산보의 아들들이 사랑채 겸 서재로 쓰던 고암정사와 부월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제월당이 주인의 사생활 적인 공간이라면 광풍각은 사랑방 격으로, 소쇄원의 풍광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중심공간이다. 제월당과 광풍각 사이에는 공간을 나누어주는 얇은 담과 작은 문이 있다. 광풍각에서는 주로 물의 흐름과 폭포, 바위에 부딪는 물방울, 맞은편에 있던 물레방아의 정취와 물소리 등 수경을 즐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광풍각의 처음 이름은 침계문방 또는 계당이였다 한다. 정면 3칸 팔각지붕 집인데, 가운데 한 칸에 방을 들였고 빙 둘러가며 마루를 깔았다. 불을 넣는 아궁이가 뒤편에 있어서 그곳 마루가 다른 것보다 한 단 높게 달려있는 점이 색달라 보인다. 물론 방문은 여름에는 모두 열어 열도록 되어 있다.

요즘 광풍각 방 뒷벽에 『소쇄원도』 목판은 복사한 그림이 걸려있다. 요 모조모 뜯어보며 지금의 모습에 예전의 모습을 겹쳐 보는 것도 재미있다. 광풍각에서 오른쪽으로 비긴 뒤쪽담 위에는 복숭아나무를 심고 무릉도원의 풍류를 맛보도록 했는데 지금은 비어 있다. 제월당과 광풍각 현판 슬씨는 이 지역 대부분의 이 지역 대부분의 현판글씨와 마찬가지로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이곳에는 고경명, 김이후, 송승, 정철, 김성원, 기대승, 백광훈, 송시열 등 당대의 이름 있는 문인, 선비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이 남긴 여러 시문 가운데 고경명의 『유서석록』과 앞에서 나온 김이후의 『소쇄원 사십팔경』에 소쇄원의 옛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소쇄원 안의 바위 하나, 물굽이 하나에도 따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주는 감흥을 만끽했다.

소쇄원 정원은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인공을 가하였다고들 말한다. 그 안에 들어가 이곳 저곳을 더듬다 보면, 함부로 손대는 것을 아꼈을 뿐이지 어디 한 군데도 배려하지 않은 구석은 없음을 느끼게 된다. 계곡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자연 경관을 고루 경험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적당히 걷다가 멈출 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눈 쭈글 곳, 또 앉을 곳 등 모든 것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배려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란 영성한 자연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완벽한 배려와 애정 속에 인공을 가함으로써 오는 자연과의 동화일 것이다.

양산보는 자기의 마음이 살살이 닿은 이 정원을 매우 아껴서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 것이며, 하나라도 상함이 없게 할 것이며, 어리석은 후손에게는 물려주지도 말라'고 유언했다. 그덕에 오늘날 우리는 이 조선 시대 민간 정원의 백미를 비교적 원형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소재원은 1983년에 사적 제304호로 지정되었다. 

답사자료 5 - 원지 탁본 현장

탁본

탁본이란?

금석이나 기타 물체에 조각된 문자나 문양 등을 종이에 모인 <摹印>하는 일 또는 모인 것. 당대<唐代>에는 타본<打拏> 또는 탐본<榻拏>이라 하였고 송대<宋代>에는 탁본이라 하였다. 탁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에서 인쇄의 한 방법으로 당대에는 명가의 글씨를 모아 각자<刻字>하고 다시 탁본한 집첩<集帖>이리는 것이 있었다고 하며, 송대에는 순화연간<淳化年間, 990~995>에 칙명으로 각첩<閣帖>이 각자되면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즉 원각<原刻>을 기본으로 번각<飜閣>하고 다시 복각<覆閣>하는 방법으로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蘭亭序>를 기본으로 임각<臨刻>, 번각된 난정백종<蘭亭百種> 또는 난정이백종<蘭亭二百種>은 유명하다. 그러나 이때의 목적은 서법을 배우는 법첩<法帖>을 만드는 데 있었으므로 주로 비명<俾銘>이 대상이 되었다.

탁본은 습탁<濕拓>과 건탁<乾拓>의 두 종류로 구별되는데, 습탁은 탁본하고자 하는 대상물체에 물로 종이를 밀착시킨 다음 목즙을 솜방망이에 묻혀서 그 위를 가볍게 두드리면 패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먹이 묻어서 패인 부분의 문자나 문양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고, 건탁은 대상물체에 물을 쓰지 않고 고행묵<固形墨>을 종이 위에 문질러서 파이지 않은 부분에 먹이 묻게 하는 방법이다. 이 중 탁본의 주류는 습탁에 있고, 습탁은 다시 오금탁<烏金拓>, 선인탁, 격마탁 등으로 구별된다. 오금탁은 고급 먹과 종이를 사용한 결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묵색이 나타나서 진한 먹색이 나타나서 진한 먹색이 까마귀 날개가 반짝이는 모양과 같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선인탁은 먹색을 얇게 하고 날이 굵은 방망이를 사용한 결과 마치 매미 날개같이 작고 촘촘한 공백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며, 격마탁은 거친 석질로 인하여 마치 마줄기가 얽힌 것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탁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1442년(세종24) 5월 병술일<丙戌日>의 비명을 인쇄하여 서법을 삼고자 이들을 모인하여 바치게 하였는데, 이 날에 이르러 모이한 것을 대소신료에게 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작업은 1년이 걸리는데 종이는 물론 밀랍, 먹,

모전을 썼다고 하였으나, 이때 밀랍과 모전이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어 성종대 에도 법첩을 만들고 당나라 태종의 서에서 집자한 흥법사진공대사비의 목본을 만드는 일이 계속되었고, 후대에 내려와 낭선군 이우가 <<대동금석서>>를 인행 하였으며, 김정희 형제와 조인영 등이 수집한 탁본을 청유, 유연정에게 보내어 <<해동금석원>>을 간행하게 하여 오늘에 전한다.

연모에 관해서

연모를 만드는 방법은 특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1. 무명천, 가제천, 명주천(대상에 따라 다름)
2. 먹과 벼루 3. 두드리는 솔 4. 면수건
5. 물그릇, 물통 6. 먹접시 7. 화선지나 탁본용 창호지
8. 좁쌀, 쌀, 콩, 녹두, 숨, 톱밥(사용에 따라 틀림) 9. 칼, 가위

1) 위와 같은 것이 준비되면 먼저 먹방망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형질에다 숨, 좁쌀, 톱밥을 싸서 이에 먹물을 묻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크기에 따라 직경 13~15cm 1개, 6~8cm 1개, 1~3cm 1개이면 웬만한 크기의 것을 다 작업 할 수 있다.

2)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먹물을 들 수 있다. 먹물을 직접 만들거나 좋은 먹물을 갈아서 쓰는 것을 옛부터 탁본하는 왕도로 생각했던 만큼 먹물을 갈아서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요즘 시중에서 화학약품으로 제조해 파는 먹물로 채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된다. 이것은 작품 제작에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더욱 큰 문제는 탁본의 대상물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3) 두드리는 솔은 양복 먼지털이면 되는데 털이 곱고 고른 것이면 된다.

4) 수건은 대상물의 청소나 물을 빨아들이는데 필요하므로 3~4장이 필요하다. 면수건이 무난하다.

5) 화선지는 일명 선화지라고도 하는데 너무 얇은 것은 먹물이 새어나가 대상물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질<紙質>이 좋은 것을 써야 한다.

탁본의 대상물

탁본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아서 거기에서 얻은 묘득<妙得> 즉 자기 손의 감촉과 육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탁본의 대상물로는 비나 종, 현판 등이 좋은 대상물이라 하겠다.

탁본의 순서

채탁하려면 우선 관리인에게 허락을 말아야 하며,

1. 탁본의 대상물을 상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2. 대상물에 종이를 붙이는데 여러 장 겹쳐 붙일 수 있다.
3. 종이는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나 고무줄로 고정시킨다.
4. 종이에 물을 고르게 바르는데 미자법<米子法>을 사용한다.
5. 수건으로 로올러를 만들어 물거품을 제거하며 솔로 가볍게 두드린다.
6. 어느 정도 종이가 말라서 하얗게 되면 제일 중요한 먹방망이로 두드리는 작업이다. 적어도 넓게 세 번 정도는 두들겨야 한다. (먹의 농도는 1~48까지 있는데 탁본에서는 10~15정도면 된다)
7. 그후 테이프를 떼어내고 말린 다음 배접이나 표구를 하면 작품으로서 남는다.

이외에 건탁도 있지만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탁본을 하는 날씨로는 15~23C 에 맑은 날씨면 좋다. 여름과 겨울 지방의 날씨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석조공 예품이나 서체를 알 수 있는 비문등을 탁본을 통해 남겨놓는다면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역사사랑**

답사자료 6

국립진주박물관

1. 박물관의 역사와 기능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박물관과 유사한 시설로 미술관, 자료관, 과학관이 있으며,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은 박물관과 구별되고 있다. 박물관이 오늘날처럼 근대적 기능을 갖추고 일반에게 널리 공개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이며 그 계기는 프랑스 혁명이었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 후에 루브르 궁전이 개방되면서 문화재를 일부 인사만의 소유물로 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물로 하는 전통이 형성되어 문화재가 교육, 감상, 조사, 연구 등에 제공되었다. 또 B. C 4세기 알렉산더 대와의 사후 그의 대제국은 셋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가장 번영했고 그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가 아테네를 대신하여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 왕궁 내에는 “무세이온”이라는 국립연구소가 세워졌다. 이 무세이온이 “뮤지엄”의 원어이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2세는 모두 과학을 장려함으로써 왕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무세이온을 세웠다고 한다. 따라서 무세이온 안에는 각지에서 온 학자들을 위한 숙소도 마련되었으며, 천문대, 해부실, 동물원, 식물원의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잘 정비되어 50~70만 권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2. 우리 나라

우리 나라에서의 박물관 역사는 기록과 유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삼국시대부터 시작된다. “삼국사기”에 진사왕 때는 궁중, 동성왕 때는 임류각에 기금이휼을 수집하여 길렀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에는 세오녀의 비단을 귀비고에 보관하였으며, 그밖에도 만파식적은 천존고에 보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안압지에 가산을 만들어 진귀한 동식물을 길렀다고 하는데, 최근의 발굴조사에 의해 그 유적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진귀한 물건과 서화까지 진열했음이 “고려사”에 전해지므로, “고려도경”에는 보관고로써의 전각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옛집이 있던 함흥의 경흥전에 사립, 일월원경 등을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왕가의 박물관은 순종 2년 창경궁 안에 발족시킨 이왕가 박물관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순종 3년 창경궁을 공개하면서 식물원, 동물원과 함께 박물관을 공개함으로써 근대적인 박물관의 효시가 되었다. 같은 해에 준공된 석조전에는 고종에게 바쳐진 외국 사신들의 선물이 보관되었다가 1919년 일본 미술품이 전시되었고, 38년에는 이왕가 미술관이 준공되어 우리나라 고 미술품도 전시하였다. 그 후 일제가 조선 총독부 시정 5년을 선전하기 위하여 물산 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할 때 지은 미술품 진열관을 총독부 박물관으로 하였으며, 27년 왜성대로 있던 총독부 청사를 새 청사로 옮기면서 4m 자리에 과학박물관을 세웠다. 한편 민족문화재의 수장가인 전형필은 36년 서울 성북동에 미술관인 보화각을 개관하여 일제의 문화재 약탈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13년 경주 고적 보존회가 경주 지방의 유물을 수집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는데, 이것은 26년 총독부 박물관의 분관이 되었다. 부여에서는 29년에 고적 보존회가 발족하여 백제관을 유물전시장으로 사용, 39년 총독부박물관의 문관이 되었다. 부여에서는 29년에 고적 보존회가 발족하여 백제관을 유물전시장으로 사용, 39년 총독부박물관 분관이 되고, 31년 개성에 개성 부립 박물관, 33년 평양에 평양 부립 박물관, 34년 공주 고적 보존회에 의해 공주박물관이 세워졌다.

8·15 광복 후, 국립박물관이 발족하여 총독부 박물관을 인수, 개편할 때 경주, 공주, 부여의 박물관을 분관으로 편입하고, 과학 박물관은 국립과학원으로, 46년에는 개성시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분관이 되었으며, 이왕가 미술관은 덕수궁 미술관으로 개칭하였다. 50년 6·25 전쟁으로 한 때 국립박물관과 덕수궁 미술관의 유물 2만여 점을 소개시키는 수난을 겪기도 했으며, 51년 12월 민족 박물관을 남산 분관으로 개편, 통합하였고, 51년 환도하면서 국립박물관은 남산분관으로 이전했다가, 54년 덕수궁 석조전을 수리하여 이전, 55년 2월에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덕수궁 미술관을 통합한 국립박물관은 중앙 박물관으로 확장되었고, 경주, 공주, 부여의 지방 박물관이 확장 또는 이전하였다. 특히 75년에 국립민속박물관이 개관하였고, 이후에 진주, 광주, 청주 순으로 박물관이 세워졌다. 86년 국립중앙박물관은 구 중앙청 자리로 이전하면서 산하에 7개의 지방박물관을 두고 역사, 미술, 민속 등의 분야에서 박물관 활동을 하고 있다.

가. 역할과 기능

박물관의 사업에는 자료의 수집, 보관, 정리, 전시, 조사연구, 교육활동이 있다. (1) 수집 : 박물관은 자료가 없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박물관 자료는 “물건”이 주체이지만 그 “물건”에는 실물, 표본, 모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또 문헌, 도표, 모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또 문헌, 도표, 사

진, 영화필름, 레코드, 녹음테이프 등도 자료에 포함된다. 이런 박물관 자료의 수집은 전시를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박물관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예컨대 민속, 예술, 고고, 역사, 과학, 기술, 자연사 등에 따라 수집물이나 수집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 시에는 사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또 박물관은 단지 “물건”을 진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에 관계 되는 계통성과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판단은 수집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고고학 자료 등의 경우는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유품을 어떻게 복원하느냐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실물을 수집하고 전시, 보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제철기술의 발달과정에서 평로가 중요하게 취급되는데도 실물이 너무 커서 수집,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필요한 물건은 모두 수집한다는 것이 박물관 자료 수집의 기본 방침이다.

(2) 보관, 정리 :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정리하는 가도 큰 과제이다. 자료는 일정한 크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이한 크기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놓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리, 보관방법이 요구된다. 박물관에 들어오는 자료는 대체로 수용, 등록, 보관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중 등록 때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등록해 두는가가 문제이며, 박물관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료의 이력에 관한 등록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 관리가 많아졌으며, 앞으로는 영상 디스크 등과 컴퓨터에 의한 관리 시스템이 고안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정확한 관리와 함께 “물건”의 보관, 관리 또한 중요하다. 수장고의 온도, 습도, 방충, 빛에 의한 퇴색 등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대규모인 역사미술계의 박물관에서는 과학적인 보관 시스템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비되어 왔으나, 과학, 기술계의 박물관은 아직 미정비 상태이다.

(3) 전시 : 전시는 박물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작업의 하나이다. 전시 방법은 특정한 주제로 일정한 기간에 개최하는 특별 전시회, 박물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고 외부시설을 사용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등 갖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전시의 내용, 주제를 관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하며, 전시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 주제는 달라진다. 또한 전시장은 관람자 누구에게나 흥미롭고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시물의 정확하면서도 심미적인 표현이 강조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비디오, 슬라이드 등 모든 방법을 구사하여 전시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현대

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시형태도 진일보 하고 있다.

(4) 조사연구, 교육활동 : 조사연구 활동의 결과는 박물관의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여러 자료는 박물관의 전문연구원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가에 의해 조사, 연구되어 학문적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 자료 수집, 보관법, 분류법, 전시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물관학이 형성되고 있다. 박물관의 교육활동은 지금까지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의 박물관 기능이외에 평생 교육의 장소로서 청소년에서 성인,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시청각, 강연회, 강좌, 야외조사, 제작실습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3. 국립진주박물관

부지 5,121평에 연건평 1,497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립진주박물관은 1980년 기공식을 가진 뒤 1984년 11월 2일 우리 나라에서 일곱 번째의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98년 1월 15일, 가야문화위주의 박물관에서 임진왜란 전문 역사 박물관으로 재개관 하였다.

보물 1223호 현자 총통을 비롯한 3천 5백여점의 소장유물 중에, 임진왜란 전시실과 김응두실에 약 460점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임진왜란 관련 무기류, 전적 및 서화류, 도자류 등의 임진왜란 유물들을 이 곳에 집성하여, 다양하게 전시하는 등 우리 나라 최초의 전문 역사박물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4. 진주성의 축석루와 의암

진주는 진주성 또는 축석성이라고 불리는 읍성에서 비롯된 도시인데, 그 읍성의 가운데에 자리한 축석루의 역사는 백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확실한 역사의 기록으로는 고려말에 돌로 튼튼하게 진주성을 쌓을 때에 그 성의 동서남북에 누대 네채를 만들었는데, 남쪽에 세운 남장대가 바로 축석루이다. 그 뒤에 축석루는 병화로 불타서 여러 차례나 다시 지었고, 지금의 축석루는 한국전쟁 때에 불탄 것을 1960년에 복원한 것이다.

축석루 말고도 진주성 안에는 진주의 발자취를 말해주는 역사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사적 118호로 지정된 진주성은 이곳이 임진왜란 때에 격전지였음을 되돌아보게 하는데 길이가 1,700미터에 이르는 성곽으로 둘러싸서 본디 모습을 되살리고 성역화에 놓았다. 그 안에는 축석루와 함께 세워진 누대인 서장대와 북장대가 예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진주 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과 진주성이 왜군에 짓밟힐 때에 죽은 삼장사 곧 김천일, 황진, 최경희와 그 때 죽은 병사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인 창열사가 있고 고려 시대 세워진 절로 임진왜란 때에 승병의 근거지였던 호국사와 논개의 위패를 모신 논개 사당이 있다.

구 한말에 임금 얼굴을 그린 이로 유명한 이당 김은호가 그린 초상화로 그 모습이 살아나고 변영로 같은 진주를 찾았던 시인의 붓끝에서 그 혼백이 살아난 듯한 논개의 발자취는 축석루 앞으로 흐르는 남강에 박힌 바위인 의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바위는 그 언저리의 물이 깊을뿐더러 소용돌이를 치며 흐르고 있어 위험스런 바위라는 뜻의 위암으로 불렸는데, 논개가 이 바위에서 열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왜장을 빠져나갈 수 없이 꼭 껴안고 물에 뛰어들어 죽음으로써 의를 폄다고 해서 의로운 바위라는 뜻의 의암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자랑스런 역사 문화가 헛되지 않아 새로운 문화공간을 진주성터 안에 세우게 되었다. 곧 건축가 김수근씨가 설계한 국립진주 박물관이 세워지고 있으며, 그 바로 옆에 건축가 김중업 씨가 설계한 경상남도 도립 문화 예술 회관이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행정구역으로 진주시와 진양군의 경계에 남강댐이 만들어짐으로써 생긴 진양호는 진주사람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람객과 낚시꾼이 즐겨 찾는다. 1969년에 준공된 남강댐은 남강의 범람을 막고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장마철이 아니고는 물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진주 남강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시내 한복판에서 넘실거리는 강물을 즐기던 진주 시민은 6km의 거리를 차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진주성 터에서 남강댐에 이르는 강변도로를 따라 걸어와서 진양호 유원지에서 즐기게 되었다.

역사사랑

답사자료 7 - 풍물굿 한마당

'99대구 풍물굿 한마당

10월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 풍물거리에서 '99대구 풍물굿 한마당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가락 얼쭈패/풍물굿패'매구'/풍물굿패 '소리광대'/랑전통풍물악예술단 교사풍물패'울림'/우리것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모임'한사위'/봉산탈춤 연구회'홍터'강령탈춤 연구회/풍물패 버들림/ 칠곡주민 풍물패 옷골 '아시랑'/참여연대 풍물패 '한판'열린터'늑두패'/노동자문화센터 풍물패 '한울'/의보노조 풍물패 '여는소리'/섬유추진위 무림제지노조 '한울림'/방송통신대 풍물패 '두들소리'/상신브레이크 노조풍물패 가 참가하였다.

봉산탈춤

탈춤인 봉산탈춤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멋이 넘치는 춤사위가 매력적이며, 또한 해학적 오락적 요소가 현대인의 정서와 잘 어울려 새로운 놀이문화로 재창조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봉산탈춤은 여덟사람의 목중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팔목중춤'과 노장, 취발이, 팔목중이 승려의 신분을 벗어나 파계하나 잘못을 회개하고 사자의 용서를 받는 '사자춤',소무가 노장을 피어내어 유혹하는 '팔목중 놀이'를 선보인다.

고성오광대

제 7호인 고성오광대는 경남 고성지방에서 조선말엽 이후부터 연행되어 온 영남지방의 대표적 탈놀이이다. 문동북춤, 오광대, 비비과장, 승무, 제밀주과장의 5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도 차산농악

경북청도군 풍각면 차산리는 옛날부터 신라 고촌이라 불리우는 역사 깊은 마을에서 청도 차산농악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정초에 행해진 천왕기 놀이를 발판으로 발달된 농악으로 영남일대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민속놀이이다. 오늘날의 차산농악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33년 차산 1리, 2리 동민 중에서 농악에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18명으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비산풍물

비산풍물은 옛부터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정월 초에 행해지던 지신밟기인 '천왕메기'의 끝마당인 마을 곳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마을의 안

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식이 끝난 뒤에는 동네 풍물잡이들의 갖가지 재능을 보여주기도 하며 끝판에는 풍물잡이 구경꾼 할 것 없이 한데 어우러져 놀았다고 한다. 역센 쇠가락과 천지를 흔드는 듯한 북이 중심이 되어 전체적으로 힘차고 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밀양오북놀이

밀양에서는 김매기를 마치고 백중날을 전후하여 풍년을 기원하며 놀이판을 열었다. 그중 오북춤은 밀양 사람의 힘차고 역동적인 기질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힘찬 북소리가 신명을 분돋우며 사람과 사람을 화합으로 이끌어 간다.

강령탈춤

강령탈춤은 황해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리에서 발생되어 오래전부터 황해도 일대에서 돌아오던 옹진·해주 지역을 대표하는 탈놀이로 양반과장의 사실적 인물탈과 노승, 취발이, 마부, 말뚝이 등과 같은 비사실적 귀면형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뚝이와 같이 한삼이 달린 더거리를 입고 발이 코 끝에 닿도록 힘차게 뛰는 춤사위가 매우 역동적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잘 나타나 있는 해학적 내용으로 주로 단오절에 행해졌다고 한다.

전라좌도 필봉굿

호남 좌도굿의 대표적인 임실 필봉굿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일에 전승되어 온 호남 좌도 풍물굿이다. 편성은 우도처럼 쇠와 장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잡색의 배역과 놀이가 다양하다. 쇠가락과 꾸밈새가 있어서 호호굿, 오채질굿, 노래굿의 간주(열두마치)는 특이한 혼합박자이며 쇠잡이의 부들상모는 필봉굿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우도풍물굿과 비교하여 가락이 투박하며, 대박에 충실하고, 힘차고 곳곳함이 돋보인다. 역사사랑

답사자료 8 - 영·호남 청소년 영상교류

■ 영·호남 청소년영상교류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청소년초청	- 대구지역 청소년 100명 - 간디학교 청소년 40명 - 광주지역 청소년 100명
민 박	- 광주지역 청소년 집에서 민박
문 화 공 연	- 영남지역 : 간디학교 보컬그룹 '나탈' 초청공연 간디학교 연극반 '여우하품' 초청공연 - 장기자랑
영화시사회 및 친교의밤	맥지청소년영화제 출품작 전시회 - 영·호남지역 청소년 영화작품을 공모하여 10편을 선정하고 이를 상영 - 청소년들을 작품선정에 참여시킴 - 상여작품 : 호남지역 5편 영남지역 5편
	화합의 시간 - 장기자랑 및 캠프파이어, 촛불의식 등의 화합시간
5.18묘역 참배	- 참배 목적 :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가신 영령들을 참배하여 민주주의를 배우고자 함 - 헌화 / 묵념 / 묘지설명 / 비디오 상영
가사문화권답사	- 답사 목적 : 가사문화권 및 화순 운주사 등을 여행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여행을 통한 친교의 시간을 가짐 - 코스 : 식영정 → 소쇄원 → 쌍봉사 → 운주사
강연회	- 주제 : 21c 청소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연사 : 나창주(본 법인 고문. 전 건국대부총장)
이별의시간	-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과 선물, 주소, 편지글 등을 교환함

문화역사 탐방 1 - 구형왕릉과 덕양전

저희 역사사랑에서는 말로만 듣는 것 보다 실제로 보고 느끼기 위해 문화탐방(답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역사 문화탐방이라는 부분은 저희 동아리의 1년간의 활동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형왕릉, 덕천서원, 망월동, 진주성, 여·호남 영상교류, 구미발굴현장, 나눔의 집, 소쇄원, 거창양민학살 현장, 대구풍물굿 한마당 등 11곳을 다녀와 쓴 글입니다. - 편집자주

산청에 이런 왕릉이!!!

이한빈(편집부원, 중1)

우리 역사사랑이 올해 초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는 다른 것보다 답사를 간다는 것이 좋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산청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른다. 그래서 역사사랑을 통해 산청과 산청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싶었다. 우리가 답사하기로 한 첫 대상 그것이 바로 구형왕릉이다.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무덤으로 전해지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한다. 처음 답사지로 구형왕릉이 정해졌을 때 얼마나 들떠있었는지 모른다. ‘드디어 역사사랑에서 답사를 가는구나!!’ 라고 말이다

그리고 멋지게 출발~~~~

우리는 아침부터 엄청 난리를 쳤다. 점심 준비부터 차 타는 것까지 난리였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구형왕릉으로 향했다. 구형왕릉까지 가는 데에는 약 50분 정도 걸렸다. 도착했을 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은 처음 봤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민욱이 형이 정리한 내용을 읽고 나서야 이해가 되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최보경 선생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다. 우리는 이 곳 저 곳을 관찰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 저 많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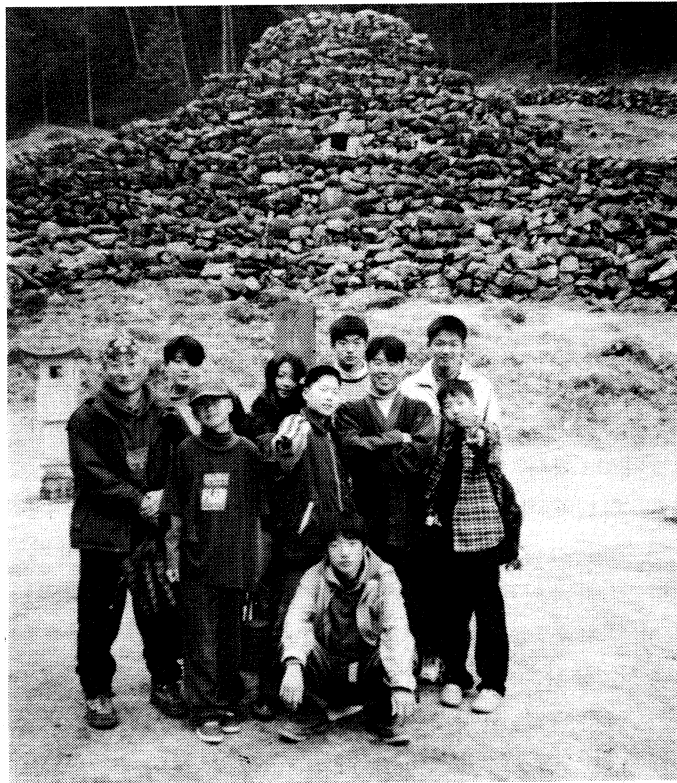
그런데 이 날은 너무 추웠다. 얼마나 춥던지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맘이 굴뚝같았다. 그래도 우리는 불굴의 정신, 역사사랑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진

을 찍다가 내려 왔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 어떤 정자 하나가 나직하게 서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망경루 같다. 내용인즉 고려 충신이 망한 고려를 그리워해서 망경루라고 한 것 같다. 우리는 그 정자 아래서 밥을 먹기로 하고 내려갔다. 아! 그 때 그 밥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콩에 김, 김치, 밥, 멸치로 한끼를 때웠는데 그 밥을 또 먹는다고 혈전이 벌어지기도... 가야 왕의 돌무덤, 정말 추웠던 날씨, 잊지 못할 식사. 아마 구형왕릉도 좋았지만 이날의 전쟁(?)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점심을 이렇게 먹고 나서 우리는 덕양전을 갔다. 덕양전은 구형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한다. 사실 덕양전은 너무 추워서 대충 본 것 같아 아쉽다.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자세히 답사하고 오는 건데...

이렇게 역사사랑의 첫 번째 답사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답사였습니다. 역사사랑 파이팅!!



돌 하나 하나에 맺힌 가야의 비운, 그리고 우리...

문화역사 탐방 2 - 거창양민학살 현장

바위틈의 혈흔

황성하(편집부원, 중1)

역사사랑은 우리 고장과 우리 지역 인근의 문화유적과 역사를 공부하는 동아리이다. 지난 봄 우리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현장을 답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갔다. 먼저 최보경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프린트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후에 산청과 함양 그리고 거창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에 대한 비디오를 보았다. 비디오는 진주MBC에서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특별 제작된 '지리산의 눈물' 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믿어지질 않았다.

출발 당일 우리는 주방 선생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점심도시락을 싣고 거창군 신원면을 향해 달렸다. 생각보다 간디학교에서 신원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았다. 굽이굽이 산을 넘어 도로 옆에 봉고를 세웠다. 사실 우리 모두는 차안에서 자서 어디가 어딘 줄 몰랐다. 선생님께서 여기가 희생자들의 합동무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서야 알 수 있었다. 무덤이 2개가 있고 위령비라고 씌어진 비석은 누군가에 의해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 비석에서 기념촬영도 했다. 알림판에는 약 600여구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남녀를 따로 묻었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 역사사랑은 다 함께 참배하고 모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의 이것저것을 둘러보았다. 선생님께서 숲을 울리고 절을 하시길래 나도 같이 했다. 우리모두 비디오를 보고 가서 그런지 쉽게 답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학교 뒷산으로 갔다. 조금 올라가 보니 작은 오솔길이 나왔고, 조금이나마 물이 흐르는 냇가를 지나야 했다. 곧 비디오에서 보았던 바위가 나왔고 총탄 자국도 있었다. 나는 비디오에서 본 것을 실제로 보게 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인지 신기하기도 했고 계속 돌아보게 되었다. 어쩌면 바위의 총탄 자국은 다른 자국이나 흠에 묻혀 없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전 통비분자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죄없는 양민들은 그리고 그 유가족들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이 편히 눈을 감았으면 한다.

나는 역사사랑 친구들과 함께 많은 답사를 가보았다. 그러나 이번 거창

양민학살현장 답사만은 내 머리에서 지우기도 싫고 지워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후에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나 답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답사만큼 나에게 깊이 남은 답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사랑**



거창양민학살 영령들이 잠든 합동 묘소에서...

문화역사 탐방 3 - 덕천서원

덕천서원보다 먹는 게 더 좋아!

이원균(답사부원, 중1)

하늘은 맑고 봄별은 따사롭다. 나는 역사사랑에서 덕천서원에 간다고 했을 때 무척 실망했다. 딱딱한 분위기에 유교가 뭐니 하며 물어볼 나이 지긋하신 관리인 할아버지만 있을 그런 곳을 생각했었다. 우리 역사사랑은 거창 신원의 거창양민학살현장을 다녀와서 바로 일반인에는 '곰실' 이라고 더 잘 알려진 거창에 있는 덕천서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막상 차를 타고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잘못 된 것을 느꼈다. 도시외곽 촌동네에 비포장도로가 아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큰길, 그리고 그 길 위로 있는 차들의 물결, 내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에서 내리고는 알았다. 커다란 건물, 많은 사람, 그리고 기리 좌우로 깔린 벚꽃나무들... 완전 유원지에 놀러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구 흥분이 되고 그랬다. 어린 애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고도 싶었고 군것질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기와지붕으로 된 큰 건물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기분이 사라졌다. 어쨌든 우린 흠어져 덕천서원을 구경하기로 했다. 우선 내 눈에 들어온 건 많은 벚꽃이었다. 서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벚꽃은 색깔도 예뻐고 호기심도 생겼다. 옛날 서원에 학생들은 이 벚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건 커다란 연못이었다. 연못 주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도 보였다.

그걸 한참 보다가 우리는 다시 모여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이 점심이 압권이었다. 사람들은 꼭 차있고, 먹을 자린 없고, 찾다 찾다 실패한 우리들은 그냥 서원 길에 앉아 밥을 먹기로 했다. 서원 큰길 한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그 곳에서 우린 비빔밥을 만들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마구 퍼먹었다. 숨 좀 쉬면서 먹어 라고 최보경 선생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게 나는 아직까지 좋은 추억거리로 내 기억에 남는다. 밥을 먹은 우리는 바로 노래방으로 가서 놀다가 학교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런가 덕천서원에 대해 내 느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밥 먹고 꽃구경하고 온 것만 기억에 남을 뿐이다. 막 들떠서 유학을 배우고 그러던 서원에 대해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매우 아쉽고 나중

에 기회가 생기면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다. 하지만 무척 재미있었다.

역사사랑



따스한 봄별, 화창한 날씨, 활짝 핀 벚꽃, 그리고 덕천서원...

문화역사 탐방 4 - 광주 망월동 묘역

그날의 함성과 결연한 의지를!!

정재원(역사사랑 부회장, 고1)

5월 16일 일요일 아침, 우리 역사사랑은 그 어느 답사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건 이제까지의 답사 중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겠지만 뭔가 망월동이라는 무거움과 영령에 대한 숙연함 때문일까... 광주민중항쟁은 신군부 세력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건이었다. 광주민중항쟁 때 신군부는 살상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 천명의 광주시민이 희생당한 우리 현대사의 상처이자 민중의 힘으로 민족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한 자랑스런 항쟁이었다. 광주민중항쟁, 그날의 치열함을 그대로 보여 주는 망월동 묘지를 가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에 대한 감사함을 고귀한 영령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못다 이룬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닐까?

전날 우리는 최보경 선생님과 이번 답사의 의의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출발하기 앞서 사전 준비를 했다. 교육선전부장인 은아는 봉고차에 붙일 알림 글을 만들고 점심준비도 하였다. 봉고차 창문에다 “간디학교 역사사랑 5.18광주민중항쟁 광월동 순례단” 이라는 알림 글을 붙이고 우리는 긴 여정을 떠났다. 나는 학교에서 광주에 가는 동안 등받이가 부서진 의자에 의지해서 약 3시간을 잤다. 광주에 도착해서 우리는 망월동 구 묘역으로 향했다. 구 묘역 옆에는 정부에서 만드는 신 묘역이 있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기념관도 있고 영상실도 있지만 우리는 5월을 느낄 수 있는 구 묘역(원래 망월동 묘역)으로 갔다. 망월동 묘역에는 벌써 수많은 참배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순례단을 보면서 ‘역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월동 묘지는 생각보다 초라하고 무덤이 굉장히 많았다. 그곳에는 광주민중항쟁 때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광주민중항쟁을 알리다가 죽어 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죽은 사람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목숨까지도 희생한 용기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곳에는 선생님 후배라는 분도 계셨다. 신 묘역에 가서 지하의 영상실에 갔는데 그곳에는 5·18당시의 사진들과 비디오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계엄군들에게 구타당해서 여기저기 멍든 사진, 총에 맞아서 얼굴의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든 사

진, 임신한 여자가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죽임 당한 사진 등 차마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들을 찍은 당시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5·18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 관심 있게 보았다. 묘지 옆에 돌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엔 광주민중항쟁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우리도 그곳의 돌에다 우리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 기념사진도 찍었지만 맘은 조금 무거웠다. 광주매일신문 기자가 우리 일행을 보고 약간의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가사 문화권의 한 곳인 소쇄원을 경유해서 학교로 돌아 왔다. 학교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하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스러져 갔겠는가?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란다’ 는 말에 공감이 갔다. 역사사랑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 영령 앞에서 묵념하는 우리들...

문화역사 탐방 5 - 진주성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지선(역사사랑 총무부장, 고1)

유난히 무더운 날씨였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움직이기도 싫었을 테지만 역사정신 하나로 역사사랑 회원들은 봉고차에 억지로 몸을 끼어 진주성으로 갔다. 여태까지 진주라는 곳이 나에게는 놀 공간이라는 관념이었기에 작은 도시지만 그 속에 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입장료(한 사람 당 300원)를 계산해서 지불하고 진주성 입구를 통과했다. 그러나 모두가 지리를 몰라서 그 넓은 진주성을 해매다가 겨우 박물관을 찾았다. 땀별 아래에서 모두들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걷고 있던 도중에 어킨 바람으로 식혀진 박물관을 발견함과 동시에 갑자기 기운이 나서 박물관으로 뛰어 들어갔다. 박물관은 2층에서부터 관람하기 시작해서 1층에서 끝나게 되어 있었다. 안에 전시 되어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임진왜란 관련 무기류, 전적 및 서화류, 도자류 등의 임진왜란 유물들이 많았다. 전쟁에 관한 것치고는 아주 이쁜 것도 있었다. 내가 가장 맘에 들었던 것은 '철퇴'라는 것인데, 병사들이 휴대하여 유사시에 사용하는 곤봉류의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 끝의 둥근 부분에 새겨진 문양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금속을 저렇게 다룰 수 있는 기술에도 놀랐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다. 하나하나 차근히 관람하고 나서는 축석루에 가기 위해 다시 땀별 속으로 걸었다.

축석루에 도착했을 때, 그늘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서 냉큼 달려 올라갔다. 신기하게도 바람한점 없었는데 그곳에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끊이지 않고 불고 있었다. 조용히 강물을 바라다보며 땀을 식히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웬일인가 싶어서 아이들을 따라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의암' 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낮은 암벽과 조금 떨어져 있는 약간 큰 바위였다. '의암' 은 임진왜란 당시, 기생 논개가 일본 왜장을 그 바위로 유인해 끌어안고 강물에 함께 뛰어든 역사적인 곳이다. 거기 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전설이 생각났다. 그 바위가 암벽에 닿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말일 것이다. 그 근거를 조사해보니 바위의 뿌리가 매우 깊이 있어서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생긴 말인 것 같다. 논개

언니를 생각해보니 아주 존경스러웠다. 그 시대에는 여성의 위치가 남성보다 낮았기에 인정못받았던 때이지만 여성의 몸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한 몸 바친 것에 대해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 어느새 점심이 되어버렸다. 좀 더 남아 있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미련을 남긴 채 그곳에서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보고 지나쳐버리지 말아야겠다. **역사사랑**



색다른 진주 박물관이었어요. 자, 웃어요...

문화역사 탐방 6 - 영호남 청소년 영상교류

지역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정재원(역사사랑 부회장, 고1)

지역차별 극복을 위해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주최하는 영호남 청소년 영상교류에 참가하게 되었다. 금요일날 점심을 먹고 대철버스를 탔다. 약 3시간 가량을 버스를 타고 앞으로 우리가 2박 3일 동안 머물게 될 광주 청소년 수련원에 도착하였다. 대구와 광주의 학생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곧 광주와 대구의 학생들이 도착하고 조별로 나누어져 숙소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환영식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축사가 끝나고 우리학교 그룹사운드 나탈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베이스 앰프가 터지는 바람에 약간 지연되었다. 나탈의 공연이 시작되자 관람석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청소년 영화제 상영을 하였는데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 환영식이 끝난 후에는 끼를 발산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 시간이 이어졌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다. 굵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행사 진행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으나 우리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버스를 타고 5·18 묘역을 찾아갔다. 5·18 묘역은 3번 정도 다녀갔는데도 올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들었다. 묘역에 들어서자 모두들 숙연해졌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참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다. '역사의식을 갖는 청소년이 되자'라는 주제로 5·18재단 윤영규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의 역사의식을 복돋아주었다. 망월동 묘지로 가서 수천 개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민주화를 위해 피흘리며 쓰러져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가사문화권인 운주사와 소쇄원에 갔다. 운주사는 와불이 유명한데 그곳에 문화재들은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칠성바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소쇄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담하고 예쁘다는 것이다. 옛날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답사 일정을 마치고 영남지역 친구들은 호남지역 친구들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나는 형들과 맥지의 사무장이라는 분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아저씨랑 같이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불렀다. 그 집에 5살 짜리 꼬마가 있었는데 정말 귀여웠다. 꼬마랑 같이 노니까 나

보고 아빠 같다고 했다. 이 젊은 나이에 아빠라니....

마지막 날, 처음 만났던 청소년 수련원에 다시 모여 '21세기 청소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나창주 전 건국대부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맥지청소년영화제 시상식을 관람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것은 우리학교 연극부의 '교실이데아'였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오자 친구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버스에 올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들의 많은 정을 느끼면서 진정한 지역 화합과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역사사랑**

문화역사 탐방 7 - 대구 풍물굿 한마당

우리 것이 제일이어

심은아(역사사랑 교육선전부장, 고1)

제 6회 대구풍물굿 한마당은 10월 16일부터 17일 까지 1박 2일로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 풍물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손진근(풍물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우리 것을 몸소 체험하러 역사사랑과 중고풍물부가 함께 갔다. 첫 합동 답사 및 같은 부류에 속해있는 동아리이기에 함께 가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대구에 도착해서 대구대학교 옆에 있는 골목길 식당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한 후 풍물굿을 보러갔다. 푸짐한 비빔밥 한 공기, 즉석 된장 찌개, 후식으로 야쿠르트까지... 2,000원 치곤 엄청나게 맛있는 밥이었다고 본다. 보경쌤 대학시절엔 그 메뉴가 900원 이었다며 단골집이라고 하셨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길놀이와 개막고사는 보지 못했으나, 초청공연인 봉산탈춤을 제 6막부터 보기 시작하여 약 2시간동안 풍물굿 연합공연들을 보았다. 풍물굿 공연들은 간디 풍물부를 주먹으로 한방 먹인 듯 모두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단합이 잘된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북과 장구를 쳤던 언니들이 기억에 남는데, 장단에 빠져 치는 그 열정을 본받고 싶었다. 갑작스레 기온이 낮아지면서 옷을 얇게 입고간 난 싸늘한 바람과 씨름을 하면서 계속 공연에 집중했다.(그러나 나는 이 답사를 계기로 편도선에 심한 염증까지 보여 매일 주사를 맞으며 약과 굼음을 견뎌내야만 했다!) 공연이 끝난 후, 중학생들은 지훈이네 집으로, 고등학생들은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고당은 뭐니 해도 곧장 잠을 청할 분위기는 아니어서인지, 약속한 것 마냥 노래방으로 발걸음을 돌려 약 1시간 반 동안 목청이 뒤집히도록 열창을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보일러도 켜지지 않고 방도 겨우 3사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 언제 역사사랑이 찬밥 더운밥 가리던가! 누워서, 반 접혀서 새우잠으로 때워 아침 일찍부터 몸이 무거웠다.

지훈이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정성껏 아침을 마련해 주셔서 17일 아침은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했다. 17일 행사들은 다양했다. 민속놀이 마당으로 널뛰기, 줄넘기, 투호, 제기차기 등등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즉석 풍물 잭이 뽑기, 길놀이, 개막고사, 소원줄, 전서거리, 입거리터(우리옷) 등등 여러 공연 및 흥겨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

다. 지훈, 영석, 재원, 영찬, 국규, 태영 군들은 널뛰기 판을 깨뜨릴 정도로 열심히 뛰다 판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슬그머니 하산하였다. 투호는 대나무로 만든 활같이 생긴 나뭇가질 병 속안에 던져 넣는 것인데, 10번 시도에 1번 넣기도 벅찬 집중력을 발휘하는 놀이었다. (참고로 우리의 기록은 2개였다.) 우리옷을 좀더 싸게 파는 곳이 있었는데, 곱고 수수한 색깔로 진열되어 시선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보게된 풍물공연... 그래도 하루종일 풍물과 보내려면 아쉬워서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를 빌려 그 주변 광장에서 해가 지도록 놀았다. 얼떨결에 두발 자전거를 빌려 탔는데 의외로 스트레스 해소 및 단합에 시간을 갖아서 좋았다. 사진기로 그 예쁜 추억을 담으려 애를 많이 썼는데, 특히 한 장의 완벽한 포즈를 취하기 위하여 몇십 바퀴 돌게 만든 손뼉... 비록 사진은 못나왔지만 웃음은 많았다. 역시 우리 것이 소중한 우리 몸에 맞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역사사랑

문화역사 탐방 8-구미 발굴 현장

내가 발굴을 하다니

박지훈(역사사랑 답사부장,고1)

우리의 사랑스런 동아리 '역사사랑' 이 구미에서 고고학적 유물을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름 아닌 우리 역사동아리의 사부, 최보경 선생님께서서는 대구대학교 박물관 주관 하에 구미에서 발굴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동아리가 꼭 갔으면 좋겠다며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책 속의 유물과 발굴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다여서 실제로 발굴 현장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다. 암기과목으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 왔다. 어디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경험해 보는 건 어찌면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결정적으로 거기에 가게된 이유는 바로 나의 강력한(?) 주장 때문이었다. 나는 고고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싶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멋진 최보경 선생님과 우리는 구미로 발굴 답사를 가게 된 것이다.

드디어 출발! 아이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상당히 기대에 들떠 있었다. 이번 답사는 광주 망월동 묘역 다음으로 아니 더 먼가? 하여튼 길을 몰라 중간 중간 헤메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구미에 도착하였다. 오는 길에 배가 고파 어느 이름모를 공원에서 점심을 맛나게 먹고 도착! 어여쁜 누나(대구대학교 박물관 황정숙 선생님)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누나는 선생님과 잘 아는 듯 했다. 그리고 누나와 만나기 전 우리는 역사사랑 역사상 처음으로 고려시대 유물로 보이는 검은 색이 섞인 비취색 도자기 조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 역사적인 유물을 그 자리에 나누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견된 곳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안 사실!! 발굴 현장에서는 유물을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누나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먼저 누나는 이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하게된 경위를 말씀해 주셨다. 원래 이곳은 학교를 지을 대지라고 하셨다. 그러데 먼저 이곳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하여 지금 대구대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 구미발굴 현장에는 유물이 3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제일 오래된 것은 삼


한초기 유물로서 부족 또는 초기국가들이 난립하던 시기의 유물들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대가 좀 더 지나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 유물과 고려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 때의 유물, 조선시대 사람들의 유물이 나오기도 한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여기는 일종의 공동 묘지라 할 수 있다. 여러 시대의 유물이 혼재되어 나오는 이유는 후세들이 이 곳이 과거에 묘지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높은 사람일수록 무덤의 위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설명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산봉우리에 가보니 그 산봉우리 위에 또 봉우리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와 거기에 있던 다른 무덤과는 상대도 안될 만큼 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무참할 정도로 도굴되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바로 말로만 듣던 도굴꾼의 소행이란다. 그런데 도굴꾼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옛 무덤으로 보이는 곳을 막대기로 찢러 유물이 있는 것 같으면 도굴해 간단다. 그래도 도굴꾼들이 보물만 도굴하면 되지만 무덤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무덤의 형태와 지위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다. 도굴은 정말 비역사적이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너무 많이 훼손시켰다 라고 비분강개하셨다. 발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잘 보니까 도굴꾼이 큰 무덤은 도굴해 갔으나 땅에 깊이 파묻힌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물을 발견 할 수 있었을까? 먼저 그곳에 유물이 발견되면 땅을 조심스레 하나 하나 긁어내면 신기하게도 시대별 결이 나타난단다. 그러면 그 결에 따라 파게되면 유물이 나오게된단다. 유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젠 손으로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한다. 그래서 유물이 위치나 유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라며 강조하셨다. 특히 금속 종류인 철은 땅에 있으면 천천히 산화되지만 금속이 땅위에 나오면 공기로 인해 빨리 산화된다. 그래서 빨리 금속이 나온 곳을 금속과 함께 사진을 찍고 약품 처리를 해야한다. 휴우 !!! 그리고 유물들을 깨끗이 한 다음 박물관이나 민속 자료실에 보관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는 역사 연구실에서 다 발굴한 다음이라 그 자리를 청소를 깨끗이 했다. 왜냐하면 그 유적의 형태를 경비행기를 타고 고공에서 사진을 찍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략 설명을 다 듣고 나서 4개의 조로 나누어 각 담당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직접 발굴 작업을 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발굴 작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다. 흙, 먼지를 하나하나 털어 내고 손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발굴 현장 선생님들께서 너무 친절히 잘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가

넘기 전에 우리는 유적과 유물에 천을 덮어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했다.

작업 종료!! 고마우신 발굴 조사팀 팀장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다.

나와 우리 역사사랑은 이번 발굴조사 현장체험을 통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 너무좋은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신 대구대학교 박물관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적들을 조심스레 발굴하는 우리들...깨뜨리면 큰일나요~

문화역사 탐방 9 - 탁본

탁본은 정성입니다.

박지훈(역사사랑 답사부장, 고1)

우리는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다른 준비물들은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었으나 솜방망이는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해야 했다. 그것은 천과 솜 외에 다른 어떤 부드러운 것을 천에 싸서 만드는 데 적절한 양을 사용해야 했다. 그 작업이 다 끝나고 그 외의 것을 다 구비하고 출발하는데 먼저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탁으로 문화재 관리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허락을 받고 할 곳에 도착 거기에는 비석들이 오기종기 모여있었다. 도착한 우리는 조를 나누어 비석 하나씩 골라잡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내가 고른 것은 깨끗해 보였으나 그래도 보기 보단 힘들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면 간단하다.

더러우면 탁본이 될 일이 있겠는가 이런 고생을 하고 나서 두꺼운 한지를 붙이고 비석에 고정시키고 1.물을 뿌리고 2.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1.고정을 시키고 2.공기가 한지에 있으면 탁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초보자였다. 하는 도중에 너무 세게 두드리려 한지가 찢어지고 살살해 공기가 안 빠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 다음 단계는 두개의 솜방망이 중 작은 하나를 먹물에 묻혀 다른 큰 솜방망이에 살짝 묻혀 툭툭 쳐주며 탁본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도의 먹물조절을 해야하나 우리는 그걸 못해 우리 조는 한지가 먹투성이가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다하고 다시 학교로 출발했다. 그러나 우리의 최보경 샘은 아쉬워하시며 원래는 4시간이 아니고 6시간은 걸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힘들었지만 이런 문화 체험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과 우리동아리에 소중한 체험이었다.

역사사랑 파이팅!!!



문화역사 탐방 10 - 나눔의 집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을 만나다

이지선(역사사랑 총무부장, 고1)

11월 첫째 날 흐린 아침, 약간의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고1이 체험학습을 위해 출발하기 때문이었다. 체험학습 목표지는 경기도 광주군의 '나눔의 집'이다. 그 곳은 위안부 할머니들 아홉 분과 혜진 스님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역사와 봉사'라는 테마로 그곳을 가게 된 것에 대해 나는 너무나 기뻐다. 원래 '나눔의 집' 방문 계획은 역사사랑에서 먼저 제기 되었던 문체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가기에 는 거리 상 무리가 있어서 매우 아쉬워하던 차에 체험학습이라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경남에서 경기까지 약 5시간이 걸렸다. 아주 먼길을 하늘과 산만 보이는 도로를 계속 달려왔음에도 할머니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에 피곤한 줄 몰랐다. 길을 어렵게 찾아다니다가 겨우 도착했을 때 강아지 3마리가 가장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할머니들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촬영 때문에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혜진 스님과 상근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나눔의 집'은 생각보다 매우 예뻐다. 우리 학교처럼 산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 역시 아주 맑고 찻다. 할머니들의 생활관 (가)동, (나)동, 통나무집, 수련관, 법당, 역사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수련관과 통나무집을 숙소로 정하고 3박 4일 동안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먼저 인사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니깐 할머니들께서도 우리를 꺼리시던 모습들이 없어졌다. 나 또한 이 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일반 할머니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이곳의 할머니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청춘이 있었다. 아름다운 청춘을 다 뺏겨 버린 그들이 이제서야 청춘을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할머니들에게서 우리는 몸서리치는 증언들과 함께 지금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을 시작한 1931년,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그 군인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위안소' 라는 것을 처음 설치한 것이다. 위안소는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중국, 남양군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일본군 주둔지)에 설치되었다. 일본인들은 위안부를 일본여성 일부 를 빼고 동원하지 않았다. 그 일부도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공창의 여성들

만을 동원했다. 그리고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는 사기와 납치가 주된 방법이었다. 이렇게 끌려간 소녀들의 나이는 대부분 15세에서 19세 사이였고, 11세의 어린아이도 있었고 20세가 넘는 아기 엄마도 간혹 있었다. 이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겨우 침대 하나 놓여 있는 방에서 땀을 하루에 60명의 군인까지도 상대했다. 일본인들은 성병에 걸린 위안부들을 갖은 방법으로 죽였다. 우유에 청산가리를 타서 마시게 한 다음, 굴에 몰아넣어 수류탄을 사용해 굴을 폭파시키거나 잠수함에 넣어 몰살시키기도 했다. 위안소에는 사용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은 위안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자신들만 전쟁터에서 탈출했다. 남은 위안부들은 기를 쓰고 귀국의 길을 찾았으나 그 중에서는 귀국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많았다. 만주에 있던 한 할머니는 너무나 추워서 군인들이 버리고 간 내의, 양말 그리고 운동화까지 주워서 몸에 걸치고 다녔다고 한다. 고국에 돌아온 경우에도 버림받은 삶을 살아야 했다. 여기서 내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다. 이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인 또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할말은 없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전쟁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쟁으로서 자본주의나 인권 여성 권의 무시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회피보다는 당당하게 진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악랄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현재 사과와 배상을 얻기 위해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고 계신다.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서 시위하는 수요 시위나 나눔의 집 소식을 알려주는 정기 간행물 등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는 반응이 없다. 이를 수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수요 시위에 참여 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때가 일본 대사관의 휴일이어서 시위가 없었다. 아주 아쉬웠다. 할머니들의 이런 가슴아픈 증언들은 역사관을 관람하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역사관 입구와 출구 옆에는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었다. 입구 옆에는 할머니가 칼 4~5개 찢려서 있는 모습이었다. 할머니의 몸을 관통하고 나온 칼끝에는 저고리와 치마가 찢긴 채 걸려 있었다. 그 당시 할머니들의 수모를 말하는 것 같았다. 출구 옆에는 할머니가 족두리를 차고 곱게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할머니들의 빼앗겼던 청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고나람은 지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상실에서는 영화를 보기로 되어 있었으나 볼 수 없었고 그대신 위안부에 대한 한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다. 정신대는 당시 일본에서 우리 나라 처녀들을 끄셔내기 위해 썼던 노동부를 말하는 것이다. 위안부는 성적 노예로 잡혀간 것을 의미 하지만 정신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이에 주의해서 웬만하면 앞으로는 위안부라 불러 주기 바라는 바이다. 지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위안소의 모습을 그 당시 분위기까지 그대로 재현한 곳이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 침대 하나 겨우 들어 갈 수 있는 방에 다 녹슨 세숫대야, 걸레보다 더 더러운 수건, 아주 어두 침침한 노란 백열전구의 조명이 다였다. 조용히 침대에 앉아서 그 당시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잔인했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 무서워 그곳을 빨리 빠져 나와 1층으로 올라갔다. 1층에는 어떤 예술가가 만든 할머니들을 의미하는 작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과 손바닥이 찍혀 있는 황토판, 할머니들의 사진, 그리고 최초 증인이신 할머니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머니의 한과 바램을 느낄 수 있었다. 감정이 벅차 오르는 바람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2층 관람을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부터 시작해서 3층은 모두 할머니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故강덕경 할머니의 작품이 아주 많았다. 생전에도 그림을 매우 좋아하셨던 터라 그림 그리는 것이 하루 일과이셨다고 한다. 지금은 그 당시의 상처로 생긴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말이다. 그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보니 그 속에는 청춘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서의 설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중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그림은 강덕경 할머니 작 ‘빼앗긴 순정’, ‘책임자를 처벌하라-평화를 위하여’, 김순덕 할머니 작 ‘못다핀 꽃’ 이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못다핀 꽃’ 은 나눔의 집 마당 한가운데 동상을 세워져 있을뿐더러 나눔의 집의 마스코트가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빠져린 아픔들을 맛보고서 역사관 관람을 마쳤다.

3박 4일 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지금 내 모습에 대해 할머니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실을 밝혀 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측면에서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적이기보다는 좀더 논리적으로 진실되게 생각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까 말했듯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역사사랑

문화역사 탐방 11 - 소쇄원

애인과 함께 소쇄원을

신지현(역사사랑 총무부차장, 고1)

5월 16일 일요일.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 후 열심히 붓고 바퀴 굴러 도착한 곳!

이름도 어여빠라 소쇄원이라네.... 조금 전까지 경건하고 숙연했던 분위기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소쇄원의 아름다운 풍경에 다들 감탄하기 바빴다.

담양군 남면 지곡리 지석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소쇄원!!

소쇄원은 종종때 소쇄처사 양산보가 만든 별서 정원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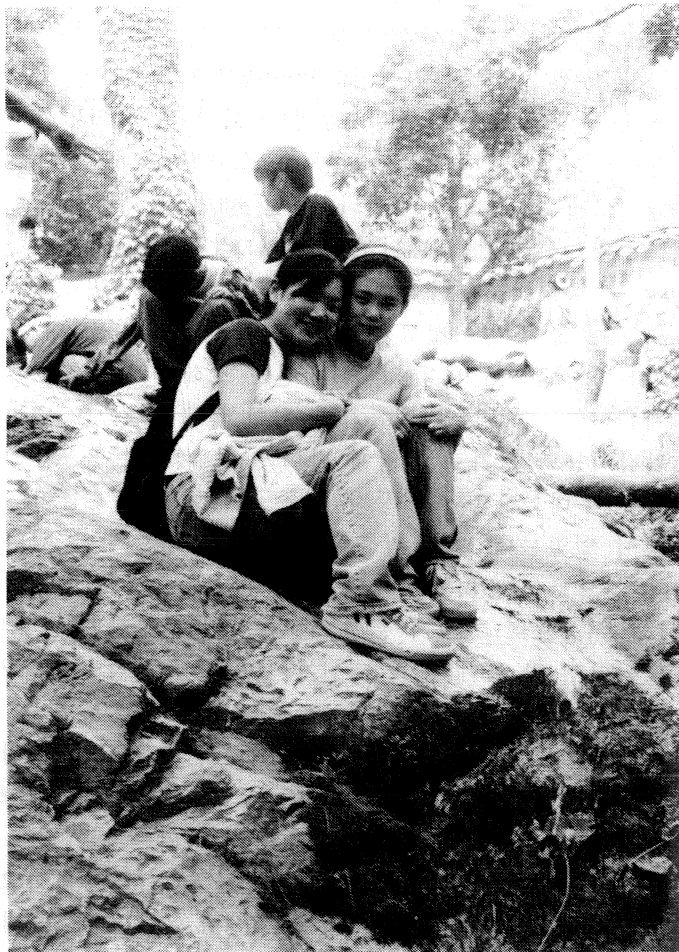
1983년 사적 제 304호로 지정되었으며 양산보는 손가락을 놓기 직전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고 하나라도 상함이 없게 할 것이며 어리석은 후손에게도 물려주지 말라”고 유언했을 정도로 소쇄원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

소쇄원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외원, 내원, 부대공간으로 말이다. 외원은 진입도로와 쪽쪽 뺀 대나무 행렬을 거쳐 대봉대라는 모정에 이르게 된다. 대봉대 남쪽에는 두 개의 크고 작은 방치가 있고 반대편 북쪽에는 계류를 흐르는 물이 떨어지고 고이는 인공적인 수경을 대봉대와 광풍각에서 감상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내원은 소쇄원의 주공간이며 내원의 주공간은 계류이다. 주공간인 계류가에 위치한 광풍각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팔각지붕의 정자로 중앙에 방이 있어 계천의 폭포와 대봉대를 조망할 수 있다. 부대공간은 고아풍각 뒤쪽 담밖에는 후손들이 지은 고암정사와 부원당이 있었는데 현재 건물을 없어져 빈터로 남아 있다 이곳은 사학의 전수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주위가 대나무 숲으로 에워싸여 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굵고 긴 많은 대나무를 봤나보다. 얼마나 대나무가 많았던지 잠시 내가 작은 난쟁이가 되어 풀밭 속을 거닐 듯한.... 우리학교 만큼이나 푸르던 곳이었다. 맑은 공기하며 파란 하늘...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웠던 풍경이었다. 소쇄원의 그림 같은 풍경들을 조금이나마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듯 역사사랑을 막론하고 소쇄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플래시 터지는 빛에 소쇄원은 번쩍번쩍 거렸다. 그래서 소쇄원이 이뻐 보였나?!! 아무튼 진정 한국의미를 느끼고 싶으신분은 여기를 찾아주세요. 평생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멋진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생기면 꼭 와보세요. 정말 죽이는 데이트 코스랍니다.

여기서 사랑고백을 한다면 누구라도 뽕 갈꺼얌~ 어머 부꾸러워얌~~

역사사랑



너무 좋아, 소쇄원~ 또 가고 싶어요!

간디인과 함께 1

4월의 함성

편집부

해마다 4월이 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 얼마 전 교과서 개정 때 어떻게 실어야 할 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4.3항쟁과 4.19혁명이다. 이 두 사건의 진실과 의미를 바로 알자는 뜻으로 행해진 조그만 대회가 이번 “사월의 함성”이다. 사실 관심을 가지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다. 이제까지 그냥 지나쳐 버리기만 했던 4월이었는데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사월의 함성은 먼저 우리 동아리가 간디인과 함께 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동아리는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간디인과 함께 역사를 고민하고 왜곡되고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사월의 함성은 부족하지만 간디인과 함께 하는 첫 번째 행사였다. 처음이라 너무 간디인이 함께 해 줄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모른다. 강당에다 사월의 함성에 대한 대자보를 붙였지만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까 속으로는 조마조마 한 것도 사실이다.

사월의 함성은 4.3항쟁과 4.19혁명에 대한 간디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장르로 표현하던 자기 자유였다. 그건 마치 4.3항쟁과 4.19혁명의 자유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각종 형태로 ‘4월의 함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간디인의 의견이 속속 모아질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4월은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간 달이다. 먼저 4.3 항쟁은 아직도 교과서에는 사태나 폭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다. 역사의 왜곡과 은폐 속에서 진실의 규명여지가 너무도 4.3 항쟁이다. 우리 역사사랑은 최보경 선생님의 도움으로 4.3항쟁에 대한 내용을 Red-hunt라는 비디오를 통해 미흡하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덕구 유격대장이 사살됨으로써 4.3항쟁은 막을 내렸지만, 4.3항쟁의 의의는 아직 우리들 가슴에 남아 흐른다.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명령 하에 무차별 학살로 제주도민의 약 8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었다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토록 잔인하게 그리고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4.3을 잊지 않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참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많은 거짓 속에서 아직도 하나 확실한 것은, 제주도 섬은 진실과 억울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않는 이상은 결코 편히 잠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든 또 다른 사건, 바로 4.19혁명이다. 부정한 정권의 잔인성 앞에서도 무릎을 굽히지 않았던, 민중승리의 역사이다.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당한 권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민중의 힘 때문일 것이다.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대회에 참여해 준 친구들이 많았다. 더욱 기쁜 것은 참여한 간디인이 4월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통해 투표로 최우수 1명과 우수상 2명을 뽑았다. 최우수상에는 중2의 안준영군이 우수상에는 역시 중2의 김정은 강윤나 양이 수상하였다.

이번 행사를 나름대로의 진지한 자신들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학생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역사에 관련된 대회를 많이 열었으면 한다.

4월은 소리를 지른다. 승리와 진실을 갈망하는 함성을!!!!



4월의 함성 - 최우수상 당선 소감 글


감사합니다

안준영(역사사랑 교육선전부원, 중2)

때는 4월이다. 역사사랑에서 4.3 항쟁과 4.19 혁명을 주제로 한 '사월의 함성'이라는 글짓기대회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역사사랑 회원도 아니었고 그 대회에도 그리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 당시 상품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만 알았고 추후도 참가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그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작품을 만들었다. 동아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대단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참가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대략 작품의 형식은 힙합 등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피티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다. 물론 작품내용은 4.19 혁명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하려 했는데 하다보니 현재 이 시간까지 주제에 들어갔다. 풍자하는 형식으로 그림과 글로 썼는데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칭찬을 했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다. 내 작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모든 곳을 세밀하게 보아야 하는 점이다. 그건 워낙 조그맣게 작품을 만들어서이다. 여러 각도로 작품을 감상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내 작품을 보고 공산당이니 무정부주의자라느니 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단지 인간 안준영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뽑아준 역사사랑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는 나도 역사사랑이니 다 함께 역사사랑을 위해 일합시다!! 

4월의 함성-우수상 당선 소감문

민주주의를 그리며

김정은 강윤나(간디학교 학우, 중2)

이렇게 글을 쓰려니까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한 기분이 든다. 하하 ^^; 일단 '4월의 함성'이라는 행사를 마련하신 최보경 선생님과 역사사랑 회원들이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덕분에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노래가사를 개사하기로 했다. 사실 좀 오래된 일이라 가사 내용과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질 않는다. 죄송, 죄송.

솔직히 한참동안 미루다가 마지막 마감 날에 부랴부랴 개사를 하느라 바빴다. 우리가 개사한 노래의 원곡은 '그날'이라는 옛날(?)가요이다. 장중하면서 무거운 느낌이 우리가 하려는 주제에 맞았다.

최보경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자료를 읽고 어떤 식으로 써야할까 고민도 많았다. 그런 결과, 마산 바닷가에서 최루탄에 박혀 죽은 김주열 학생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개사를 하기 시작했다. 군대.... 정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종이 위에 적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정치란 게 이런 걸까?' 어찌면 우리 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인보다 더 나쁜 게 우리 나라의 부패한 정치인들 그들이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잘 살고 있고, 가난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사형 당하는 이런 현실도 다 자기 밖에 모르는 정치인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개사를 마치고 그날 밤 장혜선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피아노와 함께 개사한 노래를 밤 늦~게 늦~게 연습 또 연습해서 녹화했다. 그리고 나서 최보경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다.

역사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역사사랑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글쓰기 싫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최우수 작품상

안준영

4.3제주항쟁 진실규명과 4.19
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4월의
함성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
정받아 상과 상품을 드립니다.

1999년 4월 27일

달리는 정춘, 실전하는 청년의 삶
역/사/사/랑



우수 작품상

김정은 강윤나

4.3제주항쟁 진실규명과 4.19
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4월의
함성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
정받아 상과 상품을 드립니다.

1999년 4월 27일

달리는 정춘, 실전하는 청년의 삶
역/사/사/랑

미완의 혁명, 4.19(월곡-그날)

전 국토에 손잡고 시위한 모습도 아스라히 죽어 가는
소중했던 사람들을 돌이켜 그려보네.

치열했던 시위와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의 눈빛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열 학생의 참살은 혁명의 도화선 됐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는 치를 떨게 할 사건

우~

미완성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서막 됐고,
자유의 비결은 용기라고 가르쳐 준
혁명은 진행된다. 혁명은 진행된다!




간디인과 함께 2 - 기말축제 전시회.

역사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다!

심은아(역사사랑 교육선전부장, 고1)

역사사랑이 맡은 첫 기말축제를 어떻게 장식할까 고민하다 집행부와 보경쌤은 결론을 내렸다. 역사사랑 일동의 전시회 및 비디오 상영이 적합할 것이라 예상하고 빨리 전시 진행을 했다. 산청 유적지들, 탁본 전시 및 답사일지, 역사사랑이 다녀왔던 답사일지 및 사진, 동아리 글 그리고 '4월의 함성' 글짓기 및 그림 대회들로 크게 나누어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어중간하게 짜여진 역할 분담이었는지는, 역사사랑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교육 선전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일들을 함께 했다. 역사사랑 멤버들은 원고를 써서 내주며 일 진행은 별 착오 없이 되었다. 각자 다녀왔던 답사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기본으로 해서 몸으로 배우는 일까지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여태껏 다녀왔던 답사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끝없는 추억을 만들었던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밤낮 구분 않고 우리 모두 희생하여 "최고의 동아리 합작"이라는 달가운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성취감과 보람을 많이 느꼈다. 특히 20장 넘게 대자보를 쓴 나에게겐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칭찬이었다. 아무리 그 한동안 매직 냄새에 질어 머리 아파하며 다녔어도,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한 멤버들을 생각하며 꾸준히 일을 했다. 그 중에 일어났던 많은 에피소드 중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금새 입가에 미소가 진다. 힘들고 졸려 죽겠는데 오밤중에도 찾아와 대자보 좀 쓰자고 날 부르시던 책임감이 강하신 보경쌤...

"은아 남자~ 달도 밝고 보다시피 내일 모레면 전시회인데, 대자보를 아직 다 쓰지 못했으니 어디 한번 계속 쓰러 가지구려!"

답사를 다녀온 곳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 원고들을 정리하면서 벌써 역사사랑이 간디학교에 커다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역사사랑 회칙으로 정한 듯 모범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새벽 일찍 식당에 대자보를 붙이신 분들, 원고들을 써주신 역사사랑 멤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주신 집행부... 모두 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역사사랑 파이팅! 

자유기고 1

이 글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회보담당 간사로 일하고 있는 본인이 월간 맥지 26호('99년 11월)에 실은 내용입니다. 맑은 공기를 벗삼아 산야를 뛰어다닐 간디학교 친구들이 눈에 선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역사사랑동아리'에서 회보를 발행한다니 대견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글이 친구들의 회보작업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패션사전 아님 컴퓨터게임사전 -청소년잡지의 잘못된 출판풍토 엿보기-

김소정(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간사)

“키키나 에꼴같은 패션잡지를 자주 봐요. 거기에 보면 날씬한 옷차림이 라든가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학교 앞 책대여점에서 만난 서연(16, 가명)이는 잡지 여러 권을 이리 저리 뒤적이더니 ‘키키’라는 패션잡지를 집어 들면서 이렇게 말한다. 서연이 외에도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곧장 대여점 안으로 들어선 교복차림의 여학생들이 여러 명 눈에 띈다. 책대여점 주인인 서상기 씨에 따르면 아이들은 다음달잡지가 나오기 전부터 예약까지 해놓고 앞다투어 빌려갈 정도로 잡지를 즐겨본다고 한다.

울타리없는 청소년잡지

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학습, 과학, 교양, 정보, 만화, 취미, 연예, 스포츠 등 갖가지 종류가 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갖는 것에서부터 방금 막 시작한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러나 청소년잡지의 범주를 정확하게 규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이 모호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호를 거듭하여 간행되는 정기간행물이 6,338종(일간지 제외, 3.31 현재 문화관광부집계)에 이르지만 청소년잡지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잡지’란 단순히 아동기에서 성년기에 이르는 과도기를 포함한 9-24세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잡지는 당연히 주체인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취향, 사고방

식 등을 그들의 입장에서 반영하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텐데, 과연 청소년들은 청소년 잡지를 통해 얼마만큼 유익한 내용들을 얻고 있는가.

성인잡지 따라잡기

10여 년 전인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청소년잡지는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 단지 오락기능만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YWCA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서울 YWCA, 「청소년잡지 실태조사」, 1989)에 따르면, 응답자의 가장 많은 57.9%가 청소년잡지 열독이유를 청소년잡지의 연예오락기사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지라는 특수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성인 오락 잡지가 즐겨 다루는 오락성 기사로 내용을 채우는 등 청소년잡지 문화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90년대 중반 즈음에도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잡지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건강다이제스트, 레이디경향, 선데이서울, 영레이디, 주니어와 같이 오락성이 짙고 가벼운 대중잡지나 소년챔프, 아이큐점프, 보물섬처럼 주로 만화잡지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잡지로 꼽혔다. (민병덕 「청소년과 인쇄매체」 '청소년과잡지' p263)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어서는 청소년잡지 하면 의례 옷 잘입는 법이나 컴퓨터게임 등으로 가득 찬 잡지로 인식될 만큼 패션잡지나 컴퓨터잡지가 아이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나 일본에서 90년대 초반에 패션을 중심으로 한 잡지가 호황을 누리던 현상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부터는 톡톡 튀는 이름을 단 패션잡지들이 학교앞 문구점에 즐비하게 진열되었다. 그 여파로 소녀들의 일상생활에 '멋부림'이 침투해 아이들 사이에는 영화 '로리타'의 여주인공 패션처럼 소녀같은 분위기에 섹시한 느낌을 가미한 로리타패션을 즐겨 입는 유행까지 생겼을 정도다. 여기에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상징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는 N세대(Net generation)인 요즘 아이들을 겨냥한 컴퓨터 전문잡지까지 가세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잡지의 흐름은 청소년들의 잡지구독 현황을 통해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광주지역 청소년 150명(여80, 남70)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응답자의 50%가 패션잡지를, 남학생 응답자의 41.4%가 컴퓨터관련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합한 전체 통계에서도 패션잡지(연예오락기사 포함)가 40.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게임잡지가 24%, 만화잡지 9.4%, 교양잡지 16%, 기타(시사, 학습 등) 1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잡지 맞아요!

청소년잡지의 시대적인 양상과 이러한 청소년들의 잡지구독 실태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잡지의 현주소,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에게 장래에 대한 꿈을 안겨주는 희망적인 기사보다는 연예, 오락 등 단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흥미위주의 기사중심으로 청소년잡지가 위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기 초에 딸애에게 청소년잡지를 사주려고 서점에 들렀는데 심중팔구는 패션정보나 연예인들의 신변잡기 일색이었요. 경품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죠. 최고의 경품이 연예인과 전화데이트나 채팅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보다 다양한 분야, 아이들의 적성을 살리고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내용을 다루는 청소년 잡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청소년 잡지의 현 출판풍토가 잘못됐다고 본다는 어느 학부모의 얘기처럼 청소년잡지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는 소리들이 높다. 일부 잡지의 경우 심지어 선정, 폭력적인 사진이나 글까지 담고 있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까지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청소년잡지 때문에 빗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요즘 길을 가다보면 성인처럼 짙게 화장한 여중고생들을 자주 봅니다. 화장품 가게에서도 교복입은 학생들이 거리낌없이 색조화장품을 사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유행은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잡지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화장법뿐만 아니라 단발머리 감추는 법 등 학생신분을 벗어난 외형 치장을 소개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잡지를 보고 따라 배우는 것이죠.”(최경란, 광주시 동구 지산동)

이런 현상은 심지어 아이들로 하여금 선정적인 성인잡지까지도 스스럼없이 넘나들게 만든다. 청소년을 불모로 영리를 취하려는 기성세대들의 물질만능주의는 항상 부끄러운 단면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청소년들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행태는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의 상술을 일추 짐작하고도 거기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진우(18)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물론 교양잡지도 몇 권 눈에 띄지만 기존의 청소년잡지는 어른들이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훈육적이고 주입식의 내용들이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볍게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연예, 오락잡지나 컴퓨터게임잡지로 자연스럽게 손이 가죠.”라고 덧붙인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청소년잡지는 과중한 학과공부에만 과몰입 있는 고교생들을 대변하지 못할 뿐더러 숨통을 트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청소년잡지 속에서 단순한 오락기능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눈높이는 맞췄지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그릇된 청소년잡지의 틀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육성을 좀더 생생히 담아내려는 잡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 성향에 맞춘 디자인에 그들의 시각에서 얘기를 펼치는 꿈꾸는 침대, 밥, 우리뉴스 등 청소년잡지나 타블로이드판 청소년신문이 창간되었고 특히나 N세대(Net generation)인 아이들이 즐겨찾는 사이버공간에서 채널텐, 네틴 등 인터넷 웹진이 만들어져 청소년들의 공간을 늘려가고 있다. 매달 10일 10시에 발간되는 채널텐의 경우 “어른들이 보는 10대의 모습은 싫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10대에 의한, 10대를 위한 국내 첫 웹진으로, 중고생만으로 취재진을 구성해 영화, 가요 등 다양한 메뉴로 10대들의 생각과 고민, 자유로운 시각과 함께 위트와 풍자도 빼놓지 않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자칫 ‘잡지의 저질화’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는 하다. 이상현 교사(네틴편집장, 대구신명여고 교사)는 “일반 청소년잡지와 다를 바 없이 연예인신변잡기나 광고로 도배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청소년잡지를 발행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단체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잡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자기 단체를 알리는 기사 중심으로 잡지를 내놓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쓴 글 대부분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책임감없는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든가 자기 철학을 중심으로 한 원발상이 아닌 기생 발상적인 기사 중심으로 무조건 튀기 위해 야유, 비난, 냉소, 조롱 등의 부정적인 패러디 기사가 많습니다.”라며 청소년들의 장이 펼쳐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청소년잡지들이 외형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바뀌었는가를 면밀하게 자가진단해야 할 지적사항이다.

희망이 담긴 청소년잡지 ‘맥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자신이 직접 청소년기자가 된다면 어떤 기사를 쓰겠느냐’는 질문에 동아리활동, 자격증 취득, 상담터나 건전한 놀이공간 소개 등의 ‘유익한 정보’(28.7%), 대학진학이나 직업세계 등 ‘진료’에 대한 기사(12.7%), 또는 ‘문화예술 분야나 시사상식에 대한 기사’(19.4%)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벼운 내용의 잡지를 찾으면서도 실제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표출할 수 있고 장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청소년잡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신명나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야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잡지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의 언론잡지반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뜻을 담아 펼쳐나갈 청소년잡지를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청소년잡지를 만들자.”는 우리 법인 이강래 상임이사의 얘기처럼,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소년잡지를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자.

- 기사발췌(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의 월간「맥지」 26호('99. 11월) -



자유기고 2

우리말에 진정성을 담자!!

윤영소(우리학교 국어선생님)

말 한 마디에 천냥 빛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천냥 빛을 말로 갚을 수 있다니,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기가 잘하면 좋은 것이 말만은 아니다. 축구도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좋고, 음식도 잘하면 좋고, 공부도 마찬가지다. 기왕이면 춤도 멋지게 잘 추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말 잘하는 것’과 축구 또는 공부 잘하는 것을 ‘잘하면 좋은 것’의 동급에 놓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축구나 공부는 ‘많은 노력’ 뒤에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말 잘하는 것’은 그저 쉽게 - 큰 노력 없이도 -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언뜻 보기엔 그렇다. 돈을 쓰거나 큰 힘들이지 않고도, 상심한 친구에게 희망을 주고, 모임의 딱딱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는 가도 문제지만, 과연 ‘말을 잘한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지도 간단치가 않은 문제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다. 축구를 자주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같지 않고, 모든 식당이 일년 내내 음식을 만들지만 모든 식당의 음식을 맛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같은 자장면 집이라도 맛있는 집과 없는 집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기왕이면 맛있는 집의 자장면을 먹는다.

말의 경우도 그러하다. ‘말 많은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하기도 하고 ‘수다쟁이’라는 이름으로 말 잘하는 것과 차이를 둔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빛을 갚을 수 있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에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논리 정연함 아니면 위대한 사상, 고결한 윤리.....

질문을 다르게 해 보자. 우리는 대체로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가? 학식이 뛰어나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자라고 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다. 신뢰는 돈과 권력, 학식의 있고 없음을 떠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돈 없는 사람보다는 돈 있는 사람을,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권력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우

리는 가식 없이 진솔한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신뢰한다. 또 자신을 위해 성실히 땀을 흘리는가 동시에 이웃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주는 사람을 믿는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끔끔 고민하고 땀흘리고, 모임의 귀찮고 사소한 일도 거들어 주고, 친구와 이웃의 어려움에 마음 기울이는 그런 사람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다.

말속에 이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 천 냥 빛 갚기도 가능한 것이다. 포장만 화려하고 내용물이 빈약할 때 사람들은 분개한다. 말도 마찬가지로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없어 보일 때,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말만 화려하게 하고 정작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는 자신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말을 잘한다는 것이 말 많음과 다름을 지적했고, 말 잘함의 본뜻에는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함을 간파했다. 말이 많으면 경박하기 쉽고, 말이 없으면 답답하다. 하지만 말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은 해야 하고, 많고 적음보다는 말속에 자신의 삶이 담겨진다는 점을 되새겨야 보아야 한다.

말 많고 적음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해야 하는 법이다. 그 속에 반드시 '자신의 삶의 무게'가 담겨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은 우리 역사사랑 친구들이 진정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역사사랑

자유기고 3

식혜는 우리 식생활문화가 거둔 승리이자 희망이다

손진근(우리학교 사회·풍물 선생님)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1·2], [21세기 우리문화]의 저자이자 우리 문화의 지킴이인 주장현의 말이다.

아래의 글은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1]의 서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깊이 새겨 읽어 봐야 할 것이다.

“문자·기록·문헌의 명료한 사실(史實)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씩어지지 않은 문화’의 진실을 모르고서야 어찌 문화의 전체상을 볼 수 있겠는가. 고려청자의 예술적 위대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의 저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금줄, 숫자3, 서낭당, 흰옷 같은 원초적인이며 토속적인 문화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문화의 씨줄과 날줄도 온전하게 자리잡지 않겠는가.”

“ ‘씩어지지 않은 문화’를 제대로 밝힐 때 ‘씩어진 문화’의 올바른 사이가 보인다. 반대로 ‘씩어진 문화’의 이해를 통해 ‘씩어지지 않은 문화’의 중요성도 돋보이는 법이다. 뛰어난 농서를 쓰신 어느 선인께서는 “늙은 농부의 말을 간추린 농법이 농사 짓는 집에서는 제일”이라 하셨다. 나는 이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점검하고 싶었다. 조선왕조실록의 비밀보다는 금줄의 비밀을 풀고자 한 것이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보면 ‘씩어지지 않은 문화’야말로 가장 대중적으로 당대에 유행하던 문화이지 않던가.”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해 마련이다.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문화의 변화 파동은 끊이지 않는다. 조선후기에 고추가 들어오자 김치의 제조방식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어쩌면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그런 변화의 예고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불과 100년 밖에 안 된 서구문화의 유입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쌀밥보다 피자를 즐기는 우리네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서풍에 주눅들었다. 서구우월주의의 관점에서 재단한 ‘문명과 야만’이란 얼마나 그릇된 편견인가. ‘똥은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는 생각의 이면에는 서구적 사고와 문명관이 들어 있다. 하지만 그 위생적이라는

수세식 변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우리 전래의 동태지를 고사시킨 원인이었다. 개고기는 또 어떤가. 개가 애완동물이라는 사고 역시 지극히 서구적인 것이 아니던가. '10리만 떨어져도 물과 바람이 다르다'는데, 남의 잣대로 우리문화를 가늠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동풍, 그것도 단순한 동풍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내면에 끈끈하게 이어져도 동풍으로 '문화의 신토불이론'을 세워야 할 때다. "나는 본래 조선 사람, 조선시를 즐겨쓰리"라고 했던 정다산의 '조선시 선언'을 되새겨야 할 일이다."

"21세기 새로운 문화파동의 바람이 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문화의 테러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우리 문화에 대한 근거없는 자존심 세우기도, 우리문화에 대한 불필요한 자기비하도 모두 '테러'의 대상이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나름의 생활 문화를 가졌고 그에 바탕한 고급문화도 지녔다. 따라서 그 문화가 어떤 이유에서 낮게 평가될 필요도, 과장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자기 것을 갖고 지키겠다면 그로써 족한 일이다. 상대적 우월감이나 상대적 열등감은 모두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세계적인 차원의 문화교류를 가로막을 뿐이다."

"가장 민족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이다."라는 고전적인 명제가 떠오른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자. 외국 것이 들어와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우리는 문화전사가 되어, 우리 문화에 대해 쓰달란 말에 위 글로 대신한다.

"역사사랑"은 참 좋은 동아리이다. 달리는 청춘 최보경 선생님의 동분서주 하시는 그 정열 만으로도 아름다운 동아리이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의 앓은 밝은 미래·진실된 미래의 약속하는 것이다.** 한 해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최보경 선생님과 회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내년에는 더욱 잘하리라 믿으며, "역사사랑, 얼-씨구 좋-다." **역사사랑**

상반기 정기 총회

내가 역사사랑에 존재하는 이유


이지선(역사사랑 총무부장, 고1)

아주 거센 바람이 창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날씨에 역사사랑의 첫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장소는 남중 기숙사 최보경 선생님의 방이었다. 모인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나뭇대로 각오가 되어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기 총회는 진행되었다. 회장인 '이영석' 군의 진행 하에 모든 것이 순순히 이루어 졌다. 먼저 '역사사랑'의 회칙을 낭독하였다. 역사사랑 회칙은 우리 동아리의 생명이다. 모든 활동은 회칙에 준하고 이는 우리의 약속이다. 회칙 초안은 최보경 선생님이 작성하였다. 최보경 선생님께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질문과 의견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수정 보완된 회칙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가장 크게 문제시 된 것은 회비 결정과 신입회원 입회 방법이었다.

여기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웃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무사히 결정 났다. 회칙 결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집행부 선발이 있었다. 먼저 회장은 고2 '이영석', 총무부장 고1 '이지선', 감사부장 고1 '변고운', 편집부장 고1 '권혜정', 이렇게 각자 직책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직책을 맡게 되니 동아리에 대해 더욱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정기 총회나 회칙의 필요성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몸소 느낄 수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나뭇대로 역사사랑이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역사사랑에 내 자신이 역사의 왜곡된 사실을 알고서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입회하였다. 나 스스로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나 이외의 동무들에게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하반기 정기총회

대단한 동아리야 정말

안준영(역사사랑 교육선전부원, 중2)

늦봄 어느 초저녁 어떤 아이들이 옹기종기 트럭에 탄다. 바로 그 아이들은 역사사랑 회원들이다. 이들은 간디학교의 제2배움터인 둔철 분교로 향했다. 임시총회와 단합대회 목적으로 간 것이었다. 역사사랑 지도 선생님이신 최보경 선생님은 오전부터 산청으로 나가셔서 직접 시장을 보고 오셨다. 라면과 떡볶기 파티!! 생각만 해도.....

우린 간디대학의 그 덜컹거리는 트럭을 타고 그렇게 둔철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우린 우리가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붙들며 주면서 말이다. 이날은 내가 역사사랑에 처음 들어온 날이기도 하다. 하반기 정기총회 안건은 회비와 관련한 회칙 개정안과 3학기 활동계획, 집행부 선출 및 상반기 역사사랑 평가였다. 단합대회는 물론이다. 이름하여 제 1회 역사사랑인의 밤!! 이름부터도 정말 멋있다. 사실 난 역사사랑 모임에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몰랐다. 그냥 주말마다 답사 간다는 것 정도 밖에는...

하지만 그 날 나는 무척 놀랐다. 정기총회는 엄청난 진지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정말 대단했다. 모두들 둘러앉아서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 준비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간디인들이 이럴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역사사랑 지도선생님이신 최보경 선생님께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회의였다. 단지 선생님은 우리와 똑같은 회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임하고 계셨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회의 운영과 진지함이 정말 인상 깊었다. 거기에다 엄청난 조직성까지 정말 대단한 동아리다.


회의방식은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장의 사회로 시작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발표를 할 때도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색할 정도로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고 정기총회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겨졌다. 물론 나는 두 시간 이상이나 회의를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정기총회에서 역사사랑 회원들이 얼마나 역사사랑이라는 동아리에 관

심과 애착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회의 결과 정기회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혜정이 누나의 탈퇴로 공석이 된 편집부장 자리는 차장인 미애가 하기로 하고 다른 회원들이 도와주기로 했다. 하반기 활동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아직 역사사랑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다른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고 회지 '역사사랑' 창간호에 전념하기로 했다.

나는 종현이와 같이 자기 소개와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회원들에게 하고 정식회원이 되었다. 조금은 쑥스러웠지만 동아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다.

그리고 광란의 제 1회 역사사랑인의 밤!! 라면과 떡볶기, 역시 먹는 일은 행복한 것이여~~~


나의 사랑, 역사사랑 화이팅!!! 

신입회원 자기소개서

내가 역사사랑에 들어온 이유

지중현(역사사랑 총무부원, 중1)

내가 역사사랑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2가지이다. 먼저 그 동안 동아리 활동 한 것이 없어서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름방학 전의 전시했던 탁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나서이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서 밥(점심)을 먹는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선 못 해볼만한 일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사랑에 끌렸기 때문이다.

일단 역사사랑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싶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박성준(역사사랑 총무부원, 중1)

안녕하세요! 성준입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설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왜 들어 왔는가? 역사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입니다. 왜냐면, 전 학교에서도 역사사랑과 비슷한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학년도 많이 하니 들어오게 된 거죠.

저희 동아리 선생님 아시죠? 최보경 선생님입니다. 너무 험하게 생기시지 않으셨나요? 매번 동아리 활동할 때마다 무서워요.(농담이에요~~)

그래도 우리 동아리가 사람 수는 많네요.

그 중에서 1학년이 제일 많죠? 역시 1학년이 열심히 하는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세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할 일이 많아요. 자주 다른 곳도 가고, 보고, 만지고, 실습도 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와여~~ 와여~~)

참... 이제 쓸게 없는데...

최보경 선생님! 저한테 이런 이렇게 힘든 것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만 쓸게요. **역사사랑**

나는 역사사랑이 좋아요

강석희(역사사랑 답사부원, 중1)

안녕하세요?

저 석희예요. 역사사랑에는 아직 한번 밖에 못 모였지만, 그 한번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 우리 나라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말 우리의 주권이 있나요? 노근리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요. 내나라 내 땅, 우리 강토에서 말이에요. 민족의 아픔이 어찌면 아직도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미국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일까요? 대통령은 뭐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역사를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았다면...

그래서 저는 역사사랑에서 역사를 좀 더 잘 알리려고 역사사랑에 들었습니다. 역사사랑 화이팅!! **역사사랑**

역사사랑 짱이야!

임수근(역사사랑 총무부원, 중2)

내가 역사사랑에 든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역사사랑에 들었다.


역사사랑에 들기 전에 역사사랑에서 탁본도 만들고 역사 비디오도 보고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견학도 가고 그래서 역사사랑에 든 이유이기도 하다.

역사사랑 담당 선생님은 보경쌤이다. 저번에 구미 쪽에 가서 발굴 현장을

갔는데 보경쌤이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못하는 일을 해 봤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유물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었다

역사사랑에서는 견학 갈 때 밥을 싸들고 가서 밖에서 먹는데 진짜 맛있다. 역사사랑에서 앞으로 문화유산 견학도 자주 가고 역사 비디오도 보고 해서 역사사랑에서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세요~

역사사랑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길... 

역사사랑 후원금 신청서

좋은 역사책 골라보기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싶어 책방이나 도서관을 뒤져보아도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지 몰라서 고생하시거나 포기하신 분들! 저희 편집부가 최보경선생님의 지대한 도움을 받아 좋은 역사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랄랄라 나 지금 책 읽으러 간다

기본도서

- “역사 에세이”, 장수한, 동녘, 1992
- “내 머리로 생각하는 우리 역사 이야기”, 유시민, 한샘출판사, 1994
- “애들아 역사로 가자”, 조호상, 풀빛, 1995
-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전병철, 내일을 여는 책, 1997
- “역사를 위하여”, 강만길, 한길북하우스, 1999
- “역사란 무엇인가”, E.H.Carr(저)/박종국(역), 육문사, 1993
- “사관이란 무엇인가”, 차하순 외, 청람문화사, 1992
- “역사로의 입문”, 이상현, 박문각, 1993
- “역사인식의 길잡이”, 박수천, 동녘, 1988

한국사

통사

- “이야기 한국사(1-10)”, 이야기한국사편찬위원회, 풀빛, 1985
- “이야기 한국역사(1-13)”, 이야기한국역사편찬위원회, 풀빛, 1997
- “한국사 이야기(1-24)”, 이이화, 한길사, 1998
- “상상하는 한국사(1-19)”, 김정환, 푸른 숲, 1996
- “바로 보는 우리 역사(1-2)”, 구로역사연구소, 거름, 1990
- “한국사 새로 보기(1-2)”, 전국역사교사모임, 우리교육, 1995
- “우리 역사 이야기(1-3)”, 조성오, 돌베개, 1993
-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노태돈 외, 창작과 비평사, 1997
- “민중의 역사(1-2)”, 이성광, 열사람, 1989
- “한국 민중사(1-3)”, 한국 민중사 연구회, 풀빛, 1986

- “다시 찾는 우리 역사”, 한영우, 경세원, 1997
- “한국사 강의”, 한국사연구회, 한울 아카데미, 1989
- “한국역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1992
- “조선문화사”, 사회 과학원 역사연구소, 오월, 1988
- “한국사(1-26)”, 강만길 외, 한길사, 1994
- 시대사
- “한반도 30억년의 비밀”, 유정아, 푸른숲, 1998
-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1998
- “한국 고대사 산책”,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1994
- “금관의 비밀”, 김병모, 푸른 역사, 1998
- “새롭게 쓴 한국고대사”, 김기홍, 역사비평사, 1993
- “삼국유사(상, 하)”, 일연, 솔, 1997
- “한 권으로 읽는 삼국왕조실록”, 임병주, 들녘, 1998
- “발해국사”, 김정배, 정음사, 1988
- “고려시대사(상, 하)”, 박용운, 일지사, 1988
-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2)”, 한국사연구회, 청년사, 1997
- “한 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박영규, 들녘, 1996
-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1-2)”, 한국사연구회, 청년사, 1997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역사(1-3)”, 역사문제연구소, 웅진출판사, 1993
- “조선의 부정부패와 그 멸망에 이르는 역사”, 박성수, 규장각, 1999
-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푸른 역사, 1998
- “조선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 1996
- “조선시대 우리옷”, 권오창, 현암사, 1998
- “조선의 성 풍속”, 정성희, 가람기획, 1998
- “해방전후사의 인식(1-5)”, 한길사, 1979
- “광복전후사의 재인식(1-2)”, 이현희, 범우사, 1991
-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1-3)”, 박세길, 돌베개, 1992
-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1-5)”,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1987
-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1984
- “한국 근현대 민중운동사”, 망원 한국사 연구실, 돌베개,
- “한국 현대사 강의”, 김인걸 외, 돌베개, 1988
- “바로 보는 한국 근현대 100년사”, 김송달, 거름, 1998
- “한국 현대사 이야기 주머니(1-3)”,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분과, 녹두, 1993
- “시와 소설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이재규, 심지, 1994

- “어처구니 없는 한국 현대사”, 김희경 외, 지성사, 1996
“해방 후 정치사 100장면”, 김삼웅, 가람기획, 1996
“제주 4.3 연구”, 제주 4.3 연구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역사비평사, 1999
“박정희의 유산”, 김재홍, 푸른 숲, 1998
- 일반류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정인, 거름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1-2)”,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3
“물구나무서서 보는 한국 역사(상, 하)”, 김현목, 녹진, 1993
“반역의 역사(상, 하)”, 김현목, 계백, 1995
“한국 반란사”, 박한실, 큰바위, 1997
“거슬러 가 보는 우리 역사 속의 난”, 박덕은, 떡갈나무, 1997
“한국사 100장면” 박은봉, 실천문학, 1993
“북한사 100장면”, 고태우, 가람기획, 1996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8
“100문 100답 한국사 산책”, 박현, 백산서당, 1994
“상식 밖의 한국사”, 남경태, 새 길, 1995
“교실 밖 국사여행”, 역사학연구소, 사계절, 1990
“쟁점으로 본 한국사”, 김육훈, 푸른 나무, 1996
“역사 속의 역사 읽기(1-3)”, 고석규 외, 풀빛, 1996
“우리 역사를 읽는 33가지 테마”, 우윤, 푸른 숲, 1997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1-2)”, 박한용 외, 동녘, 1996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 이기훈, 지성사, 1997
- 인물사
- “이야기 한국 인물사(1-5)”, 이이화, 한길사, 1993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1-3)”, 한겨레신문사, 1992
“한국 현대사의 라이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1
“역사의 라이벌”, 박남일, 계백, 1995
“인물을 통해 들여다보는 한국 고대사의 숨은 이야기”, 박승제, 우리교육, 1995
“조선왕조 충의열전”, 최완수, 돌베개, 1999
“누가 왕을 죽였는가”, 이덕일, 푸른 역사, 1999
“역사에 빛나는 한국의 여성”, 안춘근, 범우사, 194

- “인물 여성사(한국편, 세계편1, 세계편2)”, 박석분 외, 새 날, 1996
- “그림으로 보는 한국 여성 미학의 사회사”, 강성원, 사계절, 1998
- 한일 관계사
- “일본 속의 백제 문화(1-2)”, 송형섭, 한겨레, 1997
- “일본은 한국 역사를 왜 비뚤로 가르칠까”, 홍진희, 소나무, 1992
- “실록 친일과”, 임종국, 돌베개, 1993
- “친일과 99인(1-3)”, 반민족문제연구소, 돌베개, 1993
- “친일과 100인 100문”, 김삼웅, 돌베개,
- “인물로 보는 친일과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3
-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 김문길, 혜안, 1995
- “우리가 일본에 전해 준 고대 하이테크 100가지”, 손제하, 일빛, 1996
- “일본을 안다구요?”, 이기애, 한겨레신문사, 1997
-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1-2)”, 한일관계사학회, 자작나무, 1998
- “일본 또 하나의 한국”, 부지영, 한송, 1998
- “한일 교류사”, 김익한, 학고재, 1998
- 사료, 자료
- “사료로 보는 우리역사(1-2)”, 전국역사교사모임, 돌베개, 1992
-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김삼웅, 가람기획, 1997
-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이광린, 일진사, 1984
- “자료모음 근현대 한국탐사”, 권태억 외, 역사 비평사,
- “분단 자료집 1945-1948 자료 모음”, 편집실, 한백사, 1989
- “역사 신문(1-6)”,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사계절, 1995
-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산하, 1992
- “한국 미술사 101장면”, 임두빈, 가람기획, 1998
- “미술로 보는 우리역사”, 전국역사교사모임, 푸른 나무, 1992
- “호외 백년의 기억들”, 정운현, 삼인, 1997

세계사

- “세계사 신문(1-3)”, 사계절, 1988
- “세계사 눈뜨기”, 이경수, 동녘, 1996
- “서양 문명의 역사(1-4)”, 번즈. 러너. 미첨(지음)/박상익. 손세호(옮김), 소나무, 1996
- “곰브리치 세계사(1-2)”, 에른스트 H. 곰브리치(지음)/강성호(감수), 자작나무, 1997

- “극단의 시대 : 20세기 역사”, 에릭 홉스본(지음)/이은주(옮김), 까치글방, 1997
- “에세이 세계사(1-3)”, 대일서점 편찬위원회(지음)/이윤희(편역), 백산서당, 1992
- “에세이 세계사(상, 하)”, 편집부, 백산서당, 1981
- “세계의 역사(고대, 중세, 근대1-2)”, 편집부, 형성사, 1986
- “다시 보는 세계 역사(1-2)”, 오에 키즈미치(지음)/채정자(옮김), 친구, 1991
- “교실 밖 세계사 여행(상, 하)”, 김성환, 사계절, 1998
-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푸른 나무, 1988
- “반역의 세계사(상, 하)”, 박남일, 계백, 1995
- “세계 반란사”, 박한실, 큰바위, 1997
- “한 권으로 전쟁사 101장면”, 정토웅, 가람기획, 1997
- “세계사 편력(1-3)”, J. 네루(지음)/곽복희, 남궁원(옮김), 일빛, 1995
- “중고생을 위한 세계사 편력”, J. 네루(지음)/장명국(편역), 석탑, 1982
- “청년대중을 위한 세계의 역사(상, 하)”, 중국인민교육출판사, 청년사, 1990
- “이야기 세계사 여행(1-2)”, 현준만, 실천문학사, 1994
- “세계사 100장면”, 박은봉, 실천문학사, 1992
- “세계사 뒷이야기”, 박은봉, 실천문학사, 1997
- “100문 100답 세계사 산책”,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지음)/이윤희(옮김), 백산서당, 1993
- “세계사의 9가지 오해와 편견”, 이영재, 응진출판, 1997
- “상식 밖의 세계사”, 안효상, 새 길, 1993
- “어 그래? 세계사”, 이규조, 일빛, 1997
- “인간의 역사”, 조성오, 동녘, 1984,
-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나(1-3)”, M. 일리인, 연구사, 1987
- “세계의 유적과 전설의 땅”, 제니퍼 웨스트우드(지음)/김향(옮김), 가람기획, 1997
- “고고학 풍경 29가지”, 브라이언 페이지(지음)/남경태(옮김), 일빛, 1997
- “연필로 읽는 재미있는 인류 문명사”, 헨리 페트로스키(지음)/홍성림(옮김), 지호, 1997
- “재미있는 질병과 인간의 역사”, 타츠가와 쇼지(지음)/황상익(옮김), 동지, 1991
- “인물로 본 세계사 어땠거나.... 그 때는”, 엄창현, 사회평론, 1997
- “위대한 발굴”, 이병철, 가람기획, 1996

- “고대에 대한 열정”, 하인리히 슐리만(지음)/김병모(옮김), 일빛, 1997
- “습관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피터 콜릿, 청림출판, 1997
- “세계 미술관 여행”, 김윤순, 코리언북스, 1998
- “사진에 담긴 세계문화기행”, 임정의, 코리언북스, 1998
- “유시민과 함께 하는 신대륙문화이야기”, 유시민, 푸른 나무, 1999
- “유시민과 함께 하는 유럽이야기(1-2)”, 유시민, 푸른 나무, 1999
- “세계 5대 제국 흥망의 역사”, 유아사 다케오, 일빛,
- “20세기 대사건 79장면”, 양동주, 가람기획, 1996
- “20세기 결전 30장면”, 정도웅, 가람기획, 1996
- “벌거벗은 로마사”, 인드로 몬타넬라(지음)/박광순(옮김), 풀빛, 1999
- “로마인 이야기(1-7)”, 시오노 나나미(지음)/김석희(옮김), 한길사, 1997
- “미국사 100장면”, 유중선, 가람기획, 1996
- “러시아사 100장면”, 이무열, 가람기획, 1996
- “이야기 미국사”, 역사교육연구회, 청솔출판사, 1995
- “중국사 100장면”, 안정애 외, 가람기획, 1993
- “상식 밖의 동양사”, 박윤명, 새 길, 1994
- “이야기 중국사(1-3)”, 김구진, 청아, 1986
- “한자의 역사”, 아츠지 테츠지(지음)/김인중, 박재량(옮김), 학민사, 1996
- “사마천과 함께 하는 역사기행”, 다케다 다이준(지음)/이시현(옮김), 하나미
디어, 1993
- “한 권으로 풀어 쓴 이야기 중국사”, 청솔역사연구회, 청솔, 1997
- “한 권으로 읽는 삼국지”, 나관중, 숨은 책, 1997
- “삼국지 신문(1-3)”, 나채훈, 실천문학, 1997
-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사”, 강용규, 학민사, 1993
- “중국 황실의 비밀 이야기”, 임원춘, 무당미디어, 1997
-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송창 외(지음)/강석진(옮김), 동방미디어,
1997
- “중국 역사 지리”, 류제헌, 문학과 지성사, 1997
- “신중국사”, 존 킹 페어뱅크(지음)/중국사 연구회, 까치, 1994
- “이야기 일본사”, 김희영, 청아, 1987
- “일본의 역사”, 민두기, 지식산업사, 1969
- “상식 밖의 일본사”, 안정환, 새 길, 1995
- “한권으로 보는 일본사 100장면”, 강창일 외, 가람기획, 198
- “누구도 쓰지 못한 일본문화의 수수께끼”, 이어령, 우석출판사, 198

-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김지룡, 명진출판사, 1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르네 그루쎄, 사계절, 1988
“인도사”, 조길태, 민음사, 1994
“인도의 발견”, 자와할랄 네루, 한길사, 1997
“이슬람 문명사”, 버나드 루이스 외(지음)/김호동(옮김), 이론과 실천, 1994
“아프리카를 가다”, 서진근, 명문사, 1994
“이집트 문명탐험”, 이문열, 나남, 1997
“세계사 밖의 세계사 100문 100답 중동 아프리카”, 일본교육자협의회/채정자, 비안, 1994
“초 고대문명”, 맹성렬, 넥서스, 1997

역사만화

- “만화로 보는 현대 한국사(1-3)”, 백무현, 가람기획, 1997
“만화로 읽는 철학 너 자신을 알라”, 조준상, 서광사, 1997
“교양만화문고1.2 노동의 역사(1-2)”, 박규홍, 형성사, 1988
“교양만화문고3 한국의 역사1 가보세 가보세” 박규홍, 형성사, 1989
“교양만화문고10 일제하 노동운동사”, 한소우, 형성사, 1989
“만화로 보는 지하철 노조 10년사”, 이성범, 단군, 1997
“학습 만화 한국사(1-21)”, 이원복, 계몽사, 1993
“만화로 보는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 이원복, 동아출판사, 1993
“잃어버린 단제(1-3)”, 한국우리민족사연구회, 청림출판사, 1995
“풀빛만화 객주(1-10)”, 이두호(글,그림)/김주영(원작), 풀빛, 1993
“마당그림 장길산(1-20)”, 백성민(그림)/황석영(글), 풀빛, 1991
“만화 임격정(1-21)”, 이두호, 프레스빌, 1995
“목긴 사나이”, 박재동, 글논그림발, 1993
“역 공화국”, 박재동, 한겨레 신문사, 1996
“만화로 보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원복, 동아출판사, 1990
“만화로 보는 북한 50년사 아! 북조선(상, 하)”, 이동우/김학준, 동아출판사, 1996
“만화로 보는 세계사”, 탁영호, 석탑, 1992
“만화로 만나는 20세기 큰 인물”, 이휘재 외, 웅진출판, 1997
“만화 먼 나라 이웃나라(1-6)”, 이원복, 고려가, 1987
“만화 십팔사략(1-10)”, 고우영, 두산동아, 1998
“일본 만화 현대사”, 요시히로 코스께, 우용출판사, 1998

역사소설

- “고구려를 위하여(1-3)”, 김병호, 하서출판사, 1997
- “삼국의 혼(1-3)”, 김정산, 고도, 1998 ※우리 나라의 삼국지
- “빛의 바다(상, 하)”, 김영중, 사계절, 1998 ※발해 건국 과정
- “화척(1-5)”, 김주영, 문이당,
- “달과 칼(1-5)”, 홍성원, 한양, 1993 ※조일전쟁(임진왜란)
- “실존 인물 홍길동”, 설성경, 정철, 중앙M&B, 1998
- “임격정(1-10)”, 홍명희, 사계절,
- “활빈도(1-5)”, 김주영, 문이당,
- “객주(1-10)”, 김주영, ※조선 후기 상인의 삶
- “장길산(1-10)”, 황석영, 현암사,
- “하멜의 역사(상, 하)”, 김필주, 하나로, 1996
- “그 섬에 간 사람들(상, 하)”, 김낙봉, 하나로, 1996
- “객지”, 황석영, 창작과 비평사,
- “일제시대(1-12)”, 이이녕, 전인교육, 1999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문학과 지성사,
- “광장”, 최인훈, 문학과 지성사, ※좌우익의 갈등
- “아리랑”, 님 웨일즈(지음)/조우화(옮김), 동녘, 1984
- “아리랑(1-12)”, 조정래, 해냄, 1994
- “녹슬은 해방구(1-9)”, 권운상, 백산서당, 1989
- “태백산맥(1-10)”, 조정래, 한길사, 1986
- “박정희의 유산”, 김재홍, 푸른 숲, 1998
- “봄날(1-5)”, 임철우, 문학과 지성사, 1998 ※광주민중항쟁
- “공화국 사람들의 이야기 장백산(1-3)”, 정선산, 조일환, 토지, 1999 ※이남
최초 이북소설
- “세종대왕(상, 하)”, 이상우, 동방미디어, 1997
- “소설 훈민정음”, 이찬우, 가람기획, 1997
- “매월당 김시습”, 이문구, 문이당, 1997
- “불멸(1-5)”, 김탁환, 미래지성, 1998 ※이순신의 삶
- “동의보감”, 이은성, 창작과 비평사, 1990
- “목민심서(1-5)”, 황인경, 삼진기획, 1992
-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종채, 돌베개, 1998
- “사도세자의 고백”, 이덕일, 푸른 역사, 1998
- “불꽃의 자유혼 허난설헌(1-2)”, 김명숙, 금토, 1999

- “실록소설 문화재비화(1-2)”, 고재희 돌베개, 1996
“짐은 이것을 역사라 부르리라(상, 하)”, 김현기, 한겨레 신문사, 1997
“시황제(1-2)”, 김현기, 한겨레 신문사, 1998
“칭기스칸(1-8)”, 이재운, 해냄, 1998
“클레오파트라”, C.M 프랑체로, 미래문화사, 1997
“람세스”, 크리스티앙 자크, 문학동네, 1997
“나폴레옹(1-5)”, 막스 갈로, 문학동네, 1998

답사

- “아빠 일요일엔 여기가요!”, 편집부, 혜인, 1994
“한국의 명산대찰”, 한국관광문화연구소, 국제불교도협의회, 1982
“답사여행의 길잡이(1-1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1994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에 간다”, 이원복, 효형출판사, 1997
“눈 높이 1cm 올리는 문화 유산 상식 여행”, 김정기, 오주환, 이토, 1998
“역사와 지명”, 김기빈, 살림터, 1996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1-2)”, 주장현, 한겨레 신문사, 1996
“민화를 통해 본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귀신먹는 까치호랑이”, 김영재, 들
녘, 1997
“재발견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원, 1998
“유물의 재발견”, 남천우, 학고재, 1997
“밭굴 이야기”, 조유전, 대원사, 1996
“한국 문화유산 수난사”, 이구열, 돌베개, 1996
“겨레유산 이야기 나를 찾아 떠나는 전통여행”, 김상웅, 삼인, 1998
“유물로 읽는 우리 역사”, 이덕일, 세종서적, 1999
“박물관 밖의 문화유산 산책(1-2)”, 김영원 외, 녹두, 1999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3)”, 유홍준, 창작과 비평사, 1993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상)”, 유홍준, 중앙M&B, 1998
“부끄러운 문화 답사기”, 기록문화회, 실천문학, 1997
“고구려 문화 유적 산책”, 김삼, 대륙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밭해를 찾아서”, 송기호, 솔, 1993
“동학농민전쟁 역사기행”, 역사문제연구소, 여강, 1993
“제주 4.3현장 르포추적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4.3문화사업추진위, 학민
사, 1998
“조선왕조의 빛과 그늘 우리의 고궁”, 김재일, 한림미디어, 1997

역사사랑

양케이트 I

안준영

나이 학년 : 중2 14

좋아하는 것 : 핑크와 하드코어와 물고기 등등

역사사랑에 들어온 이유 : 역사사랑이니까..

역사사랑에 바라는 점 : 역사를 사랑하자.

역사사랑에서 가장 좋은 점 : 역사를 사랑한다.

역사사랑에서 하고 있는 일 : 역사를 사랑한다.

생활신조<좌우명>:모든 좋은 말은 나에게 좌우명이다. 특히 이사가 한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위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에 애도를 포함니다.)

회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 : 난 그냥 이대료가 좋다.

역사사랑

양케이트 II

이지선

나이 학년 : 17년 목은 고1

좋아하는 것 : 초콜렛과 빨대, 오렌지 주스, 와플, 이빠이로 단 쿠키!

역사사랑에 들어온 이유 : 역사

역사사랑에서 가장 좋은 점 : 역사를 만든다.

역사사랑에서 하고 있는 일 : 돈만진다.

생활신조<좌우명>:너무 많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시간은 금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막상 하라니깐 가슴 떨려서 할 말이

없어져버렸다.

회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 : 이대로 제발 내 버려 뒤~.

역사사랑

감사편지

후원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사랑 회장 이영석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마구 불어 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팬을 든 이유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 위함입니다. 역사사랑에 끊임없는 사랑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신 여러 어머니께 역사사랑 회지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거의 매주 답사를 다니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정기총회에서는 결렬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열의는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으나 학생신분으로 많은 회비를 낼 수 없어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축제 때 탁본을 전시하려고 배접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저희들 회비로는 턱없지 모자라는 바람에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보경 선생님의 주머니에 의존을 한 편이었습니다. 최보경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지원해 주셨지만 마음은 늘 죄스러웠습니다. 동아리를 이끄는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앞서더군요. 회원은 회비가 부담스럽다고 늘 호소하고 그렇다고 동아리 성격상 회비를 줄일 순 없고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종현이, 원균이 어머니의 후원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구 두류공원에서 1박 2일로 있었던 '풍물굿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을 때, 역시 멀리 답사를 가는 바람에 회비가 모자랐습니다. 때마침 대구에 계시는 지훈이 어머니와 원균이 어머니께서 식사와 잠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저희 회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모두 여러 어머니를 봐서라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역사사랑 원년 역사사랑인을 대표해서
회장 이영석 올림

역사사랑인의 하나됨을 위해

노래방은 캡이다

지종현(역사사랑 총무부원, 중1)

나는 불과 얼마 전에 역사사랑에 가입했다. 아직은 같이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지난 하반기 정기총회 가입해서 본 역사사랑은 정말 좋다. 같이 답사도 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다. 이번 노래방 단합대회도 지현이 누나 생일잔치를 위한 것이지만 역사사랑의 하나됨을 위한 자리였다. 같이 노래 부르며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토요일 우리 역사사랑은 원지의 조그만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음료수와 과자도 샀다. 노래방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영석이형을 선두로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갔다. 왜냐면 최보경 선생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거기엔 그때 새로 들어온 성준이도 있었다. 성준이는 아직 어색한 듯 말이 없었지만 곧 익숙해져서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누나들과 형들이 차례대로 핑크, 최신가요, 팝송 장르를 가리지 않고 불렀다.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영석이 형과 재원이 형이 부른 노브레인의 '청춘 '98' 이었다. 누나들도 꽤 많았는데 주저 없이 '사정없이...' 라는 가사를 부르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말이다.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의외의 목소리를 가진 성준이. 예상외로 연속적으로 발라드를 부르는데 처음에 안 보았을 땐 코러스인 줄 알았다가 풀어서 진짜 말이 안나왔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못해도 핀잔주지 않고 잘했다고 박수쳐 주고 같이 어울리면서 노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이것이 역사사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힘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그때가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 같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

영석이형

역사사랑 회원과 생일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어요

- 최보경 선생님 : 1974년 3월 17일 (음력)
- ◎ 강석희(중학교 1학년) : 1987년 1월 3일
- ◎ 박성준(중학교 1학년) : 1986년 1월 10일
- ◎ 이원균(중학교 1학년) : 1986년 6월 14일
- ◎ 황성하(중학교 1학년) : 1986년 10월 5일
- ◎ 지중현(중학교 1학년) : 1986년 10월 26일
- ◎ 이한빈(중학교 1학년) : 1986년 12월 18일
- ◎ 안준영(중학교 2학년) : 1986년 1월 18일
- ◎ 임수근(중학교 2학년) : 1986년 1월 23일
- ◎ 이미애(중학교 2학년) : 1985년 7월 11일
- ◎ 박지훈(고등학교 1학년) : 1984년 1월 18일
- ◎ 정재원(고등학교 1학년) : 1983년 6월 5일
- ◎ 이지선(고등학교 1학년) : 1983년 6월 14일
- ◎ 박은혜(고등학교 1학년) : 1983년 6월 21일
- ◎ 신지현(고등학교 1학년) : 1983년 10월 6일
- ◎ 심은아(고등학교 1학년) : 1982년 12월 10일
- ◎ 이영석(고등학교 2학년) : 1982년 11월 17일

생일맞은 친구는 축하해 줘시다

역사사랑

역사사랑 회칙

역사사랑 회칙

전문

본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 참된 역사를 지향하며, 모범적인 학생 자치 활동으로 간디학교의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난다.

1장 총칙

- 1조(명칭) 본회는 달리는 청춘, 실천하는 청년의 삶 역사사랑이라 한다.
- 2조(목적) 본회는 왜곡되고 숨겨진 민족사의 복원을 통해 참 역사의 나아갈 방향성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 3조(활동)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올바른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단, 공개토론을 원칙으로 하되, 매 토론 시 토론의 내용이나 형식은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에서 결정하며 모임은 1주 1회로 한다.

2. 원활한 토의, 토론을 위해 풍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3. 모임에서 토론할 내용을 모든 간디인과 공유하기 위해 대자보 선전, 설문지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살아 숨쉬는 역사인식을 위해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단, 답사 장소와 일정은 전 회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5. 역사사랑 회지 '역사사랑'을 발간한다.

단, 발간은 한 학기에 한번으로 한다

6.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7. 회원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모꼬지를 갈 수 있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원의 논의를 거쳐 장소와 일정을 결정한다.

2장 회원

- 4조(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간디학교 학우로 한다.

- 5조(가입절차) 본 회원의 가입은 역사사랑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후 가입을 허가한다.

- 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회의 회칙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4.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7조(징계) 본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집행부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는 경고 3회 후 제명으로 한다.

3장 조직

8조(구성) 본회는 총회, 회장, 집행부, 지도교사로 구성된다.

9조(총회)

1.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1회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3월과 9월중에 실시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ㄱ. 회칙 제정 및 개정

ㄴ. 활동 계획 및 승인

ㄷ. 회장 및 집행부 선출 및 탄핵

ㄹ. 예산 및 결산 승인

ㅁ.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전처리

ㅂ. 회원의 탄핵

4.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전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조(회장)

1. 본회는 회장 1인을 둔다.

2. 회장은 역사사랑을 대표하며 총회와 집행부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 궐위 시 총무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회장의 탄핵은 전 회원의 과반수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전 회원의 2/3찬성으로 탄핵한다.

11조(집행부)

1. 총무부, 교육선전부, 편집부, 답사부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 총회를 통해 부서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ㄱ. 총무부는 역사사랑의 전 사업에 있어 회계 및 실무를 담당하며 총무부장 아래 총무차장을 둘 수 있다.

ㄴ. 교육선전부는 역사사랑의 정기모임 준비와 자료의 수집과 배포 대자보 선전 및 설문지 조사를 책임진다. 교육선전부장 아

래 교육차장을 둘 수 있다.

- ㄷ. 편집부는 회지 발간과 정기모임의 보고서 작성, 답사 자료를 책임진다. 편집부장 아래 편집차장을 둘 수 있다.
- ㄹ. 답사부는 현장 답사를 책임지며 답사부장 아래 답사차장을 둘 수 있다.

12조(지도교사)

- 1. 본회는 지도교사를 둘 수 있다.
- 2. 지도교사는 본회의 회원이다.

4장 선거

13조(선거)

- 1. 회장은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해 회장이 하며 집행부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 3. 집행부는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출한다.

5장 재정

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1. 회비는 매달 3천원으로 한다.
- 2.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한다.
단, 본회의 목적에 준한다.

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개최 후부터 차기 정기 총회전까지로 한다.

16조(자금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회원에 매월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17조(이월) 매년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한다.

18조(결산공고) 정기총회 시 결산을 공고한다.

부칙

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 당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